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OCT 13 1982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948-949 1982년 10월 8일(금) & 9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Friday & Saturday, October 8 & 9, 1982

무대 수놓은 한국춤의 극치

캐네디언들 감탄연발 기립박수

국립무용단의 토론토 데뷰공연은 전 교민들에 한국전통예술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오랜 훈련에서 비롯된 것임에 틀림없는 출연자들의 일사분란한 움직임과 절제된 동작밑에 숨겨진 폭발할 듯한 열정, 화려하고 우아한 한국적 색채로 시종 관중을 휘어잡은 무용단의 1,2부순서가 모두 끝나자 관중들은 전원기립, 긴 박수갈채를 보냈다.

국립무용단은 6일밤 8시부터 라이어슨 극장 (43Gerrard St.E.)에서 약2시반동안 1부 궁중무, 2부 민속무의 순서로 나뉘어 13개의 한국춤을 보여주었다.

제1부는 무대 바로 밑에 자리한 궁중악사차림의 5명의 악사들이 피리, 퉁소, 가야금, 장구, 북등으로 배경음악을 곁들였고, 2부는 녹음음악으로 진행했다.

7일자 글로브·앤·메일지는 연예면 5단박스톱기사에서 북춤을 추는 무용단의 사진과 함께 찬란한 한국 무용수들이 시적인 스타일로 기분좋은 춤을 보여주었다고 논평했다.

특히 이신문은 한국여인과 의상의 아름다움을 지적했다.

막이 오르고 첫순서로 궁중부인의 복장을 한 김향금씨와 18명의 여성무용수들이 화려한 꽃관을 쓰고 느리고도 우아한 한국고전춤의 정석을 선보였다.

국수호씨와 이미옥씨가 보여주는 사랑가(Love Song)는 특히 한국여성의 아름다움과 극치를 맛보게 해주었고 부채춤은 많은 박수를 터뜨렸다.

빠르고 동적인 리듬에 어울린 장구춤(이미미와 4명)에 이어 1부 마지막으로 종교춤인 북춤, 연등춤, 심벌춤은 한국춤의 폭과 다양함을 보여주었고 특히 승무는 남성적 율동과 종교적 엄숙이 조화된 감동적인 춤이었다.

제2부 민속무 순서에서는 전라남도 진도의 주민들이 바다에 빠진 어부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는 의식을 춤으로 형상한 고푸리와 봉산탈춤 미얄할미과장, 선녀춤으로 이어졌다.

가장 동적이며 자유로운 몸짓을 보여준 군무는 마지막 순서인 농악. 31명 전원이 징과 날라리, 꽹과리, 북, 장구, 상고를 들고 나와 무대를 종횡무진 뛰어다니며보여준 농부의 축제였다.

특히 모자에 달린 긴 끄리를 움직여 추수기의 흥겨움을 화려한 선의 묘기에서는 박수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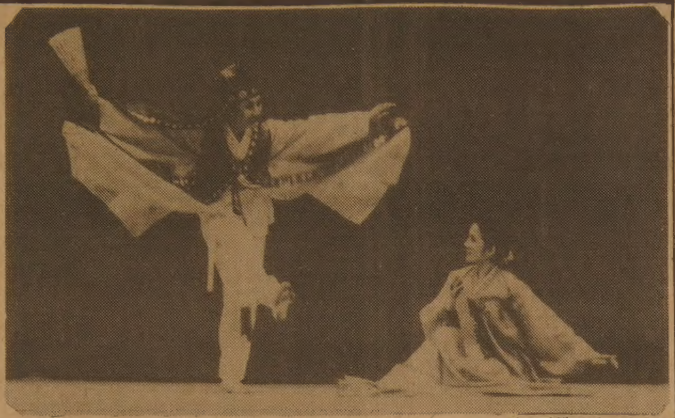
1천여 관중석을 가진 라이어슨 극장의 총관객수는 500명정도로 다소썰렁한 감을 주었다.

국립무용단 초청측인 그레이트·월드·아티스츠사는 7일의 공연을 크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립무용단은 9일 오타와의 샤토·로리에 호텔에서 공연한뒤 10일 귀국한다.

60명 정규단원중 이번 미주순회공연에서 32명만이 참가했다.

안무는 송범, 김백봉, 김천흥, 최현, 국수호. 반주는 이희영, 황병주, 박용호, 이전식, 이세환 제사시가 담당했다.



◆ 국수호씨와 이미옥씨의 사랑가(Love Song)

◆ 빠르고 동적인 장구춤

"노인들 소외하지 말라"

「드레」장관 한인의 날맞아 당부

◆제2회 한인의 날 기념식에 나온 드레장관

"노인들이 사회에서 소외당해서는 안된다"고 프랭크·드레 온타리오주 사회봉사성장관(Hon. Frank Drea, Minister of Community & Social Services)은 당부했다.

지난 2일 상오 토론토 서니부룩공원 축구장에서 열린 제2회 한인의 날 기념식 및 양로병원 건립기금마련 워커톤대회에 나온 드레장관은 축사에서 "연방정부가 선포한 한인의 날을 축하한다. 기념일 선포는 주정부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온타리오주 보수당정부는 한인의 날을 제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인순 한인회장은 "오늘을 맞아 불루어 한인상가에서 한인 최초의 퍼레이드를 갖고 5천년 전통을 소개, 자랑하고 싶었으나 일반 경제사정이 나빠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상훈 토론토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전두환대통령과 트루도수상의 교환방문으로 캐나다교포들의 지위향상을 위한 기반이 확고해졌다. 이런 상황하에서 어제 추석을 맞고 오늘 한인의 날을 맞은 우리 교포들은 고유의 미풍양속을 계속 살려나가자"고 말했다.

기념식은 홍중표(토론토경찰국 불평불만위원회 위원)씨의 드레장관 축사에 대한 감사 답사로 끝나고 이어 천중환 워커톤진행위원장의 워커톤실시에 관한 주의사항 설명이 있었다.

드레장관은 이날 "우리 사회는 점점 노인층이 많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방향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나이많은 사람들도 활동을 계속해서 사회에서 유리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해야한다. 한인전용 양로병원을 세우려는 한국인사회의 계획은 정부정책에 부합된 것이다. 따라는 오늘 여러분은 자랑스럽게 걸으시라. 의의 있는 오늘 행사는 이 사회에 한국적인 면모를 보여, 좋은 모범을 남기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인사회와 비교적 가까운 드레장관은 윌렴·데이비스수상의 후임자로 지목받는 온타리오정계 거물급이며, 그는 71년 정계투신이후 교도소장관, 소비자및 상업관계성장관을 지내면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트루도수상 대사관저 방문

(오타와=이태은지국장) 지난28일 트루도수상은 오타와 이규현대사관저에 들러한국식 저녁을 들면서 환담을 나누었다.

져스틴, 미셸,사사의 3아들을 동반한 트루도 수상은 이대사와 부처와 전대통령방문의 뒷얘기등을 나누다 이날밤 9시30분쯤 아이들이 학교때문에 일찍자야 한다면서 일어났다고 대사측근이 전했다.

트루도수상의 이대사관저방문은 이번이3번째로서 수상은 한국방문후 더욱 한국음식을 즐기여 각료들과도 한국음식 만찬회를 가진 바 있다.

앤젤스 2연승 4:2

내셔날리그는 비로 연기

(세인트루이스·안네하임) 애틀란타대 세인트·루이스의 내셔날리그 챔피온시리즈가 경기도중 쏟아진 폭우로 5회말에 중단, 연기되는 동안 아메리칸리그의 칼·앤젤스는 또 밀워키를 4:2로 잠재워 2연승, 월드시리즈 진출에 한발 다가섰다.

6일하오 홈구장에서 열린 아메리칸리그챔피온시리즈 2차전에서 앤젤스의 투수 브루스·키슨의 활약으로 아메리칸리그 최고의 타격을 자랑하는 밀워키타선을 잠재우고 금년봄새로 수입해온 외인부대들의 활약으로 4:2로 낙승했다.

양키즈출신으로 "미스터 옥터버(Mr. October)"라고 불리우는 레기·잭슨은 기대대로 3회초 센타를 넘는 싱글홈런을 날리고 피츠버그출신의 풀리의 안타, 필라델피아출신의 밥·분둥의 회생타로 4점을 올렸다.

밀워키의 2점은 행운의 2점짜리 런닝홈런(Inside-the-parkohomer)에 의해서다. 5회초 투아웃후 런너를 세컨에두고 밀워키의 몰리터는 센터앞 라이너성타구를 날려 린은 좇아와서 슈스트링(Shoestring) 볼을 잡으려했으나 이볼이 센터펜스앞까지 굴러 몰리터가 홈을 밟았다.

◉플레이오프전적과 대진표

6일 캘리포니아(2승)4:2밀워키

애틀랜타: 세인트·루이스(우천연기)

7일 세인트루이스: 애틀랜타(8:25PM)

8일 앤젤스:밀워키(3:15PM)

세인트·루이스:애틀랜타(8:25PM)

(CTV와 ABC로 중계됨)

만학 "형설의 공"

73세의 유병균옹 B.A

(런던 강상권지국장)70대의 만학으로 캐나다대학을 이수, B.A학위를 획득한 '노익장"면학도가 있다.

미국 디트로이트시와 인접한 [illegible] 윈저 파포 유병균(73세)옹은 지난 76년 윈저[illegible]학 입학, 지난 2일 동교 동양학과에서 B.A학위를 받은 유옹은 그동안 30과목을 이수했다.

1909년 평남 출생, 74년에 이민온 유옹은 한국시절 평양고보를 거쳐 세브란스의대 졸업, 케네디병원 근무, 인천시립병원장, 개인병원 경영, 경기도 용인군 공의를 역임한 지식인이다.

부인 전창민여사(68세)와의 사이에 8남매(손자·손녀 19명)를 두고 있으며, 장남 유범진씨는 현 윈저한인회장 이다.

◆유병균 씨(66세때)

유옹이 형설의 공을 쌓고 10월2일 학위식이 끝나자, 차남 유중진씨댁에서 친지들과 함께 졸업축하연을 가졌다.

社告

해방37년이 넘었으나 「독립관」이 없읍니다.

소름끼치는 36년간의 일본식민지 시대를 회상해서 조국은 독립기념관 건립모금운동을 벌이고 있읍니다.

일제의 설움을 같이 당했던 우리는 외국에 산다해서 이 운동을 외면하겠읍니까?

성금을 부탁드립니다.

금 액 : 다소불문
기 간 : 1982년 10월말까지
보낼곳 : 토론토한국일보사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전화 : (416)533-2361
※수표작성(Payable to…)은 The Korea Times앞.
※겉봉이나 수표에 「독립기념관」기금」이라고 쓸것.

◉폐사는 일정금액이 모이면 서울본사에 송금하며 기증자 명단은 토론토 한국일보및 서울 본지에 게재됩니다.

★모금상황(10월 7일 현재)

박경배 $100 박문배 $100

소 계 : $ $200 누 계 : $1,970

- 토론토 한국일보사 -

오늘의 예금금리			
한인신용조합			
기 간	일반정기예금	오투기정기예금	일반은행
30일	12%		11.5%
90일	12.5%		11.5%
180일	12.75%	12.75%	12.0%
365일	12.75%	12.75%	12.0%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토론토발행인 : 김영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은하 보석
관곰화상품 대리점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귀국선물
☎ : 534-9977.7791 620A Bloor St. W.

SBS Specialized Business Systems Limited
특별가격

매달 $50
또는
현금 할인
PANASONIC
SHARP
NCR
SWEDA
TEC
○ 중고기계 $150부터
○ 고장난 기계 수선도합니다. 2년 보증
PAPER -SERVICE- REPAIR
252-7377 안수일
822 THE QUEENS WAY
(퀸스웨이×이스링톤)

○사고시 보험 관계 일체 처리
○수리중 차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사고차량 TOWING SERVICE
○페인팅(OVEN BAKE FINISHES)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BUS. 275-3131, 3133
RES. 622-1171 정 창 헌

DeWitt
JEWELS LIMITED
이달의 SPECIAL
1/2 Carat Diamond Cluster Ring
Reg. 1,000.00
Spec. 749.95

Coin Jewelly
고급시계
이태리 수입 고급
귀금속 취급
Assistant Manager
지니·장(Mrs. 장)
TORONTO EATON CENTRE
3RD LEVEL (MAIN FLOOR)
(EATON & SIMPSON사이)
☎ 979-9920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0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문협 "합동시화전"

17명의 시작품 46편

시와 미술의 합동예술제 「82 문협 시화전」이 15일로 다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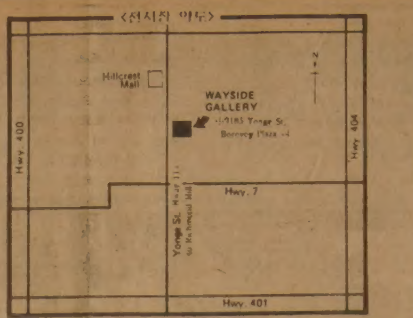
캐나다한국문인협회(회장 조정대)가 17명 회원의 시작품 46편에 14명 화가의 그림을 곁들여 10월15일(금)~22(금) 8일간 아침9시~하오6시 새로 오픈한 Wayside 화랑(9185 Yonge St. Borovoy Plaza내)에서 전시한다.

오픈 리셉션은 15일 하오7시 헌악4중주를 겸한 다과회로 열린다.(4중주출연자 김명덕·윤영철·독고제인·앤김)

이땅 최초로 대규모 합동전시회를 갖는 문협은 교민다수의 참관을 바라면서 "인생의 교향은 예술이요, 예술의 본령은 시와 미술과 음악이라 하였다. 여기 조출한 미와 정서의 합동잔치를 마련하였으니 자리를 함께 하시어 좋은 말씀 나누어 주시기 바란다"는 초대장 발부했다.

문협은 과거 4권의 합동작품집을 냈고, 5회에 걸친 "신춘문예"를 통해 20명(시 8, 단편 4, 동시 1, 수상 3, 평론 4)의 문사를 배출했으며, "문학의 밤"도 실시한 바 있다.

전시장은 하이웨이7과 Yonge(Hwy11)에서 북쪽(to Richmond Hill)에 있다.



노스·욕 시빅센터 확장

영구직 고용효과 26,000명

메트로·토론토사상 최대규모의 도시 건설사업의 하나가 될 노스·욕의 시빅·센터(관청·공장이 밀집한 지구) 확장사업계획이 4일 확정·공포됐다.

멜·라스트맨 노스·욕시장은 이 확장공사로 매년 4,500명의 영구직과 2,200명의 건설직을, 완공 후에는 26,000명의 영구직을 새로이 확보하게 되며, 2천2백만 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거두어 들이게 될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건축설계사 레이몬드·모리야마에 의해 설계된 이 확장사업의 건설은 램파트•엔트프라이스(Rampart Enterprises)가 맡게된다.

램파트건설회사는 노스·욕시에 새로운 중앙도서관, 지하주차장과 콤뮤니티·홀을 지어주는 대가로 종각이 딸린 23층짜리 오피스건물과 헬스·클럽과 볼룸이 딸린 객석300개의 호텔, 영화관및 의류·식품등 각종 가게를 건설할수 있는 허가를 부여받았다.

5백만달러가 소요될 새로운 도서관의 건설은 내년초 착공, 2년만에 완공되며, 기존도서관과 콤뮤니티·홀은 새로운 시설이 완공될때까지 계속 사용된다.

레스트랑 그라나다

이영규씨신장개업,

다년간 캐네디안식당과 한국식당을 경영해온 이영규씨는 최근 고급레스트랑및 Tavern인 그라나다(Granada)를 인수, 신장개업 했다.

920 영·스트릿에 위치한 그라나다는 캐네디안음식과 일식은 물론 한식(불고기, 갈비정식)을 전문으로 하고있다.

결 혼 축 하

신랑 : 조상민씨 삼남 덕근군
신부 : 박남진씨 장녀 현주양
때 : 182년10월16일(토) 하오12시30분
곳 : 메시아한인교회 (1580 McCowan Rd.)
주례 : 조창환목사

우방 도 정보사찰

청와대, 캐나다등 도청

〈워싱턴-뉴욕지사〉미국은 적대국뿐 아니라 한국, 캐나다등 우방국들도 정보사찰을 해 왔으며, 지난주에는 새로운 미국주재공관에 대한 사찰규정법을 통과시켜 국무성의 대외정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지난주 조용하게 의회를 통과한 이법은 주로 공산권외교사절단과 일부 제3국가 대표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새로 마련될 국무성내의 기구는 이들 사절단들이 고용하는 가정부 조리사 통역관들을 지정하고, 이들 사절단들을 특정호텔이나 아파트에 배치하여 다른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무성직원들은 이러한 제한조치는 미국외교관들을 사찰하는 국가의 대표들에게 선별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소식통들은 이법으로 인해 미국의 대간첩요원들의 외국인들에 대한 활동이 더욱 용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때를 맞추어 비공식으로 흘러나온 첩보활동에 대한 77년도 국회보고서는 또한 미국의 U-2첩보기 조종사였던 게리·파우어즈씨의 말을 인용, 소련뿐 아니라 다른 우방국들도 정보사찰을 했다고 밝혔다.

또 전 CIA요원이었던 빅터·마케티씨는 미국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한국에 대한 정보사찰을 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불안정한 우방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별기고〉

국경선을 넘는 한국인①

김 춘 회

편집자주: 다음글은 최근 문제시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밀입국하다 체포된 한국인들을 통역해준 김춘회씨의 글이다.

김여사는 한국서 이화여대 불어과 강사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몬트리얼에서 거주하며 공인번역 통역관으로 있다.

◆김춘회씨

"따르릉··· 따르릉···."

지난 8월31일 저녁5시 식사시간 30분전, 이곳 주부들이 그렇듯이 남편 퇴근시간에 맞춘 식사전 30분은 나에게는 무척이나 바쁜 시간이라, 전화벨소리가 반가울리 없다.

"헬로".

"헬로, 거기 Mrs.최 있읍니까?"

"네, 제가 바로 Mrs.최 인데요, 무슨 일인가요?"

"아, 그러세요? 우선 반갑습니다. 통역을 찾고 있어요. 여기는 블랙풀(Blackpool) 미국으로 가는 샴프랭(Champlain) 국경선 이민사무실인데요, 저는 리바트 감독관입니다. 오늘밤 꼭 당신이 필요해요. 즉시 와주셔야겠는데요. 급히 와주십시오. 차를 보내드리지요. 거절하시지 않지요. Mrs.최?"

"통역관" 직업화하기에는 아직도 몬트리얼지역의 한국 이민자수가 약하지만 이따금 통역청탁이 들어올때, 나는 곧 약자의 입장에 있는 한국이민 동포를 돕는다는 생각을 하게되고, 한편 잠시 살림을 떠나 외부의 바람을 쐬이고, 또 용돈도 번다는 일거양득의 이점 때문에 부르는 곳이 어디라도 대개는 선선히 답을 하고 나선다는 것이 통역관으로서의 솔직한 나의 고백이다.

따지고 보면, 정부에서 지급하는 통역비란 그리 후한 편은 아니지만 가정밖의 바람을 쐰다는 것이 나에게는 여간 청량제가 아니다. 그러나 저녁시간에 통역을 나오라니! 그것도 밀입국(캐나다에서 미국으로)을 시도하려다가 체포된 한국인들(5명)을 가깝지도 않은 국경선까지 가서 통역을 하여야 하니 무척 난처한 일이었다.

결국 리바트 감독관은 차를 보내왔고, 나는 부랴부랴 저녁상 차리고, 아이들에게 엄마가 없어도 8시면 잘 닦고 자라는등, 다음날 출근하는 남편에게도 기다리지 말고 주무시라는 등, 허겁지겁, 마치 쫓겨 달아나는 암탉꼴을 하고 차를 탔다.

집을 한번 떠나는 절차가 남달리 어려워도(어쩌다가 행차하는 까닭에) 통역이 술술 잘 진행되면 별 피곤을 느끼지 못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렇지 않았다.

똑같은 말의 반복, 힐난, 종용 등등··· 이민관의 피고진술서 작성에 필요한 R.C.M.P 직원들의 취조, 이민관의 취조, 허위진술을 막기위한 유도심문, 갈팡질팡 대답하는 피고의 진술···.

한밤중에도 불려가는 통역관
감정은 공평의 자세잃기도

드디어 통역관은 이성의 힘을 다하여 감정을 억누른다. 그러나 통역관의 음성이 고조할때 이미 이성은 힘을 잃는다. 말을 옮기는 기계같은 역할을 거부할때 통역인은 통역인으로서의 자세를 잃는 법이다.

"이민관, 나 통역관의 입장을 잠시 떠나서 한마디 해도 되겠어요?"

"그러세요. 말씀하세요."

(계 속)

社 說

감사의 생활

—추석을 한국인의 감사절로—

10월11일은 캐나다의 추수감사절이다. 감사절을 맞아 다시 한번 감사의 생활에 대해 생각해 본다는 것은 뜻있는 일인 줄 안다.

현대인의 삶의 특징은 감사를 잊었다는데 있다. 우리 이민자의 삶 속에도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다.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와 생활풍습이 다른 이역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즐거움이 못된다. 거기다가 생활고와 인종적인 차별까지 가미될때 감사보다는 저항감과 욕구불만이 우리의 삶을 메우게 된다.

우리가 감사의 생활을 되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답고 보람되며, 생기가 넘치는 삶을 되찾는 것이라 하겠다. 대표적차이는 감사는 인격의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른 「생각하는 존재」라는데 있다. 그래서 데칼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유명한 철학의 명제를 내걸었다.

이처럼 인간의 멋과 특징은 생각하고 사색하며 창조하는데 있다. 그러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인간의 인간다운 점이 감사하는데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 사람의 인격을 재어볼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감사의 자가 아닌가 생각한다.

사람들은 지난 인류역사를 통해 사색의 터 위에 철학과 과학의 집을 지어 왔으며, 반면에 감사의 터 위에 윤리와 종교의 집을 지어왔다. 감사는 보다 큰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된다. 예를 들어, 불평과 불만이 가득차서 짜증스럽게 일을 하면 모든 것이 뒤틀리게 된다. 그러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면 즐겁고, 모든일이 잘 풀리게 마련이다.

한 시인도 "별빛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자에겐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자에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마음의 빛을 주신다"고 말했다.

신약성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 병고침을 받은 열 문둥이 중에 오직 한명만 감사를 드렸다. 이것은 그만큼 감사의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더 큰 교훈은 그의 치병에 대한 감사가 그의 영혼마저 구원시켜준 일이다. 이처럼 감사가 있는 곳에 두겹의 축복이 뒤따른다. 즉 제1차적 감사가 있는 곳에 제2차적 감사가 뒤따르는 것이다.

감사는 내가 나된 것을 우연으로 돌리거나 "내 잘한 덕"으로 보지 않고, 부모와 스승의 덕으로 돌리며, 이웃과 사회의 은총으로 보려는 아름다운 마음이다. 그러므로 그에겐 교만이 있기보다 이웃과 사회에 대한 겸손한 섬김이 있을 뿐이다. 감사는 생에 대한 긍정을 뜻한다.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삶 속에서 어두운 면을 보지 않고, 밝은 면을 바라본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두운 면을 보고 살아가느냐? 밝은 면을 바라보고 사느냐? 부정적인 면을 보고 사느냐? 긍정적인 면을 보고 사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들어 놓게 된다.

창조적인 삶과 새 역사의 사건은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면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다.

감사는 삶에 대한 축제(Celebration)이다. 우리 이민자들의 삶 속에 축제와 환상(fantasy)이 메말라 가고 있다. 오늘의 감사절이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점점 형식화해 가는 것을 본다.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도 감사절은 단순히 헌금을 강조하기 위한 행사가 되고 있는 것을 본다. 감사절의 더 큰 의의는 돈에 있지 않고, 축제의 삶에 있다. 우리는 우리의 거칠고 삭막한 광야(wilderness)와 같은 삶 속에 새로운 열심과 기쁨을 불어 넣으며, 축제의 생기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감사절이 지닌 축제의 의미를 되살려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금년도 감사절을 맞이하여 특별히 다음 두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첫째로, 한국인이 된 것을 감사하고, 이민자가 된 것을 축제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며, 한국인이 된 것이 어떻게 자랑스러운 것이 되는가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특별히 한국인 이민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부끄럽고 초라한 나그네로서의 삶이 아니라, 새 문화와 새 가치관을 창조해 가기 위한 사명의 삶 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 이민자들은 두 문화 사이에서 갈등도 없지 않으나 그것을 즐기는 멋과 특권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더우기 독특한 사명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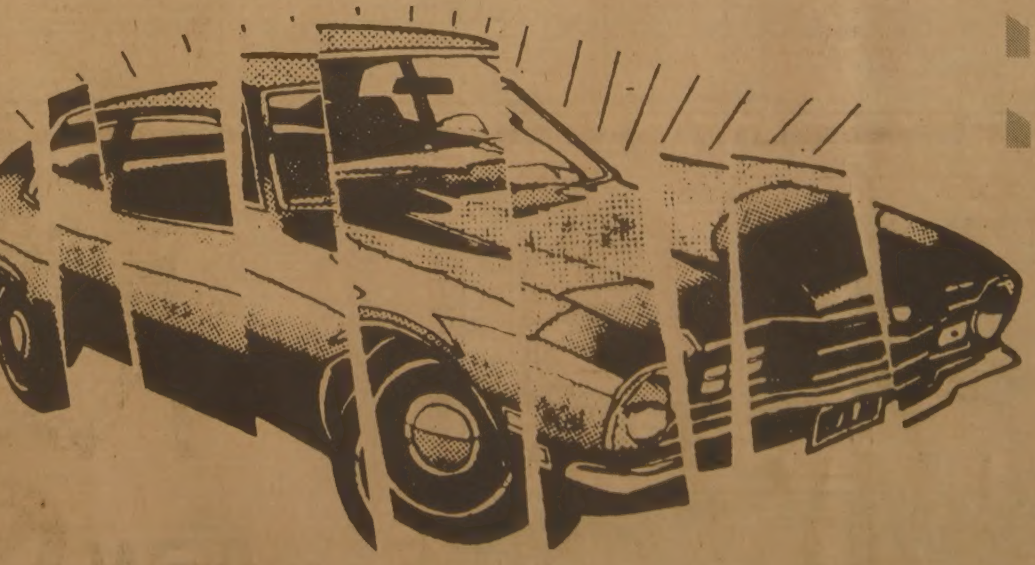
둘째로, 한국인의 감사절을 제정했으면 한다. 한국인이 된 것을 감사하고, 한국 이민자의 삶을 축제하려면 한국적인 감사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와같은 민족적 감사절이 되려면 민족의 문화를 긍정해 주고, 민족 공동체가 함께 삶을 축제할 수 있는 날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감사절은 각민족마다 그들의 역사적 경험과 계절에 맞게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11월에 지키는 미국의 감사절은 미국적인 배경을 갖고 있으며, 캐나다는 계절관계로 한달 먼저 지키고 있다. 여기에 비해 영국은 8월1일「Lammas day」를 추수감사절로 지켜오고 있으며, 독일 복음주의교회는 성 미카엘날(9월29일) 다음 첫주일을 감사절로 지키고 있으며, 스위스 개혁파교회는 9월에 추수감사절(Herbst-Communion)을 지키고 있다.

이 점에서 한국 이민사회와 이민교회의 추수감사절을 한국적인 뜻이 담긴 추석으로 정하여 지키는 것이 더욱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많을 줄 알지만 이것은 몇년전부터 한국교회에서 논란이 되여오고 있고, 한두 교회는 감사절의 토착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된다. 이민사회와 이민교회에서는 이러한 한국적 감사절이 더욱 요청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LISBON Auto Collision I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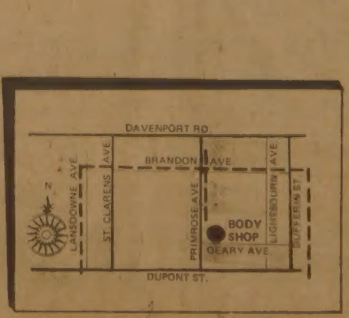
LISBON AUTO
COLLISION INC.



▶능숙한 기술
▶철저한 신용

* FIRST CLASS LICENCE BODY MAN
* FIRST CLASS LICENCE PAINTOR
* GUARANTEE WORKMANSHIP
* 사고후 보험처리
* OVEN BAKED FINSH
* COMPLETE BODY WORK
* TOWING SERVICE (531—9942)
* 수리중 차량대여

▶교민특별봉사
수리후 문제점 책임보증



35 PRIMROSE AVE.
TORONTO, ONT. M6H 3V1
B) 533-8507/8
(R) 439—6548 대표 이영두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 이주자를 위한 안내

토론토의 이모저모 ⑤

이튼, 대표적 쇼핑센타
개봉극장은 "유니버시티"
카나다, 미국프로스포츠와 밀착

●쇼핑지역

다운타운 중심가에 위치한 이튼·센타(Eaton Center)는 4개층에 3백개이상의 점포를 수용하고 있으며 토론토의 주요 관광명소이기도 하다. 윗층으로 올라갈수록 비싼 상품이 진열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할인가격으로 파는 전축판이나 알약같은 종류는 최하층에서, 순모제품이나 고급신발류는 3층에서, 예술품등 고가품은 일반적으로 Mews라고 불리어지는 4층에서 판매된다.

이튼·센타에는 쇼핑에서 오는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 25개 패스트·푸드(fast food)판매점, 22개 식품점과 21개의 레스토랑등이 고루 배치되어 있다.

이튼·센타에서 지하철을 타고 북쪽으로 3정거장만 가면 동서지하철과 만나는 블루어역에 닿는다. 블루어 지하철역을 나와 서쪽으로 조금만 걸으면 베이와 욕빌거리의 Creeds, Holt-Renfrew, Sportables, David's등 고급상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것을 볼것이다.

또한 이곳에는 Cafe Bellair, Bemelman's, Courtyard Cafe, October's, Plaza Roof등 토론토에서 일류로 꼽히는 바와 식당들이 있다. 헤이즐튼·레인즈(Hazelton Lanes)에도 고급상품 취급점들이 여러개 있으며 레이즐튼·카페 또한 유명하다.

이외에 퀸·스트릿·웨스트에는 젊은층을 위한 양장점과 레스토랑이, 마캄·스트릿에는 골동품상점과 레스토랑이 많으며 신선한 야채와 육류를 구입하려면 켄싱톤·마켓과 세인트·로렌스·마켓을 가면 된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 다운타운에 있다면 쇼핑을 하기 위해 비를 맞으며 옥외로 나올 필요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First Canadian Place, Commerce Court, T-D Center, Royal Bank Plaza, Sheraton Center등 대규모 사무실 임대용 빌딩은 지하에 쇼핑센타를 갖추고 있으며 이들 임대용 건물들은 대부분 지하상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켄싱톤시장 : 캐나다에서 가장 훌륭한 시장의 하나로 토론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영화관

개봉극장으로서 가장 알려진 곳은 유니버시티(University)극장으로 위치는 100 블로어·스트릿·웨스트.

토론토내의 영화관중에서 가장 큰 스크린(50피트×20피트)을 소유하고 있으며 스피커의 음질도 최상의 것으로 평이 나 있다.

고전적인 형태의 이 영화관은 관람석 1,382석으로 「크레오파트라」등 인기영화를 상영했을 때는 블로어·스트릿·웨스트 거리가 입장권을 사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곤 했다.

재상영 영화관으로는 록시(Roxy), 레뷰(Revue)와 브로어(Bloor)등이 있다.

●공연장

토론토내에 약40개의 연극및 오페라등의 공연장이 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오키프·센타(O'Keefe Center), 로얄·알렉산드라등 여러 곳이 있다.

관람석 3,200석의 오키프·센타는 22년의 역사를 지닌 역사깊은 공연장으로 프론트·스트릿과 영·스트릿에 위치하고 있으며 캐나다·오페라단(Canadian Opera Company)과 캐나다국립발레단의 정기공연장이기도 하다.

오키프·센타 바로옆 프론트·스트릿에 위치한 세인트·로렌스·센타는 일종의 콤뮤니티·센타로 토론토의 많은 군소예술단체의 공연장소이기도 하다.

토론토공연장중 진주라고 할수 있는 로열·알랙산드리아는 킹·스트릿·웨스트에 위치하고 있다. 로열·알랙산드리아와 이웃한 윈트·가든(Winter Garden)은 엘진극장(Elgin Theater)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1927년에 문을 닫은 이 극장은 머지않아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문을 열게 된다.

이외에도 최근에 새로운 연주홀로 문을 연 로이·톰슨·홀은 토론토·심포니의 정기공연장이다.

●프로스포츠

돈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 이것이 프로스포츠다. 북미에서 프로스포츠를 모르면 상식이 부족하게 되고 이곳의 생활이 부자유스러울지도 모른다.

캐나다하면 흔히들 미국의 프로스포츠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캐나다는 미국 프로스포츠와 아주 밀접해있다. 캐나다는 북미 4대 프로스포츠인 야구, 풋볼, 하키의 프로팀이 있고 아직 농구팀은 없다.

인근도시 몬트리얼과는 달리 토론토 프로스포츠팀의 성적은 최근까지 최하위를 맴돌아 토론토시민들에게 실망만 주었다.

그러나 82년에 들어서 토론토 프로스포츠는 전환점이 될것같다. 지난 3일 정규시즌을 끝낸 야구는 창단 6년만에 공동최하위를 차지했다. 아메리칸리그 동부조 최하위이나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클리브랜드와 동률로 메이저리그 프로야구단 26개팀중 공동 17위를 차지했다. 지난 5년간 최하위를 차지했던 블루제이스 내년성적은 기대해볼 만하다.

캐나다의 국기와·다름없는 아이스하키의 경우 NHL(National Hockey League) 50년 전통의 메이플·립스가 있으나 금년의 성적은 보잘것 없었다. 메이플·립스는 금년부터 진용을 젊은 선수로 바꾸며 장래를 내다보고 있다. 북미의 최고 인기 스포츠라면 역시 풋볼을 들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각각 독립리그를 가졌으나 미국의 최근 선수들의 파업으로 개점휴업상태이다. 이로인해 미국 풋볼팬들의 관심을 끌게 된 캐나다풋볼리그(CFL)에는 토론토팀으로 아고스가 있다. 지난 77년 이후 1번도 플레이 오프에 진출못한 아고스는 금년에는 맹활약이다. 리그후반의 7-8게임 남겨놓고 7승4패1무로 동부조 선두를 달리면서 이미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따놓고 있다.

다른 스포츠에 비하면 인기는 약하나 토론토 유일의 프로축구팀 블리쟈드는 맹활약, 금년에는 플레이오프에도 진출 8강대열에 끼었었다.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83>

金聖鍾작

얼굴없는 死者 ⑦

시체 포장했던 상자를 판 商人나타나…

즉시 피살자의 수배전단이 만들어졌다. 전단에는 피살자의 몽타지와 함께 나이 신장 혈액형 피살일자 등이 기재 되었다. 수만장의 전단이 전국에 배포되었다.

센터는 기다렸다. 이제나 저제나하고 좋은 소식이 오지나 않을까하고 기다렸다.

그러나 1주일이 지나도 좋은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센터에 암울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을 때 12월20일, 하나의 정보가 날아들었다.

강남쪽 신시가지의 어느 시장에서 라면 박스를 판 적이 있다는 한 상인을 찾아냈다는 보고였다. 센터의 수사진은 그쪽으로 몰려갔다.

장본인은 조그만 슈퍼 마켓을 경영하는 40대의 사내였다. 그의 말은 정확치가 않았지만 그런대로 믿어볼만 했다.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한 보름쯤 됐을 겁니다. 한 남자가 와서는 박스를 몇개 만 팔 수 없겠느냐고 하기에 팔았지요. 나이는 약 40쯤 되어 보이고 빼빼 마른 사람이 었읍니다. 막 노동하는 사람 같지는 않고 어디 직장에 나가는 사람 같았읍니다. 얼굴 생긴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옷은 위에 잠바를 걸쳤는데 그게 아마 검정 색이었는가 그랬을 겁니다.』

『그게 몇시쯤이었나요?』

『그러니까 그게 오후였을 겁니다. 확실한 시간은 잘 모르겠고 아마 점심때 쯤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을 보면 기억할 수 있겠읍니까?』

수퍼마킷 주인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글쎄, 자신할 수 없는데요. 눈여겨본 것이 아니라서요.』

『말씨는 어디 말씨를 썼나요?』

『아마 서울 말씨를 썼지요.』

『특별하거나 이상한 점은 없었읍니까?』

朴 男 그림

『글쎄요. 별로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는 「아마」 또는 「글쎄」 라는 말을 자주 썼다.

『뭣에 쓴다고 하면서 박스를 사가던가요?』

『글쎄요. 그런 말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사람한테 몇개를 팔았나요?』

『다섯 개 팔았읍니다.』

『틀림 없나요?』

『네, 틀림 없읍니다.』

『어떻게 그것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나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평소에도 박스를 자주 파시나요?』

『자주 판다기보다 단골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팔지 않는데 그날은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그랬는지 팔게된 거지요?』

『박스 찾는 사람들이 많나요?』

『네, 많은 편입니다.』

『어떤사람들이 박스를 찾나요?』

『시장에서 물건을 사가는 사람들, 이사가는 사람들, 장사꾼들… 뭐 일정하진 않지요.』

『그 사람 안경을 썼던가요?』

『아니요. 안경은 끼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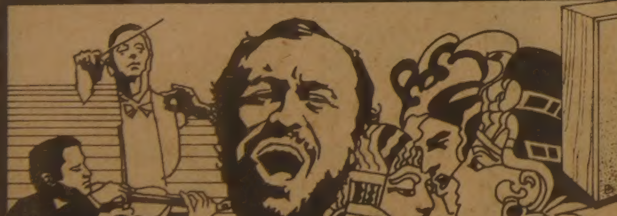
새로 개입한
서울식품 서부지점
★배추김치·총각김치·파김치·부추김치·오이소백이
※좋은 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 : 243-9544
1391 WESTON RD

훼밀리·닥터 (의사 왕운린)
(B) 968-1543 · (R) 363-9196
600 SHERBOURNE ST. #402
월~금 : 오전10시~오후7시
토 : 오전11시~오후3시

三國志

글·高羽榮·그림 476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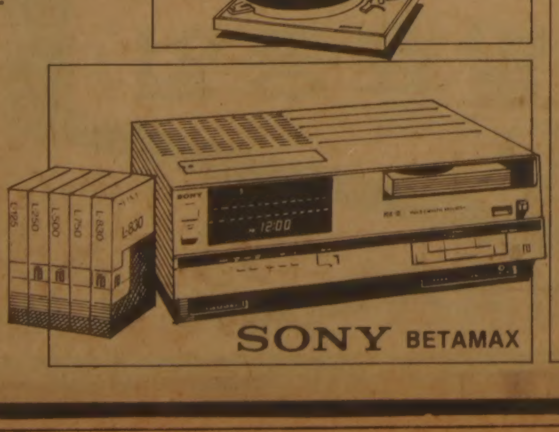
최고품질의 스테레오, 텔레비존 혹은 비디오를 구입하시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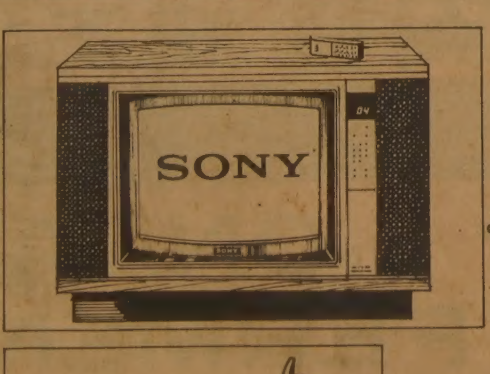
취급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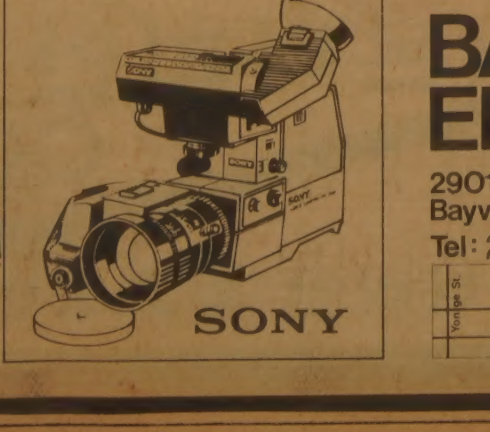
Stereo • Television • Video

취급메이커

Sony • Luxman • Pioneer • Sansui
J.V.C. • Toshiba • Panasonic
Sanyo • A.K.G. • Sennheis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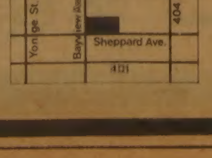






BAYVIEW ELECTRONICS

2901 Bayview Avenue, Willowdale, Ont.
Bayview Village Shopping Centre.
Tel: 224-1622 대표 김 항 섭



한국일보

"政治解禁·地自制실시 노력"

3黨대표 어제 國會본회의서 연설

民正 對話政治기풍 빨리造成
民韓 政治회복…選擧制개선을
국민 國債발행계획 取消해야

국회본회의는 5일하오 民正 民韓 국민등3黨이 각기 정치 경제 사회등 國政현안전반에 대한 기본입장을 밝히는 대표연설을 들었다. 국회는 6일 하오 本會議를 續開, 외교안보문제에대한對정부질문을 벌인다. 이날의 各黨대표 연설에서 與野는 地方自治制실시와 정치활동被규제자의 解禁, 各級선거법의 개정등 정치문제에 대해 贊反논쟁을 벌였고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를 가능한 풀고 民間주도로 해결책을 찾도록 촉구했다.

먼저 民正黨의 陳懿鍾정책위의장은『지방자치제의 실시와 政治解禁문제등 보다구체성을띤 정치적현안도 검토해야한다』고 전제,『地自制의 실시시기를 앞당기기위해 지금 우리가할일은 先行조건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조건의 현실적충족을위해 최선을 기울이는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政治解禁또한 일부 舊정치인에대한 정치활동금지조치는 그같은 조치가 불가피했던 불행한 환경의 産物이기때문에 舊시대적정치풍토가 지양되고 신뢰에입각한 대화의 정치기풍이 무르익어가도록 하는것이 先決과제』라고 밝혔다.

민주주의土着化를 위해 ▲1人長期執權배제 ▲새로운 政治人像확립과 정치풍토조성등을 강조한 陳의장은『새로운 정치풍토의 조성을 위해서는 不信풍조를 청산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與黨, 그리고 사회지도층에서 먼저 노력해야한다』면서 특히 惡性루머를 조작하거나 이에 현혹되는 性向은 지양되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또日本의역사교과서歪曲과 관련,『이문제를 계기로 燎原의 불길처럼타오르고 있는 克日운동을 새로운 역사창조의 차원으로 승화시켜나가야할것』이라고 강조 하고『이를위해 우리는 植民史觀뿐만아니라 階級史觀을 아울러 극복할수있는 보다 정교한 民族史觀을 조속히정립, 국민교육에 임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陳의장은 秋穀이나 夏穀의 수매에 있어서는 생산비를보상해준다는 대원칙을 수립해야할것이라고주장하고國債발행증가로인한 통화팽창, 이로인해 우려되는 물가앙등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民韓黨의 李泰九부총재는『정치회복은 역사의 흐름과 시대적명제로서 80년대 지향해야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전제한뒤 ▲언론자유의 보장 ▲국회기능의 정상적인 작용 ▲與野정당간의 균형있는 발전 ▲정치근대화를위한 各級선거제도의 개선 ▲지방자치의 실시등을 촉구했다.

그는 이와함께 정치被규제자들의 解禁문제를위시해 人權문제 學園의정상화문제 非민주적 法令의 改·廢문제 사회暗影의 除斥문제 勞使문제등은 정치회복을 위한 우리주변의 難題들이라면서 이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또『外米 도입사건을 위시해 宣寧사건, 張여인 금융의혹사건등 엄청난 일들이 발생했음에도 국회고유의 國政調査特委조차 구성하지 못했으며 免責특권을 가진의원들의 발언마저도 위축 또는 제한된게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국회가 헌법상 보장된 三權분립의 기능을 다 못한다면 이것은 곧정치환경의 분위기문제이며 정치부재의 소치』라고 말했다.

끝으로 국민당의 申皙均사무총장은 多黨制의 정착을위한 국회의원선거법의 개정, 국회활성화를위한 국회법의 개정과 정치발전特委의 구성을제의하고『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사회적 권위를보전하기위해서는 권력의 適正한配分과 부수적 책임을강화해야할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새시대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위한 이른바 舊시대에 대한 응징은 더이상 계속해서는 안된다』면서『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응하고 정치보복이없는 정치적자유를 同等히 享有할수있도록 政治報復을 없애야한다』고 주장했다.

申총장은 경제문제에 언급『83년 예산은 82년 實稅收수준으로 凍結하여 국가재정을 안정시켜야한다』고 강조한후『아울러 國債발행계획을 취소하고 각종 보조금、交付金、기금出捐金중 不要不急한 부분을 어떻게해야한다』고 말했다.

核武器생산 強行

레이건 蘇와 대등한 水準까지 增強

【콜럼버스(오하이오)聯合】 레이건대통령은 4일 미국의 核무기보유량이 소련의 수준과 대등해질때까지 무력증강계획을 중단하지 않을것이라고 다짐했다.

오는 11월의 의회및 州지사선거에 출마한 공화당후보들을 지원하기위해 콜럼버스를 방문한 레이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소련의 核보유량은 미국보다 월등하다고전제하고 현상태에서 美國의核무기동결을 주장하는것은 核전쟁의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쟁을 원해서가 아니라 유리한 입장에서 소련과군비감축협상을 갖기위해 군비를증강하는것이라고말했다.

그는 美·蘇 양 초강대국이 현재 중부 유럽 중거리미사일 감축협상과 장거리전략무기 감축협상등 두가지군축협상을벌이고있음을 지적하고『미국은 세계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위해 해야할일을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波, 자유勞組不法化 새勞動法案 마련

【바르샤바AP=聯合】 폴란드자유노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노동자들의 파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새로운 노동조합법초안내용이 4일 밝혀졌다.

폴란드계엄당국이 마련, 오는8일부터 이틀동안 열리는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이 새로운 노조법안은 폴란드자유노조를 포함, 이미 결성된 모든 노동조합의 법적효력을 상실케하는 한편 당국의 철저한 통제아래 새로운 노조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中·蘇 해빙會談 재개

3년만에 20年간의 不和해소協議

【北京AP UPI=聯合】 소련副外相 레오니드·일리체프(76)가 지난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中·蘇관계 정상회담이 결렬된이래 3년만에 처음으로 양국관계의 解氷을 모색하고 제반문제들을 협의키위한 공식회담을 갖기위해 4일 대표단을 이끌고 北京에 도착했다고 중공외무성이 발표했다.

중공외무성대변인은 이날 짤막한 발표문을 통해『양국간의 협의를 통한 결정에 따라 소련부외상 일리체프가 중공부외상 錢其琛과 양국관계에 관한 문제를 협의키위해 北京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일리체프와 錢其琛의 회담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일리체프는 지난주 자신이 오는10월중순이 지나서야 北京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었으나 이날 대표단을 이끌고 돌연 중공을 방문한 것으로 北京의 서방외교관들은 일리체프가 계획을 앞당겨 北京에 도착한것은 中·蘇양국이 20여년간 지속되어온 긴장관계완화를 열망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中共외무성은 앞서의 협의에 따라 양측이 일리체프와 錢其琛의 회담을 포함, 양국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北京의 서방외교소식통들은 일리체프와 錢이 5일부터 회담을 시작한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일리체프가 北京을 방문한 주요목적중의 하나는 소련의 아프간침공으로 지난79년말에 중단된 양국관계정상회담의 再開일정을 확정짓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西獨 中道정부出帆 콜首相, 組閣발표

【본AP=聯合】 헬무트·콜 새수상이 이끄는 西獨의中道·右翼정부가 4일 組閣을끝내고 출범했다.

이날 칼·카르스텐스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17人 基民·基社·自民연립내각은 예상됐던대로 콜수상의 基民黨(CDU)이 9명, 基社黨(CSU)과 自民黨(FDP)이 각각 4명씩 차지했다.

콜수상은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西獨경제부흥을 다짐하고 즉각 각료들의 봉급을 삭감, 긴축재정의 시범을 보였다. 콜수상은 새 내각이 모든 각료와 차관들의 봉급을 향후 26개월동안 5% 삭감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교정책에 언급, 전임자인 헬무트·슈미트前수상의 정책을 계속 추구할것이라면서 외교정책중엔 ▲佛獨협력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지원 ▲對美우호및 對유럽공동시장(EEC)관계강화등이 포함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밤 미테랑프랑스대통령과 만나기위해 프랑스를 전격방문, 佛·獨관계가 西獨외교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임명된 중요내각명단은 다음과 같다.

▲副首相겸外相 한스·디트리히·겐셔(自民黨당수·유임) ▲經濟相 오토·람스도르프(自民·유임) ▲財相 게르하르트·슈톨텐베르크(基民) ▲內相 프리드리히·치머만(基社) ▲國防相 만프레트·뵈르너(基民) ▲法相 한스·엥겔하르트(自民) ▲經濟協力相 위르겐·바른케(基社)

獨立기념관 내년着工

推進委 大幅개편 위원장에 安椿生씨

◇安椿生위원장

獨立紀念館推進委員會는 5일하오3시 한국의 집에서 첫이사회를 열고 위원장에 前光復會회장 安椿生씨를, 부위원장에 金相吉·崔昌圭씨를 선임하는등 이사30명과감사3명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갔다.

이날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올해안에 1백만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고 83년말에 공사를착공, 86년에 준공을 목표로하는 추진일정을 세웠으며 부지는 정부에서 무상제공토록 협조요청키로했다.

獨立紀念館은 국민誠金모금운동으로 추진하되 建造物의 조성과 展示物의 수집제작을 병행해서 추진키로 했으며 주요추진사항은 사계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에서 성안한후 공청회절차를거쳐 각계의견을 수렴하기로했다.

獨立紀念館의 立地는 6·25전란을 포함한 우리민족의 모든 國難克服史를 한자리에 전시할 수 있는 광역대지를 선정, 정면 중앙에 민족의독립과 발전의지를 포상하는기념비를 세우기로 했다. 그외 전시관·자료실·도서관·극장등을 갖춘 독립기념관, 민족의 기상을 선양하는 광장, 위락시설이 마련된 공원을조성키로했다.

새로 개편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安椿生(前光復회장) ◇부위원장=金相吉(광복회장) 崔昌圭(순국선열유족회장) ◇理事=金東里(예술원회장) 金容烋(청소년연맹총재) 金載浩(독립동지회장) 金俊燁(고대총장) 金濬(새마을운동중앙본부회장) 文胎申(한국신문협회회장) 朴淇宗(조계종원로회의의장) 朴鍾國(한국문화재보호협회이사장) 孫仁實(여성단체협의회장) 申秉鉉(한국무역협회회장) 申榮均(예총회장) 劉錫鉉(광복회고문) 柳琦諄(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柳達永(전국농민기술자협회총재) 柳炯鎭(대한교련회장) 尹勳煥(농협중앙회장) 李永福(천도교교령) 李元洪(한국방송협회회장) 李載瑞(성균관관장) 張聰明(在日거류민단단장) 全昌信(3·1여성동지회회장) 鄭壽昌(대한상공회의소회장) 鄭周永(전국경제인연합회장) 趙擎韓(독립유공자협회장) 千寬宇(민족통일중앙협의회장) 韓景職(영락교회원로목사) 許雄(서울大교수) ◇監事=金國柱(광복군동지회장) 柳建浩(한국신문편집인협회장) 李弘卿(J·C회장)

秋穀수매값 引上 7%線

올해도 6백만섬 계획

정부는 올추곡수매 가격을 지난해보다 최고 7%수준에서 인상하고 수매량도 평년작 수준인 6백만섬으로 책정할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올해 추곡수매가인상률은 지난해의 인상률14%의 절반수준에 머물러 지난70년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 될것같다.

5일 관계당국에따르면 추곡수매가인상폭은 도매물가에 連動시킨다는 방침에따라 올 도매물가상승 예상폭인 5%선으로 계획했으나 생산농민은 물론 與黨측의견을고려, 7%까지 인상폭을 높인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民正黨의 黨論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올해의물가가 계속 안정되어왔으므로 정부의 인상案을 크게 넘지는 않을것으로 보인다.

수매량은 현재 정부보유미가 1천60만섬에 달해 예년의 3백~5백만섬수준을 크게넘고있어 수매미의 보관은 물론 재고미에 양특자금이잠겨 추가적인 韓銀借入에 의존하지 않는한 수매량을 늘릴수 없는 형편이어서 수매량도 지난해의 6백만섬수준을 넘기기는거의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가올해 추곡수매가격(80kg들이 2등품기준)을 7%인상할경우 지난해의 가마당 5만2천1백60원에서 3천5백원이 오른 5만5천7백원선이되고 6백만섬을 수매할경우 약 6천5백억원의 수매자금이 풀려나가게된다.

椎名의「韓·日秘史」<3>

文世光 저격에 衝擊

74년8월15일, 외무성은 서울주재일본대사관으로부터 날아온 긴급연락을받고 발칵 뒤집혔다.

「朴正熙대통령저격」「대통령은 무사하나 영부인이중상」「범인은 일본인같다」—보고를 받은 다나까(田中)수상등 정부수뇌는 경악을 금치 못했고 숨이 막힐듯한 상황속에서 상보를 초조히 기다렸다.

외무성이 놀란것은 朴대통령저격 그자체보다도 범인이 일본인 같다는 그 한마디였다.

오후가 되자 TV와 라디오는 일제히 한국사건을 톱뉴스로 내보냈다. 서울 대사관에서도 잇달은 긴급보고가 외무성으로 밀려들었다.

범인이 일본인이 아니고 文世光이란 재일 한국인이란 것을 안것은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뒤였다.

文世光이 범인이라고 판명된 순간 일본 외무성을 짓눌렀던 얼어붙었던 긴장감이 한꺼번에 풀렸다.

외무성 北東아시아과장은『일본정부에는 법률적 도의적으로 朴대통령저격사건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성급히 논평을 해버렸다. 긴장이 갑자기 풀린데서 나온 성급한 논평이었다. 이논평은 그뒤 한국정부와 국민을 격앙시켜 걷잡을수 없는 분규의씨앗이 됐다.

사건 하루뒤인 16일 일본정부는 또다시 심각한충격으로 휘청거렸다. 文世光이 사용한 권총은 7월18일 오오사까府警의 경찰관으로부터 훔친 두자루의 권총중 한자루였고 나머지 한자루가 文의 집에서 발견된것이다.

일본경찰이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휘말려든 것이다. 일본정부는 16일 다나까수상, 기무라(木村)외상, 니까이도(二階堂)관방장관이 협의, 다나까수상이 직접 영부인의 국민장에 참석할 것을 결정했다. 선례가 없는 것이었다.

대통령저격사건 전날인 8월14일 金東祚외무장관은 우시로꾸(後宮)주한일본대사를 불러 일본수사당국이 金大中납치사건의 용의자로 단정한 金東雲前주일대사관 1등서기관은 金大中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수사본부를 해체한다고 통고했다. 기무라외상은 이에 대해『일본국민의 감정을 거슬리는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朴대통령 저격미수사건은 金大中사건으로 몰렸던 한국정부가 공세로 나오는 계기가 됐다.

8월19일 영부인의 국민장은 끝났다.

이례적인 다나까수상의 조문방한에도 불구하고 反日감정은 가라앉지않고 더욱 거세졌다. 9월에 들어서서 反日운동은 격화하여 6일에는 일본대사관 난입과 일장기가 불태워졌다.

다나까수상은 이 사건을 수습키위해 시이나부총재를 정부특사자격으로 한국에 파견했다.

한국정부는 조총련의 활동규제를 요청했으나 일본정부측은 자유주의국가로서 공산당의 활동까지 합법화하고있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범행활동이 없는한 단속할수없다고 맞섰다.

시이나특사는『귀국정부의 전복을 기도하는 테러활동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그단속에 진력하겠다』는 내용의 다나까수상친서를 휴대하고한국을방문했다.

시이나특사는 朴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하면서 보충설명으로『이번의 저격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또다시 일어나지않도록 일본정부는 강력한 수사체제를 편성, 전력을 다하여 수사하겠다. 조총련의 활동에대해 귀국정부가 문제삼고있는것은 잘알고 있으나 이제까지의 수사결과, 이사건과 조총련이 직접 관련됐다고는 밝혀지지 않았다. 조총련에 대해서는 法에 의거, 조사대상단체로서 엄격히감시하고있고 앞으로도 조사활동을 계속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전복을 기도하는 폭력행위와 테러등의 준비행위에 대해서는 사전단속을통해 방지와 억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시이나메모이다.

이 시이나메모로 파국으로 달려가던 한일관계가 가까스로 수습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시이나메모는그뒤에제대로지켜지지 않았다. 시이나가朴대통령과 회담한 9월19일 한밤중에 돌연 朴대통령이 發熱, 심한 설사로 의사가 응급조치를 취하고 金鍾泌총리가 놀라서 靑瓦臺를방문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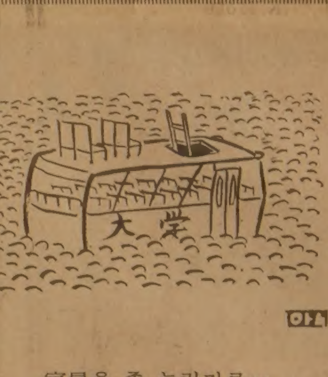
나중에 안일이지만 이날밤 朴대통령은 오랜만에 술을 마셨다.

朴대통령은 호주가였다. 그는 언제나 막걸리를 즐겨 마셨다. 시이나 특사의 訪韓에 의해 한일관계가 파국을 모면하자 朴대통령은 8월15일이후 한잔도 입에 대지않았던 막걸리를 그날밤 열잔이나 넘게마셨다.

취약한 위장이 성할리가 없었다. 이것이 그날밤 朴대통령의 돌연한 發熱과설사소동의 전말이었다는 것을 3개월후 朴대통령의입에서 처음으로 들을수있었다. 시이나는 한일친선협회회장자격으로 77년11월22일 4박5일의 일정으로 방한했다. 시이나의 마지막 외유였다. 【東京=宋孝彬특파원】 【끝】

反日감정 치솟아 더욱 당황
田中 葬禮참석

社會漫評



定員을 좀 늘리기로…

地平線

산과 들에 단풍이 금수처럼 곱게 물들어 가고있는 가운데 5일로 자연보호선포 4돌을 맞았다. 예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처에서 관이 주도하는 기념식을 갖고 유공자 1백50명에게 훈장과 포상의 수여가 있었으며 또 각 지역단위로 산과 강의 쓰레기줍기운동도 벌여서 이날의 뜻을 되새겼다. ▼김총리는 담화를 통해서 예로부터 자랑인 푸른 하늘, 맑은 강물, 수려한 산야를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주변을 깨끗이 가꾸는 습성을 기르고 온 국토에 꽃과 나무를 심으며 동식물등 희귀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각종 공해요인을 없애자고 강조했다. ▼이렇듯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고자 하는 노력은 정부나 민간에 의해서 근래 눈에 보이게 두드러져가고 있다. 자연보호헌장의 선포도 그와같은 사회적인 관심의 증좌라 할수가 있다. 그러나 실효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민간의 주도와 참여가 아쉽다. ▼외국의 경우처럼 아름다운 자연과 귀중한 거리를 개발자들이 몰아 오는 파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공동으로 토지나 건물을 매수하여 영구보존하는 이른바 내셔널·트러스트제도의 도입도 이 시점에서는 생각해 봄직 하다. 이 국민신탁제도는 영국에서 가장 발달한 것이다. ▼영국서는 1907년에 「사적명승 또는 자연경관을 위한 내셔널·트러스트」라는 법이 제정되었다. 그 법에 따른 조직이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남에게 함부로 양도하지 못한다고 선언할수 있고 그렇게 되면 소유주라도 마음대로 처분할수가 없다. ▼그와 반대로 이와같은 재산을 기증했을 경우에는 원소유주가 계속 사용이 가능하고 또 상속세도 물지않게 하는등 상당한 특전을 줌으로써 반발이나 불편을 중화시킬수 있는 조치도 함께 취하고 있다. 현재 이렇게 해서 확보된 영국의 경승지는 18만2천ha, 해안선은 6백50km, 역사적인 건축물은 약2백채, 유서깊은 정원도 근1백개소를 헤아리는 실정이다. ▼이런식으로 국가 예산의 별다른 지원없이 오로지 시민들 서로의 노력과 출연으로 보호받고 있는 영국의 사적 명승지나 자연경관은 날로 늘어가고 있다. 또 이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도 불어나고 있다. 우리도 알찬 자연보호를 위한 내셔널·트러스트제도의 도입을 생각할 시기가 아닌가 한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야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식품 제조업체 탄생〉

ONTARIAN FERMENTARON (온타리안발효공업) CO.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온타리안 발효공업에서 최신 기술과 오랜 경험으로 식품 전문가에 의한 한국종합식품및 일부 일본식품을 비롯 하여 다수 서양식품 생산을 앞두고 우선 지면을 통해 인사드립니다.

더욱 성원해 주시옵고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읍니다.

최재경 올림

품 목: 21종류

※새로 각종 Soup을 개발했읍니다.

콩나물(순자연성장에 의한 것임 화학약품이 전혀 포함 안돼있음)
두부(일체 간수가 없는 두부 및 간수가 있는 두부) 2종류
흰떡
한국, 일본 장류
국수류 일체(독특한 구수한 맛을 자랑)
냉면, 진짜 육수
짜장국수, 짜장 Soup
가마보꾸
만두종류
생선 쏘세지
식물성 단백질 쏘세지
우동, 우동 Soup
픽클류 등등.

온타리안 발효공업회사 대표 최재경

內憂外患… 이스라엘

難民村학살 여파… 베긴·샤론 궁지에

軍部도 두동강 分裂

在美유태人도 등 돌릴기세

◇反샤론 캠페인을 이끄는 에이탄 군참모총장。

◇팔레스타인 난민학살 책임을전가, 군부로부터 강력한 반발과 사임 압력을 받고있는 샤론이스라엘국방상。

베이루트의 팔레스타인 난민촌 사브라와 샤틸라에서 저질러진 난민학살의 잔학성은 드디어 이스라엘 생존발판을 흔들어 놓기에 이르렀다.

미국을 이스라엘의 확고한 맹방으로 만든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在美유태인들이 그들의 정신적 고향 이스라엘에 등을 돌리려하고 있다.

在美 유태인들의 선난규탄에 『그들이 없어도 우리는 생존할수 있다』고 베긴 이스라엘수상은 큰소리치긴 했으나 在美유태인들은 이스라엘 生命의 젖줄이다. 돈도 무기도 그들에게서 나온다.

사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스라엘 軍部가 균열되고있다.

사태가 이지경에 이르러서는 아무리 학살사건과 무관을 주장해도 베긴과 샤론의 정치생명은 時限附가 아닐수 없다.

『이스라엘지도자들이 학살사건을 모른다고 말해도 되는 일인가. 난민을 향해 총을 쏘고 칼을 휘두른 사람들이 그들의행위를 그저 명령에 따랐을뿐이라고 말해도 되는일인가. 오! 하느님, 상상도 할수없는 일입니다』

在美 유태인들은 이렇게 흥분하고있다. 수천난민을 학살한 잔학성은 염라없이 나치독일의 소행과 같으며 결코 정당화될수없는 일이라고 격분하고 있다.

4백만 在美유태인들은 이스라엘國이 탄생한후 처음 그들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냉정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분위기는 가정에서, 또 유태교 사원에서 편배해져 가고 있다.

하버드대학 사회학교수 대니얼·벨은 『유태인들의 분노가 믿기어려울 만큼 크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은 분명히 在美유태인의 對이스라엘 관계가 전환점에 선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한다.

베긴과 샤론에 대한 不信과 규탄은 이스라엘軍部를 분열시켜 놓았다. 대위급이상 장교 2백60여명이 레바논전쟁의 책임을 지고 샤론국방상이 사임할것을 요구한 請願書에서명했다.

텔아비브의 예리오스·아로노스紙는 이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것은 『샤론과 그가 지휘하는 軍隊사이에 일어난 신뢰의 위기』라고 평했다.

국방성에서는 즉각 『이런 보도는 샤론의 國內政敵과 외세가 손잡고 펼치는 샤론에 대한 심리전의 일환이며 샤론과 그의 참모들간에는 여전히 상홍신뢰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지휘체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부인 성명을 냈다.

국방성은 이날 성명에서 『샤론이 학살사건의 진행을 알고 있었으며 그런 샤론을 군고위장교들이 면전에서 사기꾼이라고 힐난했다』는 뉴스위크誌 보도도 날조된 것이라고 아울러 부인했다.

그러나 레바논 침공작전이 시작된 후 작전에 동원된 군대안에 이스라엘군의 비인도적 작전에대한 불만이 있었던것은 공공연한사실이다. 동원에서 해제된 예비군들이 反정부 대중집회를 주도하고있는 사실은 그것을 웅변으로 증명해주고있다.

이스라엘 예비군들은 전시동원에서 풀리고나면 그들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다. 反戰운동을 주도하는 인사들속에 많은 예비군들이 맹활약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역과 예비군을 통틀어 이스라엘 군대안에는 「反戰을 외치는 장병」과 「동원거부 장병」의 두 그룹이 自生하고있다. 反戰을 외치는 그룹에는 요세프·부르그 內務相의 아들 아브라함·부르그도 끼어있다.

『동원을 거부하는 장병그룹」은 이번레바논전쟁에서 1천여명의 예비군이 출전을 거부하는 결의에 서명했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중 3명은 지금 軍형무소에 수감돼 있다.

샤론의 사임請願書에 군장교들이 서명한사태는 이스라엘 군부내에 잠재한불만, 反戰무드가 행동으로 표출된것으로풀이 해볼수있다. 이것은 베긴정부의 붕괴를 가져올 최후의일격이 될수있는 것이며 군대가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있다는 것은 레바논전쟁의 후유증이 베긴과 샤론이 해결할수있는 능력의 한계를 벗어났음을 말해주고있다.

샤론과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라파엘·에이탄 중장은 불만을 가진 장병들을 강경방침으로 다스렸다.

샤론의 군사작전에 불만을 갖고 휴가를 요청했던 군사참모학교교장 암란·미쯔나 장군에게 그는 『아예 군대를 떠나든지 그게 싫으면 명령에 따라 일부를 수행하라』고 명령했다.

32살의 젊은 나이로 레바논 침공작전선봉을 섰던 탱크부대사령관 엘리·제바대령은 PLO게릴라의 최후거점 西베이루트 진입명령을 거부하겠다는 양심선언때문에 면직되고말았다.

군대의 불만은 엄격한규율에도 불구, 확대일로에있다. 공정대사령관은 샤론을 만난자리에서『당신은 군부에서 신뢰를 잃었으니 사임하는것이 마땅하다』고 말한 것으로보도되고있다.

열띤 世界여론에 쫓겨

生存權 자체까지도 危機에

야당에서 쏟아지는 학살사건의 비난을 막아볼 속셈으로 『76년에 발생한 베이루트의 엘자터 난민촌 학살사건때도 이스라엘장교들은 사건현장가까이에 있었다』는 발언으로 샤론은 더욱 궁지에 몰렸다.

이 발언은 말할것없이 당시에 집권당이었으면서 지금 야당인 노동당을 칠시킬 의도에서 나왔다.

이 말은 결국 야당의 반발을 더욱 거세게해놓았음은 물론 군부의 감정을 건드려 그에대한 不信만 더해놓았다.

어쨌든 이스라엘생존의 발판을 흔들어놓은 在美유태인과 군부의 반란은 베긴과 샤론의 몰락을 재촉하고있는 셈이다.

【崔相鎬기자】

海外토픽

◇繁華街서 옷갈아입기 쇼

英國의 모델 글로리아양(21)이 런던의 번화가에서 많은 男性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불우어린이 慈善기금 마련을 위해 옷갈아입기 쇼를 벌이고있다。30차례의 옷을 갈아입은 글로리아양은 3백파운드를 募金했다고。【런던AP航空便=聯合】

낸시, 책販促에 바빠

★레이건은 선거지원에 몰두

레이건美대통령이 11월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원들의 승리를 위해 선거운동 지원활동을 하고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대통령부인인 낸시여사는 전국적인 「수양조부모계획」에관한 그녀의 저서의 판촉활동으로 바쁜일정을 보내게 될것 같다고.

낸시여사는 오는 10월19일 백악관에서 6백명의 수양조부모와 어린이들을 소풍에 초대하고 프랭크·시내트러에게 레코드 취입을 부탁하는 등 그녀의 신간「어린이사랑」의 판촉을 위해 여러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나이많은 노인네들이 불우아동들을 돌보는 수양조부모계획에 지난 15년동안 관심을 가져온 낸시여사는 신간서적의 인세수입금을 모두 이 계획에 지원할 예정인데 수양조부모들은 불우아동들을 1주에 20시간씩 돌보며 시간당 2달러의 돈을 받고 있다。【워싱턴=AP】

比여성 濠남성熱愛

★펜팔結婚후 이혼제기안해

작년 한해동안 필리핀여성들이 펜팔로 사귀던 濠洲남성들과 결혼한 건수가 약 1천5백건에 달했으며 올해도 이와 비슷한 숫자가 될것같다고 필리핀주재 호주대사관이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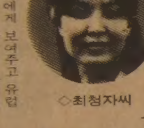
대사관측은 이같이 호주남성을 남편으로 맞아들인 필리핀여성들은 결국 남편을따라 호주로 건너가지만 남편의 모진 학대를 받는등 반드시 행복한 결혼생활만을 영위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

그런데 호주남성들이 필리핀여성들을 결혼상대자로 선호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호주여성들의 요구에의한 이혼율이 높은데 반해 필리핀여성들은 먼저 이혼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마닐라=AP】

英서익힌 유럽 現代무용 한국에 普及 계기됐으면…

歸國 발표회갖는 최청자교수

唱과 國樂器리듬까지 동원 大學 무용과弟子들과 함께



◇최청자씨

최청자 현대무용 귀국발표회가 7일 하오4시·7시 세종문화회관소강당에서 열린다. 세종대학무용과·동아일보사·영국문화원후원.

80~82년 영국런던대학교 라반스미·칼리지 라반센터대학원, 런던현대무용학교를 수료하고 귀국한이후 처음 갖는개인발표회.

「지난 2년간 영국에서 땀흘리며 익힌 현대무용을 선후배에게 보여주고 유럽현대무용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보급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것이 발표회를마련한 동기이다。

레퍼터리는 우리 삶가까이에서 보고 느낀것을 안무한 「국시」「무언가 잃어버린것」「흔구」「갈증」등。

「국시」는 기독교신자인 그의 神에대한 경외로움을 표현한 것이고 「무언가 잃어버린것」은 이일호씨(조각가)조각이 무대에 등장하는 이색적인 것으로 81년 7월 런던 라반극장에서 골드스미드칼리지 발무용센터대학원 과정 졸업합격작품으로 공연되었던 것.

이날 발표작품중 특색있는것은 극작가 車凡錫씨가 글을 쓰고 國唱 金素姬씨가 가唱, 사물놀이가 음악, 최청자씨가 안무한「갈증」。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몸마름」을 무용화 한것으로 절제된 언어위에 唱과 국악기의 리듬과 현대무용이 어우러지는 독특한 무대가 될것 같다고。

최청자씨는 수도여자사범대학에서 발레,同대학원에서 현대무용을 전공했으며 미국 머스·커닝햄 앤 빈·앨리에게 현대무용을 사사했고 독일「이치퍼회의」「하와이국제예술제」에서 현대무용을 공연했다。현재 세종대학 무용과 교수로 있으며 이번 발표회에는 제자들이 함께 출연한다。

세계言論人회의 開幕

1百여國家 270여명 참가

제5차 세계언론인회의가 5일 상오 서울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세계 1백여국 2백70여명의 언론인·학자가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이날 개막식은 회의주최자인 뉴스월드커뮤니케이션사 朴普熙씨의 개회사, 통일교교주 文鮮明씨의 개회연설에 이어 더글러스·맥아더2세 대사의 기조연설등이 있었다。

세계언론인회의는 사회의 제문제와 언론의책임을 공동주제로 8일까지 계속되며 외국참가자들은 9~11일 비무장지대와 慶州등지를 관광하게된다。

靑瓦臺 비서실장 咸秉春씨 比방문

咸秉春 대통령 비서실장은 필리핀을 방문하기위해 5일 하오出國했다。

咸실장은 필리핀 방문중 양국고위당국자들을 만나 양국간의 공동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금주말께 귀국할 예정이다。

韓日 閣僚회의 내년에나 開催

日외무성 결론

【東京=聯】일본외무성은 금년안으로는 韓日간의 현안인 經協문제의 조속 재개나 정기각료회의의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최종적으로 내린것으로 알려졌다。

외무성의 한소식통은 5일 한국의 정기국회개최, 일본의 自民黨총재선거, 임시국회개최예정등 양국의 정치일정을 감안할때 경협교섭은물론 정기각료회의의 연내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이들회의를 내년봄이후로 연기할수밖에 없는데 일본정부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533-2361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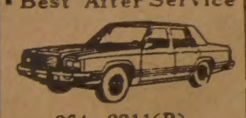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AVENUE. 벤트럭. USED-CAR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ngnment Certificate 소유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Best Price
▪ Best After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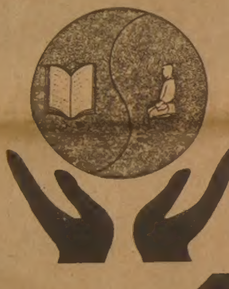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 의 문

지식을 쌓고 무도를 익힘은 예로부터 자기를 수양하는 길입니다.



장학기금을 위한

토요일 저녁

● 때 : 10월23일 오후 7 시
● 곳 : 뉴 서울

■ 디너
■ 춤과 여흥
■ 태권도 시범 및 이야기들 (태권도의 오늘과 문제점)

특별출연
고전무용가
김미영 선생
(오고무)

회비 : $25.00
티켓구입처 : 이경태태권도장
☎ : 483-4002. 759-2500

주최 : 비영리사단법인
완인태권무도회

● 백학같이 우아한 미 !

Bridal Fashion

웨딩드레스전문

1503 BAYVIWE AVE. TORONTO
B) 485-9419, R) 889-3544 Mrs.원

"신부 드레스, 돌러리, 칵텔 드레스를 대여 및 판매. 각종 꽃 어렌지, 청첩장을 모두 구비하고 있읍니다."

순복음카나다교회창립 4 주년

기 념 부 흥 성 회

강사 : 김남수 목사
■ 순복음뉴욕교회 담임

※금번 저희 교회에서는 창립 4 주년을 맞이하여 그리스도 교회의 참된 모습과 책임을 새롭게 깨닫고, 성령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공급받아 주님을 더욱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로 성장하기 위하여 기념잔치를 마련하였읍니다. 강사 로는 2000여 성도님을 모시고 뉴욕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섬기시는 귀한 목사님을 모셨아오니, 부디들 오시어 주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시길 비옵니다.

조이식 목사와 성도일동이 초대합니다.

주제 :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일 시 : 1982년10월17일(일) 저녁7시
18일(월) : 새벽6시 저녁7시30분
19일(화) : 새벽6시 저녁7시30분
20일(수) : 새벽6시

장 소 : 순복음카나다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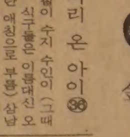
1030 Albion Rd., Rexdale
☎ : 교회 743-4813 목사관 745-3884

⊙성회장소 약도

•Islington과 Albion이 만나는 곳에서 우편으로 50m지점에 교회가 위치 하였음.
•한국식품서부대리점 바로옆.

건강食品

비타민C Ⅱ



免疫能力 높여주고 傷處회복에 큰효과

최근 연구가 활발한 성인병과 동맥경화·암의 발생요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과산화지질과도 비타민C는 관계가 깊다고 한다.

과산화지질은 불포화지방산이 산화해서 만들어지는데 비타민C는 그 산화를 방지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안구(眼球)에는 비타민C가 많이 들어 있는데, 그것은 안구내에 과산화물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고 있는것이다.

비타민C가 부족해서 안구내에 과산화물이 증가하면 백내장이나 녹내장이 생기기 쉬운 사실을 보더라도 비타민C의 항산화작용의 중요성을 알수있다.

암의 연구로 최근 화제가 되고있는 인터페론이 있다. 이것은 원래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하는 물질이다. 비타민C는 이 인터페론이 체내에서 만들어지게 도와주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바이러스병에 의한 암에 대한 효과를 생각할수 있다. 인터페론은 고가이고 또 몇가지 문제가 있어 일반인이 손쉽게 이용할 수도 없다. 값싸게 얻을수 있는 비타민C를 섭취함으로써 체내에 자연스럽게 인터페론을 만들수 있게 하는것이 현명한 것이다.

비타민C는 인간의 면역능력을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면역능력이란 생물체가 원래 가지고있는 질병에대한 방위력을 말하는데, 사람에게 면역능이 없다면 암의 발생률은 1백~1천배로 증가하리라고 한다.

비타민C는 암의 예방을 위해 면역능을 높여주므로 폴링박사는 추천하고 있는것이다.

비타민C는 콜라겐(세포와 세포사이를 잇는 물질) 합성에도 긴요하게 쓰이기때문에 수술에의한 상처 회복에도 효과가 크다고 한다.

현대인에게 비타민C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또하나의 근거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비타민C가 대량 소비된다는 사실 때문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에 견디기 위해 부신(副腎)이 작용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타민C를 많이 소모하게 된다.

체내에서 비타민C를 만들수 있는 쥐(사람과 원숭이는 비타민C를 만들지 못한)는 사람의 체중으로 환산해서 하루2g의 비타민C를 만들어 내는데 심한 스트레스를 주게되면 18g이나 만든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더라도 스트레스에 견디고 건강하게 살려면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도록 해야한다.

劉太鍾 【高大교수·식품과학회장】

海外女性

34세 女流放送人이 自叙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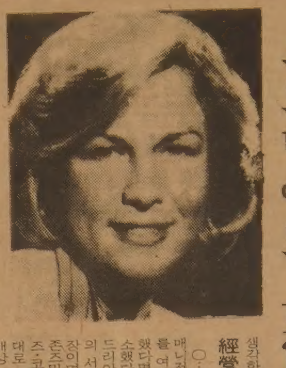
美國의 첫「앵커·우먼」제시카·사비츠

희망女性 부쩍늘어

○…「앵커·우먼」이라는 새 술어를 만들어 썼던 美國의 여류 방송인 제시카·사비츠가 최근 자서전을 꾸며내 화제。올해34세로 자서전을 쓰기엔 좀이른 나이인 사비츠는 미국의 4개TV및 라디오에서 뉴스분석 해설을 맡으며「앵커·우먼」이라는 새로운 호칭을 처음으로 사용했던 장본인이었다。그녀의 뒤를 이어 유명한 앵커·우먼으로 바버러·월터즈가 나왔고, 최근엔 앵커·우먼이 되려고 경쟁하는 여성들이 부쩍 늘어 났다。사비츠가 자서전을 낸 것도 앵커·우먼이 되고 싶은 여성들에게 어드바이스를 주기 위한 것。

그녀는 앵커·우먼이 되고 싶은 여성들로부터 1주일에 80여통이나되는 문의편지를 받고있어 그대답으로 이 책을 쓰게 됐다。

문의편지는 대개『얼굴이 아름답지 않아도 앵커·우먼이 될 수 있는가』『여성이 뉴스를 전하고 해석하는데대해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가』하는 투의것。사비츠는 자서전에서 자기의 경우를 예로들어 어떻게 남성들을 물리치고 앵커·우먼이 됐는가를 자상하게 설명하고,『앵커·우먼은 얼굴이 아름다운것 이상의 무엇을 가져야만 한다』고 밝힌다。 아름다운것이상의 무엇은 지성과 개성을 뜻하며, 사비츠는 해박한 지식과 날카로운 분석력, 거기에다 유머감각까지갖춘 앵커·우먼으로 알려져 있다。



◇앵커·우먼이라는 말을 창조한 제시카·사비츠가 자서전을 펴내 화제를 모으고 있다。

南阿財界에 금발女박사頭角

6세부터 事業솜씨

○…南아프리카에서 財界를 주름잡는 금발의 유태인 여성이 있다。36살의산드라·반데어·머위。케이프타운 대학에서 경영학의 학사 학위를 받았고, 스텔렌보쉬大 대학원에서 南아프리카 공화국 최초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은 재원이다。현재 산드라는 위트워터란드大경영대학원 교수이며 여러기업체의고문으로 활약중이다。지금까지 7개국의 교환 교수를 지냈고, ?개국 초급대학에서 강의를 한 경력이 있다。

기업 경영에 대한 그녀의 센스는 매우 탁월하다。산드라는 6살때 아이들을 모아 잣을 따서 포장하여 동네 유태인 주부들에게 팔아, 사업가로서의 싹을 보였고, 아버지가 사업가여서 식탁의 화제는 사업 얘기가 대부분인 가정에서 자랐다。

그녀의 일과중 반은 강의에, 나머지 반은 기업 경영상담에 몰두하는데 보낸다。최근 산드라는 버클레이은행의 경영에 참여, 조언을해준 결과 18개월만에 이익금이 80%증가했고, 각종 예금구좌가 3만건이 불어나는 놀라운 급성장을 보였다。두 딸과 개 2마리를 데리고 사는 그녀는 상오6시30분에 일어나고 조깅을 한 시간하면서 일을 생각한다。

◇南아프리카財界를 주름잡는 산드라

議員食堂 전매니저가「女性이유 해고」에 損賠訴

經營개선拒否 파면

○…美국회의원식당의 前매니저 앤·워커여인이 자기를 여성이라는 이유로 해고했다면서 하원의원3명을 고소했다。버지니아州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워커는 의회의 서비스관계 행정분과 의장이며 공화당의위인 에드·존즈및 로버트·몰로한, 제임즈·코인등 3명의 의원을 상대로 1천6백만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녀는 자신의 봉급이 80년에 연봉 4만5천달러로인상됐는데 존즈의장이 금년초『여자인 워커의봉급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해임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것。

그러나 존즈의장의 대변인은 식당의 경영개선을 워커에게 원했으나 이를거부했기때문에 파면한것이라고 맞서고있다。

요르단에도 女軍…이軍 맞서

16~35세서 선발

○…요르단에도 女軍이 탄생할 것같다。최근 발표된市民軍조직계획에 의하면 16~35살의 건강한 여성중에서 여군을 선발하여 남성과 똑같은 군사훈련을 시킨다고 돼있다。

이계획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한데에서 겁을먹은 요르단정부당국의 우려 때문이라는 소문。후세인王은 지난달 왕위계승 30주년 기념식에서『요르단은 이스라엘의 주요공격목표의 하나』라고 밝히고, 이나라의 안전을 해치는 사람은 누구라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었다。

여성을 포함,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市民軍이 언제, 어떤 기능을 발휘할는지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미지수이나 모다르국방상은『8만명의 정규군을 지원하는데 참뜻이 있다』고만 밝혔다。

女記者칼럼

張明秀

「늑대소년」이 되었던 入養孤兒

미국의 입양기관에서 사회사업가로일하는 학교선배로부터 미국가정에 입양된 한국어린이들의 문화쇼크에대한 얘기를 듣고 나 또한 쇼크를 받았던 일이있다。그중 한소년의 이야기는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는다。

외국에 양자로 가는 어린이들은 젖먹이에서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연령이 다양하고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 부모와함께 살던 아이, 친척들이 기르던 아이등으로 살아온 내력도 각기 다르다。이들은 나이, 성격,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새가정에 적응해가는 과정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낯선땅, 낯선 언어, 낯선 사람들사이에 홀로 떨어져 그것들을 이겨내야 한다는 어려움을 겪는다。대부분의 아이들은 양부모의 따뜻한 사랑속에서 어려운 고비들을 넘기지만 때로는 한국인 사회사업가가 개입하지 않을수없는 심각한 케이스들도 있다고 한다。

그 선배는 한국의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미국인 가정에 입양되어온 5살난소년의 적응과정을 보살펴주고있었는데, 가족과의 사귐을 완강히 거부하던 그아이는 어느날갑자기「늑대소년」처럼 말하기 시작했다고 한다。『늑대소년처럼 말했다』는 것은 그가 한국어도 영어도 아닌 괴상한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기때문인데 그저『쐴라 쐴라, 울리울리…』하는 정도의 몇가지소리로 가족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었다。말도 안하고 웃지도않고 사람보는데선 먹지도않는 이아이때문에 몹시 신경을쓰던 양부모는 아이가 무언가 떠들기 시작하자 반가와하며 한국인사회사업가의 통역을 청했다。

소년을 만나보니 그는『쐴라 쐴라…』라고 떠들고 있었고, 아무리 우리말로 말을 걸어도 못들은척 하며『쐴라 쐴라…』만 계속할 뿐이었다。몇차례의 면담을 통해서 달래고 달랜 끝에 그 소년은『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니?』란 우리말 질문에 겨우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은『이게 미국말이야』라는 것이었다고 한다。양아들을수 없는 말들속에 홀로 떨어진 소년은 자기 나름으로 주변사람들이 떠드는「소음」을 정리하여「미국말」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쐴라 쐴라는 미국말도 아니고 아무말도 아니니까 네가 그렇게 떠들면 사람들은 아무도 못알아듣고 너를 말도못하는 아이인줄알고 흉을본단 말이야。미국말을 배울때까지는 한국말로「엄마 밥주세요」「아빠 안녕히 다녀오세요」라고 말하면 엄마아빠도 네말을 알아듣게되고, 너도 차츰 미국말을 잘하게 되는거야。그러니 쐴라쐴라는 다시 하지말라』고 타일렀더니 그아이는 순하게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외국가정에 많은 우리고아들이 입양돼가는것은 물론 바람직한일이 못된다。그러나 양자가 일반화하지않은 우리풍토에서「고아수출국」이란 불명예를 씻기위해 해외입양을 막자는 말은 할수가 없다。단지 한국인 사회사업가들이 더 많이 외국에가서 우리아이들의 적응과정을 따뜻하게 보살펴줄수 있기를 바랄뿐이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33>

朴婉緒 作 / 金光培 畵

미리 온 아이 36

수철이 수지 수인이(그때까지 식구들은 이름대신 오목이란 애칭으로 부름)삼남매는 6·25때 아버지를 잃고 1·4후퇴때 어머니와 함께 수원근교의 외가로 피난을 간다。만이로 아들은 중학생이었지만 두딸은 일곱살 다섯살이 되던해였다。

그 곳에서 행세하는 부농인 외가엔 많은 친척들이 피난 내려와 붐비고 그들의 어머니는 남편을 무참히 잃은 충격으로 반쯤 정신이 나가 아이들을 돌보지않는다。외할머니가 그들을 따로 거둬 먹이느라고 먹이건만 애정의 결핍때문인지 수지와 오목이는 먹어도 먹어도 허기가지는 병적인 굶주림에 시달린다。특히 오목이는 온종일먹는데 걸신이 나서 수지의 먹을것까지 빼앗아먹어 여러사람의눈총을받는다。수지는 어린나이답지않게 이런 동생을 싸고돌아 칭찬을 받지만 속으론 오목이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앙큼한 마음을 키운다。

외가가 있는 부락까지 후퇴령이 내려 모든사람이 거리로 나온 북새통에 수지는 계획적으로 오목이를 장거리까지 데리고 나갔다가 슬그머니 손목을 놓아버리고 혼자서 돌아온다。그때 수지는 그때까지 오목이가 아무리 갖고싶어해도 안주던 표주박모양의 작은 은노리개를 오목이 손에 쥐어준다。

이렇게 고의로 동생을 버리고돌아와서 까무러칠듯이 울고불고 식구들은 되려 날래면서, 오목이를 찾을 것을 단념하고 마지막 피난의 대열에 낀다。국도에서 기총소사를 만나 어머니마저 참사를 당하는걸 목격한 수지는 속으로「천벌이다」라고 자기가 한짓에 대한 죄책감에 떤다。

동란전부터 알부자로 소문난 아버지의 유산을 이재에밝은 수철이가 잘 관리해 수지는 남부러울게 없는 소녀시절을 보내고 오목이는「오누이의 집」이란 고아원에서 자란다。

소녀시절 수지는 고아원을 순례하고 자선을 베푸는 기특한 취미를 갖는다。「오누이의 집」에서 오목이(吳木伊)란 고아를 만나 동생일지도 모른단 생각을 하지만 긴가민가할뿐 증거는 없다。오누이의 집이 없어진후 오목이의 행방도 묘연해지고 수지의 자선취미도 인재라는 대학동기와의 연애로 자연히 잊혀진다。

인재의 군복무기간과 맞추느라 대학원까지 진학해가면서 인재를 기다린 수지건만 졸업식날 올케의 중매에 의해 기욱이란 집안좋고 전도유망한 청년과 맞선을 보고 마음이 움직인다。시골출신의 인재는 졸업하던 해 대기업에 취직은 됐지만 그 이상의 발이 있어보이진 않는다。

한편 인재는 울적한김에 우연히 버스간에서 만난 동네 처녀 오목이를 하숙방까지 끌어들여 범하는 일을 저지른다。그후로 자주 회사로 찾아오는 오목이를 모질게 거절은 못하면서 귀찮아하는데 둘이 같이 식사하는 장면을 수지에게 들킨다。수지는 그때 오목이가 20년전 버린 동생 수인이란 결정적인 증거로 그때의 은표주박으로 목걸이를 만들어 늘이고있음을 본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지는 그 자리에서 인재가 모르고있는 오목이가 고아라는 사실을 폭로해 둘 사이를 이간질한다。

상처받은 오목이는 같은 고아원 출신 일환이에게로 가고 수지는 거리낄것 없이 기욱과 결혼한다。오목이를 깊이 사랑하고있던 일환이는 오목이의 임신과 여덟달만의 출산에 의혹과 시달린다。둘은 서로 자신과 상대방을 속이기위해 아기를 팔삭동이라고 부르면서 진실에 접근하길 꺼린다。어두운 의혹에 의해 일환이의 사람됨은 날로 황폐해지고 생활은 지옥을 방불하게 하는 가운데 오목이는 두번째로 딸을 낳는다。

신앙특별집회에

교민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제 : 교회의 갱신과 성장

강사 : 차 현 회 목사

- 한국 해군 군목 복무
- 서울 종교 감리교회 시무
- 재미 한인감리교회 총회장 역임
- 현재 시카고 제일한인연합감리교회 담임

시일 : 1982년10월16일(토) 오후8시
17일(주일) 오후2시·오후8시

장소 : 본 교회당
300 Bloor St. W. (Subway. Spadina역과 St. George 역과의 중간지점)

☎ : 925-6261, 925-0917

토론토한인연합교회

캐나다 전역에 걸친

콘테스트 세일

SANYO 자동·보온밥통

기간 : 1982년10월1일~12월31일까지

각 식품점에서(소매상) 산요(SANYO) 일본밥통을 싼 가격에(경품티켓과 함께) 구입할수 있으며 티켓에 당첨되면 좋은 상품을 드립니다.

- JAPAN FOOD CORP(CANADA) LTD. TORONTO
- PRODUITS ALIMENTAIRES DU JAPON(CANADA) LTÉ MONTRÉAL
- ASIAN FOODS-VANCOUVER

PAPER-SERVICE-REPAIR

⊙품목 : ●각종 전자캐쉬레지스터 (파나소닉, TEC, SHARP, NCR등등)
●저울 ●복사기

세일기간
10월12일 ~10월23일
<2 주간>

교민 여러분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저희 회사에서는 특별쎄일기간을 설정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기게를 다시 구입코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쎄일기간을 설정하고 여러분께 봉사코자 합니다.

사무실이나 어떤 가게든지, 사용하는 모든 전자기기 품목에 특별할인해 드릴 것이오니, 일단 값을 비교해 보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수 일 올림

※모든 기계에 대해 책임판매로 100% 보증.

822 THE QUEENSWAY (퀸스웨이×이슬링톤)

☎ (B 252-7377 (R 762-4536

「大學門」 더 좁아진다

내년 전국98개大서 20萬2,460명 모집

大入정원 5千3百56명 증원

首都圈억제·진학률 35·8%유지

문교부는 5일 전국 98개대학의 83학년도 입학인원을 올해 (82학년)의 19만7천1백4명에서 5천3백56명이 늘어난 20만2천4백60명으로 확정, 발표했다.

문교부는 이번 정원조정에서 ▲오는86년까지 대학진학률35·8%를 유지하는선에서 증원을 소폭으로 허용하고 ▲수도권인구억제시책에따라 서울지역대학 (체육대학제외)과 부규가있는 대학이나 부실대학은 증원을 안해주는대신 ▲아프리카등 해외진출을 뒷받침할 스와힐리어과등 외국어학과와유전공학·정보공학등에 증원을 허용했으며 ▲국립대학및 정원1만8천명을 초과하는대학의 증원억제등의 원칙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증원조정으로 내년도 4년제대학의 총학생수는 70만9천4백15명으로늘어 교육대·전문대를포함하면 우리나라의 대학생수는 1백만명을넘게된다.

문교부는 그동안 87개대학에서 5만4천명의 정원증원 신청을받아 이중 56개대학의 정원을늘려주었는데 특히 지난해 신설된대학의 육성을위해 水原大, 湖南大, 부산外國語大, 麗園大등 4개대학의 정원을2백60명씩 늘려주었다.

한편 서울지역은 86년아시안게임·88년올림픽에대비, 한국체육대에 경기지도과를신설하는등 1백4명을 늘렸으나 慶熙大와 明知大는 일부학과가 지방분교로 이전함에 따라 5백59명이 오히려 줄었다.

또 이번 조정을통해 지난71년부터 崇實大와 大田大를 통합운영해오던 崇田大가 大田캠퍼스를 大田대학으로 분리독립함에따라 전국의 4년제 대학은 97개에서 98개로 늘었고 祥明여자사대가 「祥明여자대」로, 光云공과대학이 「光云대학」으로 각각 학교명칭을 바꿨다.

분야별 증원내역을 보면▲인문사회분야가 2천8백20명 (86년졸업정원)으로 가장많고 ▲외국어분야가 4백90명▲체육분야가 4백10명 ▲농수산·해양분야가 2백10명순이다. 교원양성분야와 의학분야는 이번 조정에서 정원이 줄어들었다. 이번 조정으로 자연계대 인문사회계비율은 4·5대5·5가됐다.

문교부는 대학입학원을 82년에는 1만26명을, 81년에는 1만7천6백명을 각각늘렸었다.

★大學別조정내용·해설10면

철길놀던 男妹참변 동생重態 누나숨져

【裡里】 4일하오 5시40분께 전북裡里市平和洞154 김서두씨 (42) 집앞 호남선 철길에서 김씨의 자녀인 정용군 (4) 미화양 (6) 남매가 光州발 大田행 제196 화물열차 (기관사 이강석·47)에 치여 미화양은 숨지고 정용군은 중상을입고 裡里圓光대부속병원으로 옮겼으나 중태이다. 이들남매는 이날 철길위에서 병뚜껑을 납작하게 만드는 놀이를 하는데 정신이 팔려 기차가 오는줄도 몰라 변을 당했다. 【駱】

전직 教師·의사등 「福祉위원」에 위촉

장애자등 파악 相談

社會복지 자문역할

保社部、개정法案 국회제출

보사부는 5일 전국 邑·面·洞에 상설「복지위원」을 위촉하고 고아원등 사회복지시설에대한 행정 권한을 강화하는것등을 골자로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확정, 가을정기국회에 넘기는 한편 전국 농어촌지역의 보건진료원 (간호원및 조산원)을 일선조직으로 하는 농어촌 보건의료전달체제의 모델을 확정했다.

보사부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서 전국 시장·군수들이 邑·面·洞에대해 주민중 전직교사·의사·사회사업 전문가등을 「복지위원」으로 위촉, 영세민·장애자등의 신상파악과 상담역할을 맡게하고 사회복지사업분야에 관해 행정기관의 자문역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위원」의 수는 주민 또는 요보호대상자수에 따라 정하도록 별도의 시행령을 마련키로 했다.

보사부는 또 이법개정안에서 시·도지사가 고아원·양로원등에 대해 사업의내용이나 시설변경, 장소이전및 폐쇄등 행정명령을 내릴수있도록 사회복지시설에대한 시·도지사의 행정권한을 크게강화시켰다.

보사부는 또 이법안에서 양로원, 장애자재활시설등의 이용자들중 본인 또는 가족들이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경우는 일정한 액수의 사용료를 징수키로하고 무료시혜는 영세민이나 무의무탁자들에게만 한정키로 했다.

한편 보사부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법인)를 법정단체로 변경, 사회복지를위한 조사연구사업등을 위임하고 불우시설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및 자격증을교부토록했다.

보사부는 또 의사에의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벽지도서지역의 보건의료전달체제를 보건진료소—보건지소—보건소로 연결되는 모델로 확정하고 오는84년까지 이같은모델에 따른 농어촌 보건의료전달체제를 구성키로했다.

보사부는 이를위해 오는84년까지 5~10개里洞 중심지에 인구3천명당 보건진료소 1개씩, 전국에 1천6백여개소의 보건진료소를 증설, 기존보건진료소 3백90여개소와 합쳐 모두2천개소의 보건진료소를 건립키로했다.

보사부는 이를위해 간호원, 조산원등중 보건진료요원을 선발, 24주간의 직무교육을거쳐 전국보건진료소에 배치키로하고 금년도에는 우선5백여명의 보건진료원을 양성, 배치키로했다.

이 계획에따라 농어촌지역 보건진료소에 배치되는 진료원들은 보건소장 또는 지역의사의 지도감독아래 가족계획, 모자보건, 예방접종, 분만지도및 간단한질병치료와 의사에의 환자후송업무를 맡게된다.

보사부는 이 보건진료소를 지역주민들로 구성된는 운영협의회에의해 자율적으로 운영토록하고, 설치비와 부대비및 진료요원인건비는 국비및 지방비에서 분담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 보건진료원들의 예방및 치료활동을 전국 1천3백여개소의 보건소, 2백20여개소의 보건지소및 지역병원과 연결, 오는84년까지 전달망을 구축해서 이 전달망을 농어촌 2종의료보험의 기반으로 삼을 계획이다. 【金薰기자】

自然보호헌장宣布 4돌

유공자15명등 포상

자연보호헌장선포4주년기념식이 5일상오10시 서울을 비롯한 전국 시 군단위로 거행됐다.

이날 서울에서는 상오10시 世宗문화회관 별관에서 盧泰愚내무장관, 李敏載자연보호 중앙협의회장과 각급 지역자연보호회장등 1천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갖고 자연보호에 더욱 힘쓸것을 다짐했다.

이자리에서 자연보호 운동에 공이큰 鄭英昊씨 (58·자연보호중앙협의회이사) 등7명이 국민훈장 동백장과 석류장을, 李春華씨 (34·釜山市南浦洞) 등 8명과 한국녹색회등이 대통령표창을 각각 받았다.

훈장받은 사람은 다음과같다.

◇국민훈장 동백장 ▲鄭英昊 (58·자연보호중앙협의회이사·서울大자연과학대학교수) ◇석류장▲裵英求 (41·문화방송사회부장) ▲南相珏 (70·서울陵洞상록회회장) ▲崔相復 (39·경북산악연맹이사) ▲韓鍾大 (50·경기安養市자연보호 명예감시관) ▲金永國 (50·충남 산악회장) ▲崔圭哲 (47·자연보호협회 全北지부장)

公害없는 올림픽을

金총리 담화

金相浹국무총리는 5일 自然保護헌장선포 제4주년에 즈음한 담화문을 발표,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예로부터 자랑인 푸르른하늘, 맑은강물, 수려한 山野를 세계만방에서 모이는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기위해 지금부터 우리주변을 깨끗이 가꾸는 습성을 기르고 온 국토에 꽃과 나무를 심으며 야생동식물을 보호하며 희귀 자연자원을 보존하며 각종 공해요인을 없애는 노력을 펴나가야하겠다』고 강조했다.

金총리는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의 혜택속에서 살고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전제하고 『우리 헌장에서 명시한대로 자연은 인간생명의 고향이며 우리삶의 터전』이라면서 자연보호운동의 생활화를 위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자연애호정신을 심어주고 ▲주변에 꽃과 나무를 심고 동식물을 보호하며 ▲물, 공기, 흙등 자연환경이 오염되지않도록 힘을 기울이자고 강조했다.

韓電자재 빼돌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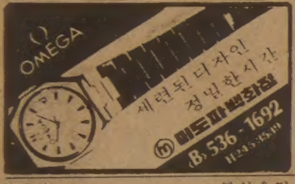
大邱市警 하청업자등 셋令狀

【大邱】 대구시경은 5일 한전공사를도급받아 시공중 한전자재를 멋대로 횡령한 하청업자 李繁씨 (41·大邱市南區 大明6洞1522)와 뇌물을 받은 한전 경남지사 배전과 공사감독 宋相俊씨 (40)를 배임증수회등 혐의로, 한전자재를 불법으로 사들인 大邱市中區 東仁洞1街 사대표 裵正淑씨 (52)를 장물취득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도급받은 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시킨 경남馬山市 午東洞130 부전사대표 朴命甲씨 (43)를전기공사업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한전자재를빼려 횡령한뒤 달아난 金炳喆씨 (47·大邱市中區東仁洞226)를 업무상 횡령등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따르면 하청업자 李씨는 지난80년 9월부터 12월사이 부전사대표 朴씨로부터 경남昌原~馬山간 선로연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던중 한전공사감독 宋씨에게 잘봐달라는 부탁과함께 현금52만원을 뇌물로건네주고 이공사에지급된 한전자재 높선73만8천여원 상당을 빼돌려 裵씨에게 처분, 가로챘다는것이다.

또 전기재료상인 裵씨는 지난79년 3월 달아난 업자 金炳喆씨로부터 한전자재 높선 2백만원 상당과 李씨로부터 높선 73만8천여원상당을 사들인 혐의다.



太陽熱주택 鑑定못해

釜山地法、공사비請求訴 진행 난관에

【釜山】 세계및 금융상의 지원을 받아 한때 붐을 이루었던 태양열주택이 준공후 많은 하자가 나타나고 있으나 태양열시설의 정상가동여부와 하자보수에 따른 경비산출을 전문적으로 감정할기관등이 없어 입주자들만 큰 불편을 겪고있다.

이같은 사실은 5일 원고 임명철씨 (태양열전열판제조업·釜山東萊區明倫洞1 2 85)와 피고 정연혜씨 (건축주·釜山西區甘川洞1 8 0의2) 간의 공사비청구 소송을 심리중인 釜山지법 민사6부 (재판장 강봉수 부장판사)가 문제가된 釜山市西區甘川洞480의2 태양열 연립주택9가구분에 대한 태양열시스팀의정밀감정을한국동력자원연구소, 한국감정원, 에너지관리공단등에 의뢰했으나 모두 감정을 할수없다는 회답을 해옴으로써 밝혀졌다.

재판부로부터 소송의대상이된 태양열주택의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산출을 의뢰받은 동력자원연구소는 재판부의 의뢰사항은 기술적으로본 연구소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분야와 관련은 있으나 민원사무처리 경험이없어 동자부에 의뢰함이 좋을것같다』고 회답해왔으며 한국감정원 釜山지부는 회신에서 『태양열시스팀의 가동여부·하자보수 소요경비 산출등은 업무범위에 속하지않는다』고 밝혔다는것. 또 에너지관리공단 釜山지부의 한 간부는 『태양열 시스팀의 감정에 관한 업무규정이 없어 감정할수 없다』고 말했다. 【駱】

◇싱가포르 新婚부부 45쌍 한국에 蜜月

싱가포르의 신혼부부41쌍이 4일하오 CPA편으로 金浦공항에 도착, 3박4일 예정으로 한국에 단체신혼여행을왔다. 이들은 모두 지난달26일 고국에서 합동결혼식을 올렸는데 결혼경비를 줄여 한국으로 신혼의 꿈을 꾸려온것. 신부들은 싱가포르고유의 오키드난초꽃 무늬가든 흰면사포에 하얀 드레스를입고 공항을 나서 출영객들과 공항직원들의 시선을모았다. 이들의 여행일정은 홍콩~한국~日本~홍콩~泰國을거쳐 싱가포르로가는데 한국에서는 5일 서울시내관광, 6일 민속촌관광을 끝내고 7일 일본으로 떠난다.

元老여배우 卜惠淑씨 別世

어제下午 78세로

◇故 卜惠淑씨

원로영화배우 卜惠淑씨가 5일하오5시30분 서울麻浦區西橋洞335의27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8세. 卜씨는 1926년 영화「籠中鳥」로 데뷔, 영화·연극·TV무대에서 활약해온 한국영화 60년사의 산증인이었다.

卜씨는 지난2일밤 KBS 1TV 1백분쇼 1백회기념특집에 출연, 연기생활을 회고하기도 했다.

외동딸 金鎭英씨 (49) 집에서 살아온 卜씨는지난4일 갑자기 건강이나빠져 翰大부속병원에입원했었다. 장례절차는 미정. 연락처 ☎5 4 3 0.

月2회 복장自由化

忠北道敎委지시

【淸州】 충북도교육위원회는 5일 83학년도부터 실시되는 중고교생들의 교복 자유화에 앞서 오는10월부터 내년2월까지 5개월간 월2회씩 복장자유의 날을 실시토록 각급학교에 지시했다.

도교위는 검소하고 단정한 복장 착용의 예비지도를 위해 실시되는 복장 자유의 날 일정은 학교장이 학교실정에 맞도록 정하며 학교, 학년표지의 부착도 학교장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駱】

5行뉴스

◆무면허 뺑소니 운전사구속 【光州】 전남高興경찰서는5일 면허도 없이 자가용버스로 영업행위를하다가 2명을 치어 1명을 중태에 빠뜨린후 달아났던 金京鎭씨 (47·釜山市東萊區社稷3洞119의7)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분뇨처리장작업중20代숨져 【釜山】 4일하오 2시30분께 부산시北區甘田洞 부산위생분뇨종말처리장에서 분뇨처리작업을 하던 윤동관씨 (25)가 고무벨트에 감겨숨졌다. 【駱】

20代남자 列車轢死

金泉 문화센터앞서

【大邱】 5일상오2시16분께 경북金泉市南山1洞 문화센터앞 철로에서 (서울 기점2 2 5 3 ㎞) 부산발 서울행 제24 특급열차 (기관사 차찬두·44·大田기관차사무소소속) 에 25세가량의 남자1명이 치여 숨졌다. 【駱】

결별선언 내연의처 殺害한 40代를수배

【光州】 전남求禮경찰서는 5일 헤어지자는 내연의처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하고 달아난 金緒佐씨 (43·求禮郡馬山面黃田里 華嚴寺 유성여관종업원)를 살인혐의로 전국에 수배했다. 【駱】

內緣관계 여관서 同伴자살 30代남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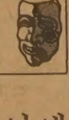
【大邱】 4일하오 8시께 大邱市西區 內唐1洞219 월성여관 209호실에서 투숙했던 이상진씨 (38·大邱市南區大明洞1221) 와 이씨의 내연의처 구태연여인 (35·大邱市中區南山洞2640)이 극약을먹고 숨져있는것을 여관종업원 최귀당여인 (37)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駱】

533-2363
World Book
백과사전

15초의 檢索

金浦출입국사무소 電算室 李英愛씨

"韓昇熙 출국확인엔 하루걸렸죠"



金浦출입국사무소 電算室의 李英愛씨 (40·사진) 는 「미스서울남치소동」때 한바탕 진땀을 흘렸던것을 잊지못한다. 韓昇熙등의 출국사실을 확인하는 하루출입 컴퓨터에 매달려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야 했었다.

金浦공항으로 출입국하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어여쁜 아가씨들의 검사를 받는다. 출입국신고서를 써내면 여권사열대와 연결된 화면을 통해 전산실의 60여 아가씨들이 컴퓨터조회를 한다. 李씨는 바로 60여 아가씨들의 반장격이다.

전산실의 컴퓨터에는 79년이후 金浦로 출입국한 9백만명의 신상명세서가 수록돼있다. 매일 9천명가량의 신상명세서가 새로이 추가된다.

아가씨들이 출입국신고서를 컴퓨터에 조회, 출입국금지자를 가려내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15초. 그러나 비행기가 많이 뜨고 내리는 한낮엔 손놀림이 엄연할 정도로 바쁘다. 이상있는 출입국자는 전용통신호로 사열관에게 통보한다.

아가씨들이 가장 힘든일은 카드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일이다. 신고서를보면서 이름·성별·생년월일·여권번호·출발지·목적지등을 입력하는데 출입국자들이 양식에 맞게 썼거나 글씨를 또박또박 쓰면 큰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글씨를 갈겨쓰거나 생년월일난에 출입국날짜를 쓰면 혼역을 치르게된다. 특히 일본사람들이 연도를 「소화몇년」이라고 쓰는데는 딱질색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의 글씨체와 이름도 하나의 장애물이다. 글씨체가 알아보기 힘들기도 하지만 이름이 길어 애를 먹는다. 컴퓨터 이름난엔 알파벳으로 35자까지 입력할수있는데 60자가 넘는 이름도 흔하기 때문이다. 생소한 한자를 이름자로 쓰는 중국인도 많아 이또한 번거로움을 안겨준다.

李씨가 컴퓨터와 인연을맺은것은 올해로 꼭 20년. 金浦에 온것은 81년1월이다. 金浦출입국사무소 전산실 창설요원으로 전산실의 큰언니가됐다. 그동안 KIST·한국전자계산소등 여러곳을 전전했지만 金浦처럼 신경이 곤두서는곳은 없었다.

『여권에관한 범죄가 지능화될수록 저희들의 책임도 무거워지는것 같아요. 열심히 했는데도 미스서울 납치소동같은 위장출국자가 생길때는 안타까울뿐입니다』 【李鎭기자】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연장쇼

오리엔탈팔레스 8주년기념

여러분의 민요가수
최정자 특별초청쇼
연장기간: 10월24일(일)까지

추석을 맞아 교민여러분께 가수 최정자를 선보입니다.
친구·가족동반하시고 흥겨운 하루를 즐겨주십시요.

회트곡 :
처녀뱃사공등 수백곡

뉴서울

경로잔치에도 노년들을 위해서 가수 최정자양이 출연, 민요를 선사할 것입니다.

새로운 악단 : FIREBIRDS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 · 533—1500

농구나라 比에 『申東坡 熱風』

亞洲청소년 농구大會의 「최고貴賓」

TV선 옛妙技 방영

농구는 필리핀에서 최고인기종목이고 한국의 申東坡는 글자그대로「우상」(IDOL)이다. 제7회아시아청소년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는 마닐라市는 축제분위기. 축제의 주인공은 申東坡다.

지난날 아시아최고의 득점기계였던 申감독에대한 필리핀사람들의 인기는 이해가되지않을 정도다. 한국선수단이 지날때마다 남녀노소할것없이「신동파, 신동파」를외친다. 그가 탄 차가 신호대기중이면 옆차에앉아있던 아가씨들이 창문을 열고 종이와 볼펜을 내민다.

申東坡의 聲價는 절대적이다. 필리핀농구협회가「농구명예의 전당」을 세우기로하면서 헌액대상자를 뽑을때는 申감독에 대해선 만장일치찬성이었던반면 필리핀인인 카르롤스·로이자카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렸다고한다. 실제로 대회폐막식장에서 두사람이 시상받을때도 申감독이 더많은 박수를받았다.

필리핀농구협회는 각국선수단장들에게도 주지 않는 차와 운전사를 申감독에게제공했다. 음식점이나 상점에선 돈을받지않거나 반값으로

음식점·商店선 "물건값 안받겠소"

깎아주었다.

TV방송은 그가 도착한 지난달 30일밤 그가 예전에 마닐라에서 가졌던 경기를 앙코르방영했고신문에선인터뷰기사를 1면톱으로 실었다.

申東坡에대한 이같은 인기는 필리핀사람들의 농구열을 입증하고있다.

이미 11개의 프로농구팀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필리핀프로농구는 미국에서처럼 12분씩 4쿼터제, 롱숏3점제를 채택하고있다.

TV에선 한국처럼 야구일색이 아닌 농구일색의 중계방송을 하고있다. 야구는 하긴 하지만 관심이 거의 없고 지방에서는 소프트볼을 즐기고있다.

골목마다 빈터마당엔 농구골대가 서있었고 리틀·바스킷볼연맹전때 코트에서 클린·숏이 터지기만 하면「신동파숏」이라고 함성을 질렀다. 마르코스대통령은 이번대회의 예선리그 모두를 무료입장시키라고 지시했고 프로농구협회에선 대회기간중에 경기를 갖지않기로 했다.

【마닐라=李基洪특파원】

"도까시끼 KO로 잡겠다"

金成南、10일 타이틀戰…어제 向日

輕量級서 보기 드문 KO率 60% 強펀치

프로복싱 WBA 주니어플라이급 1위 金成南(22)이동급챔피언日本의 도까시끼·가쓰오(22)에게 도전하기위해 5일 하오 출국했다.

10일저녁 東京 고오라꾸엔체육관서 벌어지는 이번 타이틀전서 金이 이길경우 한국프로복싱은 지난해7월이후 14개월만에 6연패끝에새로운 세계챔피언을 탄생시키게된다.

金의 타이틀 획득가능성은 어느정도될까. 국내 전문가들은 도까시끼의 빠른 발놀림과 세련된 테크닉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나 金 역시 경량급으로서는 보기드문 강펀치를 갖고있어 만만치않다.

金은 프로전적 20승(12KO) 3패, KO율 60%를 기록, 15승(3KO) 1무1패, KO율20%의 도까시끼보다 파괴력에서 우세하다. 특히 金은 왼손잡이의 잇점을 활용, 라이트훅과 어퍼컷을 잘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스피드와 스태미너에서 취약점을 갖고있다. 도까시끼는 주먹의 힘은 대단치 않으나 스피드가 뛰어나고 좌우스트레이트를 주무기로한 다양한 테크닉을 구사한다. 지난

챔피언의 발 묶으면 勝算있어

해 12월 金煥珍으로부터「약물중독」파문을 일으키며 타이틀을 뺏을때만해도「세계챔피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지난 4월 투페·마데라(멕시코), 7월 이나미·마사하루(일본)등과 1·2차방어전을 치르면서 급성장, 챔피언의 관록을 다져가고있다.

이번 타이틀전서 金이 도까시끼의 발을 묶지 못하면 챔피언벨트를 획득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있다. 도까시끼의 스피드가 金보다 앞서고 대전 장소가 日本이어서 판정으로는 승산을 기대하기 어렵다.

金은 9월초부터 본격 훈련에 들어가 60여라운드의 스파링을 마쳤으며 스피드와 스태미너 보강에 주력해왔다.

姜俊鎬트레이너는『새벽로드웍으로 체력을 보강했다. 10회 이전에 KO로 승부를 걸겠다』고 밝혔다.

金의 왼쪽 손등 부상도 완쾌됐으며 체중도 약 1.5kg밖에 초과하지 않아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

【金仁奎기자】

제14기 名人戰 3次予選 決勝

第1局 第3譜 10~32 (각5시간·덤5집반)

白(6段) 徐 能 旭
黑(4段) 姜 勳

좌하귀에서 黑11을 응수케한 徐6단은 예정했던대로 白12에 협공했다. 이 바둑의「성격」이 예서부터 결정되려는 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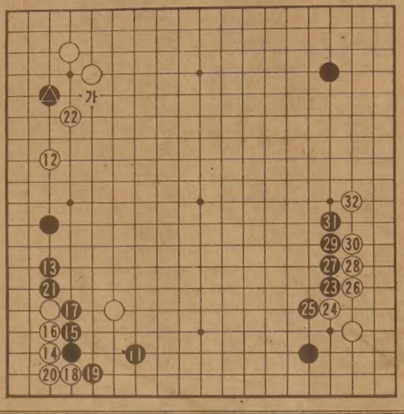
白12에 대해▲표를 움직일 시기가 아니라고 黑13에 육박하자 白은14이하로 귀를 차지하여 이하黑21까지。전문가는 필연의 과정이라고 수월히 말하지만 판의 양상은 이것으로 실리와 세력으로 뚜렷하게 갈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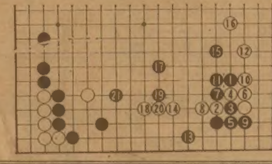
이윽고 白22。黑「가」의 탈출을 봉쇄하여 굉장히 큰곳이며 黑23도 좌측黑세를 활용하려는 뜻에서 절대의곳。여기까지 피차간 자기계획대로 추진하는 느낌인데 徐6단은 白24를 7분이나 숙고했다.

광활한 黑세력

黑23에 대하여 흔히 쓰는 기본정석인 참고도의 白2는 黑3이하21까지를 거의 필연이라 보더라도 20까지의 白5점이 군색한 꼴로된다. 실전의白24는 참고도를 피하려는수단이었지만 이것도 白32까지 黑세가 너무 막강해졌다. 黑으로서는 이세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이 바둑의 초점이다.

【一凡】





AL 밀워키-캘리포니아
NL 세인트루이스-아틀랜타

美프로野球 두리그 決勝戰진출

82년시즌美프로야구(메이저·리그)정규경기가모두 끝나 밀워키·브루어즈와캘리포니아·앤젤스가 아메리칸·리그결승에、세인트루이스·카디널즈와아틀랜타·브레이브스가 내셔널·리그 결승에 진출했다.

4개팀은 5전3선승제의 결승시리즈로 리그 챔피언을 결정하고 양대리그 챔피언이 월드·시리즈(7전4선승제)를 벌이게된다. 시즌초 13연승의 기록을 세웠던 아틀랜타·브레이브스는 89승73패로 지난해 월드·챔피언 로스앤젤레스·다저스를1게임차로 누르고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서 우승했다. 아메리칸·리그 동부의 밀워키·브루어즈는 95승67패의 가장 좋은 성적으로 창단이래 처음 지구우승을 기록했다.

캘리포니아·앤젤스는 양키즈에서옮겨온강타자 레지·잭슨의 시즌 최다홈런(39개)에 힘입어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서 우승했다. 3차례나 사이언상을 받은 필라델피아 노장 투수 스티브·칼튼은 23승의 최다승을 기록했다.

◇메이저·리그 각부문 1위

▲타격=윌리·윌슨(캔자스시티·AL) 타율0.332, 알·올리버(몬트리올·NL) 0.331

▲홈런=레지·잭슨(캘리포니아·AL)고먼·토마스(밀워키·AL) 39개, 데이브·킹먼(뉴욕·메츠·NL) 37개

▲타점=할·매크레(캔자스시티·AL) 133타점, 알·올리버, 데일·머피(아틀랜타·NL) 109타점

▲투수=짐·팔머(볼티모어·AL) 승률0.789(15승4패), 필·니크로(아틀랜타·NL) 0.810(17승4패)

한국일보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팀	승	패
①세인트루이스	92	70
②필라델피아	89	73
③몬트리올	86	76
④피츠버그	84	78
⑤시카고·컵스	73	89
⑥뉴욕·메츠	64	97

▲서부지구

팀	승	패
①아틀랜타	89	73
②로스앤젤레스	88	74
③샌프란시스코	87	75
④샌디에이고	81	81
⑤휴스턴	77	85
⑥신시내티	61	101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팀	승	패
①밀워키	95	67
②볼티모어	94	68
③보스톤	89	73
④디트로이트	83	79
⑤뉴욕·양키	79	83
⑥클리블랜드	78	84
⑥토론토	78	84

▲서부지구

팀	승	패
①캘리포니아	93	69
②캔자스시티	90	72
③시카고	87	75
④시애틀	76	86
⑤오클랜드	68	94
⑥텍사스	64	98
⑦미네소타	60	102

스포츠 短信

三星 포수 李萬洙 16일 결혼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李萬洙선수(25)가 16일하오2시 大邱 궁전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신부는 漢陽大 출신의 李신화양(24).

體典 서울선수단 오늘 結團

◆…오는 14일 개막되는 제63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서울시선수단(임원 2백54명 선수 1천1백6)이 6일 상오10시반 장충체육관에서 결단식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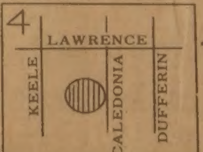
생활에 필요한 것을 안내하는 한국일보 광고란

DOMINION SMALLWARES

Cash & Carry

October 4 - October 16

Item		SPECIAL
Peak Frean's Regular Cookies 200 gr	6x1.29	$ 5.10
Peak Frean's Creme Cookies 200 gr	6x1.39	5.15
Peak Frean's Chocolate Digestive 200gr	6x1.89	6.89
Planter's Peanuts in shell 14 oz.	12x2.79	20.88
Coffee (orange) Crispettes	12x1.59	11.88
Laura Secord Regular Chocolate Bars	36x40¢	9.49
Rowntree After Eight 200 gr		1.49
Rowntree After Eight 390 gr		2.69
Rowntree Black Magic ½ lb.		2.23
Rowntree Black Magic 1 lb.		4.35
Planter's Snack Pack Peanuts	24x40	5.99
Planter's Dry Roasted Peanuts 200 gr		1.27
Planter's Dry Roasted Peanuts 325 gr		1.75
Planter's Vacuum Pack Cocktail Peanuts	360 gr	1.89
White Swan Towel	18x2's	17.79



DOMINION SMALLWARES
920 CALEDONIA RD.
789-7214(MR. 김)

진주 眞珠 목거리

특별할인봉사

○본점에서 직수입한 보양강장제 일절, 녹용제품, 할인판매

민병철 생활영어 카세트 테프와 비데오 테프 다량입하!!

피에르가르뎅 * 지반시 Y셔츠

빅·세븐 귀국 선물 용품 선물센타

678 BLOOR ST. WEST
533-7966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각종의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 대지, 상가, 사업체, 투자처, 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 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 력 —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 무역회사 경영(뱅쿠버)
★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온타리오부동산 브로커

전화 〈B〉(416)497-8900 채 준 성
〈R〉(416)633-7892 (David Chae)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 고등학교 11학년~13학년을 위한 영어교육을 위한 신청
◎ 학기는 매년 1월.6월.8월에 시작함.
◎ 컴퓨터·싸이언스및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훌륭한 선생 보유
◎ 학생들의 대학교입학을 위한 보조 역활
◎ 외국학생들의 비자신청 역활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보십시오

새머리털이 자랍니다

당신이 원하는 머리털의 성장 실험 결과가 우리 전문가들에 의해 85% 이상 성공했읍니다.

당신의 머리털이 빠짐을 막고, 새 머리털의 성장 주기를 자주 해주는 최근의 설비가 임상실험실에 있읍니다. 우리의 훈련된 머리털 전문가가 당신의 머리털과 머리가죽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일차 상담해 주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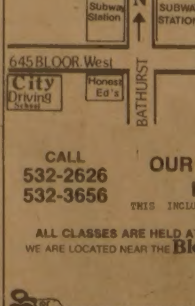
걱정을 해결합니다.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W. SUITE 305
☎ : 537-3104

CITY DRIVING SCHOOL

NOW YOU CAN GET SUPER SAVINGS ON A FULL AND COMPLETE DRIVER EDUCATION COURSE THAT IS GOVERNMENT APPROVED AND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ONTARIO SAFETY LEAGUE



YOUR COURSE INCLUDES
- 25 Hours in an Ontario Safety League Approved Classroom
- 9 In-car Lessons
- Home pick up service in most areas at no charge
- Your choice of days, evenings, Saturdays or vacation courses
- Income Tax Receipt - All fees are tax deductible
- A certificate upon graduation for insurance reduction that is Ontario Safety League Approved

CALL 532-2626 532-3656

OUR COURSE FEE IS $149.00
THIS INCLUDES THE NATIONAL DRIVING TEST

CALL 532-2626 532-3656

ALL CLASSES ARE HELD AT 645 Bloor Street West
WE ARE LOCATED NEAR THE Bloor & Bathurst SUBWAY STATION (See Map)

CITY DRIVING SCHOOL • CITY DRIVING SCHOOL • CITY DRIVING SCHOOL • CITY DRIVING SCHOOL

THIS COUPON ENTITLES THE HOLDER TO
$24.00 off
THE REGULAR COURSE FEE OF $149.00
WHEN PRESENTED UPON APPLICATION
BRING A FRIEND AND SAVE EVEN MORE
FOR DETAILS CALL 532-2626 or 532-3656

物價安定속 7~8%成長 추구

全大統領、새해豫算案제출 施政演說 金총리 國會代讀

국민便益사업을 확충

農水産·中小기업 均衡발전 중점支援

住宅 24萬戶 건설…防産 정밀兵器量産

全斗煥대통령은 4일『새해에는 物價안정의기조를 견지하면서 성장을추구해 나가겠다』고 밝히고『換率과通貨등 여러가지 정책變數의안정적인 운용만 이루어진다면 새해의물가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한자리숫자의 안정된 수준이될것』이라고 전망하고 올해의 경제성장률은 6%내외에 이를 것으로내다봤다。 全대통령은 이날하오 국회본회의에서 83년도 예산안제출에 즈음한 施政연설(金相浹국무총리代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정부는 새해가 제2의 跳躍을 향해 전진하는 한해가되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나갈것』이며 새해경제시책을 펴 나감에있어 안정기조를 더욱 다져가면서 성장노력을 계속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계속、民正黨의 陳懿鍾정책위의장、民韓黨의 李泰九부총재、국민당의 申喆均사무총장으로부터 현시국과 각종 현안문제에 대한 각黨의 기본입장에대한 대표연설을 들은뒤 6일부터 與野의원들이 나서 13일까지 對정부질문을 벌인다。

全대통령은 이날 施政연설에서『우리나라 경제에 있어 매년 40만 내지 50만명씩 늘어나는 경제활동인구를 흡수하고 국민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연평균 7~8%의 실질성장이 지속돼야 하겠다』고 강조하고 10조5천1백70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은 ▲농어민생산부문의 생산기반확충과 중소기업지원을 통한 산업간및 기업간 균형발전 ▲의료、상수도、대중교통등 대다수 국민의 생활便益에 직결되는사업의 확충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착실한추진 ▲도로、항만、철도와 用水개발사업등 사회간접자본투자의 지역간 균형 ▲과학기술개발투자의 확대와 인력개발의 적극화 ▲국가안보강화와 치안행정개선에 역점을 두어 편성됐다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韓美관계에 언급、『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韓美상호방위조약을 根幹으로 안보를 비롯한 각종 협력체제를 한층 공고히하고 名實相符한 동반자관계를유지、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어『日本과의 관계를살펴보면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밀접한관계에있는 韓日양국이 호혜평등과 상호존중의자세로 선린우호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켜나가는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이런 관점에서 日本역사교과서 歪曲記述문제는 양국관계를위해 매우 유감스러운일이라 생각하며 日本정부가 歪曲記述부분을책임지고 시정하겠다고 약속했으므로 우리는 그들이 구체적인 是正조치를 조속히 취하도록 외교적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것』이라고 다짐했다。

全대통령은 南北통일문제에 관해 언급하는가운데『정부는 새해에도 공산권동포에 대한 門戶개방과 함께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 및 회담과 민족화합민주통일 방안의 실현을위해 최선의노력을 다할것』이라고 밝히고 국방시책에 대해서는『방위산업을 계속육성함으로써 高度精密兵器의 연구개발과 量産체제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사회복지시책에 언급、취업연령의 모든 국민에대한 일자리를보장하고 집없는 국민들에대한 주택공급을 늘려가며 교육과국민의료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社會救護를 넓혀가는것등을 중요과제로 삼고있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을 확충키 위해서는 公共부문에서 9만호를 건설하고 민간부문에서 15만호내외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주택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各黨、施政연설論評

각정당은 4일 정부의 새해施政연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성명을 통해 논평했다。

▲民正黨 金琫泰대변인= 太平洋시대를 위한 協力體制구축、농촌경제를 위한 복합營農、의료보험및 교육시설의 擴充、民族文化의 正統性확립등은 超緊縮예산속에서도 괄목할 정책이다。

▲民韓黨 金珍培 대변인= 경제사회분야에 관해 많은관심을 보이면서도 적정지표의 첫째로 내세운 민주주의토착화에 관해 자세한 언급이 없는것이 아쉽다。

▲국민당 李成一 대변인= 국민적 총력을 집결시키고민족화합을 이룩하려는 의지의 천명이 다소 미흡한 감이 들며 5천5백억원의 적자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음을 유감으로생각한다。

◇全斗煥 대통령이 공군○○기지를시찰, 장병들과 악수를나누며격려하고있다。

操縱士들 격려 全대통령、基地시찰

全斗煥대통령은 일요일인 3일 중부지역에있는 공군○○기지를 예고없이 시찰、기지단장으로부터 連休중의 기지단경비상황을 보고받고 비상근무중인 조종사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들을 격려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상오 기지단본부에도착、하오까지 4시간동안 연휴중의 기지단경비태세를 살펴보면서 특히 기지단의 3分및 5分대기조가 대기하고 있는곳에 들러 이들을 격려하고 연휴중의 근무를 더욱철저히 해줄것을 당부했다。

보스턴大總長 접견

全斗煥대통령은 4일 하오 청와대에서 미국 보스턴대학교의 존·실버총장을 접견하고 환담했다。

79명搭乘 이란軍輸送機 피납

사르자空港서對峙 身元未詳 2명 美亡命요청

【아부다비5日AP=聯合】79명이 탑승한 이란공군의 C130 허큘리스수송기가 납치되어 4일 아부다비의 두바이공항에 일시 착륙했다가 행선지미상의 방향으로 떠났다고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WAM통신이 보도했다。

왐통신은 공식소식통을 인용、이 비행기가 연료가 떨어졌다는 조종사의 무전연락에 뒤이어 두바이공항에 착륙했다고 전하고 비행기가 착륙한후 두바이 공항관제탑에서 이비행기가 납치되어 있음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신원이 밝혀지지않은 2명의 납치범들은 이란에서 망명했으며 미국에 망명처를요청한것으로 전해졌다。

왐통신은 납치범들이 두바이공항을 떠나기전에 어린이 26명과 여성19명등 일부승객을 석방했는데 석방된 탑승자의 확실한 숫자와 납치범들의 숫자는 밝혀지지 않고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납치된 수송기는 두바이공항을 이륙한지 3시간뒤 두바이공항에서 30㎞떨어진 사르자공항에 착륙했다。 사르자공항관리들은『공항책임자들이 피납비행기주변으로 나가있지만 아직 비행기에서 아무도 나오지않고있다』고 말했다。

"韓日각료회담 開催"

양국外相합의 關係개선 노력하기로

【뉴욕=金泰雄특파원】李範錫외무장관과 사꾸라우찌·요시오(櫻內義雄)일본외상은 2일상오 8시30분(한국시간 하오9시30분) 뉴욕의 피에르호텔에서 1시간30분동안 회담을 갖고 日本의역사교과서歪曲문제로 疎遠해진 양국관계를 개선키 위해 필요한 모든 외교적노력을기울이기로 합의했다。

李장관은『소원해진 韓日관계를 개선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교과서의 歪曲문제부분을 일본정부가 성의와책임을 갖고 시정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사꾸라우찌 외상도 한국정부의입장에 이해를 표시하며『미야자와(宮澤)관방장관의 담화내용에의거、성의를 갖고 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양국外相은 또 양국간의현안을 토의하기위해 82년도韓日정기각료회담을 개최하기로 의견을모으고 개최시기등 구체적인 日程은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키로했다。

또한 韓日經協문제에 대해서는 양국이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날 회담에서 李長官은 全斗煥대통령의 아프리카및 캐나다 巡訪결과를 설명했으며 사꾸라우찌외상은 스즈끼(鈴木)수상의 中共방문결과와 中共·북한관계및 日·中共관계를 설명했다。

이날 韓日외상회담에는 한국측에서 李時榮국제기구조약국장 蘇炳龍유엔대표부참사관이、일본측에선 나까시마(中島)본부 대기대사와 오꾸라(大倉)北東亞과장이 배석했다。

李外務、런던着 대처禮訪·外相회담

李範錫외무장관은 9일간의 뉴욕방문을 마치고 영국을 공식방문차 4일상오(한국시간) 런던에 도착했다。

李장관은 이날하오 대처수상을 예방、양국의 상호관심사를 협의한데 이어 프란시스·핌외상과 韓英외상회담을 갖고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정세전반을 검토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증진등 관계강화방안을 협의했다。

李장관은 5일(한국시간) 런던의 영국王室 국제문제연구소에서「국제정세및 한반도문제」에 관한 강연을 갖는다。

韓·日議聯총회 12월7~8일

韓日의원연맹은 지난달 7·8일로 예정했다가 교과서波動으로 연기한 東京총회를 오는12월7·8일 이틀간 열기로했다。

東京에서 열렸던 韓日의원연맹교과서 歪曲시정 합동회의에 참석하고귀국한 朴敬錫부간사장은 東京총회이전까지 양국의문화교류 기금을 발족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교과서是正合同회의에서는 한국정부가 요청한 39개항목중 특히「즉각是正」을 요구한 13개항목에 대해 日本측으로 부터 是正노력의 약속을 받았다고전했다。

지난달 30일 渡日한日本교과서왜곡시정대책特委의 李大淳 朴敬錫 李亨熙(이상民正) 金文錫(民韓)趙炳鳳의원(국민)등 5명은 양국의원연맹 교과서特委 제1차합동회의에 참석한뒤 3일하오귀국했다。

輸出회복勢속 LC來到줄어 商工部 9월集計

9월중 수출은 회복세를 보이고있으나 수출주문은 아직도 부진한상태에 머물러있는것으로 나타났다。

4일 상공부가 집계한 지난9월중 수출실적은 20억4천5백만달러로 전년 같은달보다 10·3%가 늘었다。

이에대해 수출신용장 내도액은 11억7천9백만달러로 부진했던 작년9월보다도 다시 1·9%가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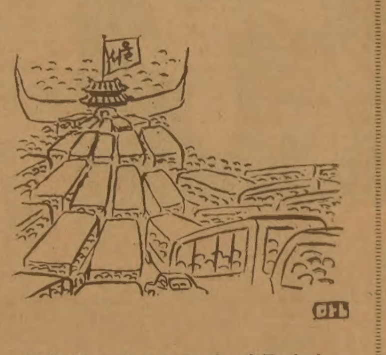
버마外相 9일訪韓

우·칫·라잉 버마外相이 李範錫 외무장관의 초청으로 오는 9일 訪韓한다고 외무부가 4일 발표했다。

◇우·칫·라잉外相

우·칫·라잉外相은 5일간의 滯韓기간중 全斗煥대통령과 金相浹 국무총리를 예방하며 李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국기업의 버마 댐건설및木材개발참여등 양국간의 실질협력문제와 우호증진 방안을 협의한다。

社會漫評



連休끝./가고오는데 이틀빼니…

地平線

기업체의 절반이 문을 닫는것이 프랑스의 8월이다。 덕분에 산업활동은 38%나 뚝떨어진다。 수출도 25%가 떨어진다。 세계적으로 유별난 바캉스·붐때문이다。 작년7월말의 주말에는 파리교외의고속도로에 자동차가 2백20㎞ 다시말해서 5백50리나 줄섰었다。 산업체의 절반이나 한달동안 문을 닫는데서야 나라꼴이 되겠느냐는 반성의소리가 들린것도 당연하다。

▼바닷가나 산의휴양지로 프랑스사람들이 대이동을 하는것은 7월중순에서 8월말까지。 보다못한 시라크수상이 8년전「휴가를 분산시키자」고 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프랑스사람들은 들은척도 하지않았다。『사람들은 남들이 휴가떠날때 떠나려한다』고 레저성의 솔로몬이라는사람은 한탄했다。 말하자면 일종의「너도나도」풍조다。

▼지난주말 추석연휴때 서울서는2백50만명이 떼지어 시골로 내려갔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빠져나간「귀성객」은 자그마치 6백만명이나 된다는 짐작도 있다。 손쉽게 어림잡아 국민 여섯사람중에 한사람은 나들이를 했다는 계산이 된다。 프랑스의 유별난 바캉스 바람에 지지않을「인구의 대이동」이 벌어졌던 셈이다。

▼올해의 엄청난 추석여행행렬은 사흘동안의 연휴가 겹쳤기 때문이라고 볼수있다。 모두가 추석 귀성객이라기보다는 연휴를 즐기려는 초가을 행락행렬이 겹쳤던 것이다。 프랑스 레저성의 솔로몬이란 전문가의 말대로「너도 나도」바람에 밀려 간 행락객도 한몫 끼였다고 할수있다。 좋게보자면 소득이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하겠지만、문제가 없는것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사실은 그 엄청난 사람의 수라고 하겠다。 서울의경우 시민 네 사람중에 한사람이 빠져나간 거리는 잔치가 끝난 뒤의 파장처럼 한산했다。 유난히 북적대다가 갑자기 사람이 줄어드니까 유난히 한산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추석철 떼지어 나들이를 가는 행렬을 보고 엄청난 인구문제와 도시문제를 새삼 느끼지않은 사람은 드물것이다。

▼정부는 수도권정비법을 만들어 서울이 더 이상 팽창하지않도록 하고、내무부의 행정조직을 동원해서 가족계획운동을 뒷받침하기로 작정했다。 인구문제에 정부가 새로운 인식을 갖게됐다는 뜻에서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인구문제란 대가족제도의 유산을 제도적으로 청산하지않는한 풀수없는 것이다。 소득세의 人的공제、의료보험부담、장학금등을 인구정책에 맞게 재검토해야할 것이다。 추석행렬이 새로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独立紀念館건립誠金

우리의 작은精誠… 큰뜻 이루게

湖南精油(株) (具平會사장 임직원 일동) 2千26萬원

具平會씨

李壯均씨

◇宋 范씨

<4일접수>

접수電話 722-4171

럭키엔지니어링 임직원 일동 1백58만원

三千里機械工業 李壯均사장 외 2백 만 원

東電産業(株) 朴瑩淳대표 외 1백28만원

젯다 한국인 학교 千3백리얄

서울 대조국교 전교생 24만원

(株)三韓企劃 임직원 22만원

北阿峴3동 마을金庫 12만원

三協建築 설계사무소 12만원

식용유동업자조합 江西 10만원

南加佐2洞 마을金庫 10만원

가톨릭醫大부속聖바오로病院 方鎔子원장 외 71만원

國立무용단 宋范단장 외 단원일동 55만원

▲湖南精油(株) 社長具平會씨外 任職員一同=2천26만9천8백40원

▲럭키엔지니어링(株)任職員一同=1백58만7천4백10원

▲三千里機械工業(株) 社長 李壯均씨外 任職員一同=2백만9백원

▲東電産業(株) 대표이사 朴瑩淳씨=80만원 同任職員一同=48만3천9백35원

◇대조국민학교인솔교사와 어린이대표들

▲가톨릭의대부속聖바오로病院院長 方鎔子씨外職員一同=71만3천2백20원

▲국립무용단 宋范단장外단원一同=55만12원

▲在사우디 젯다한국인학교(교장이광무) 교직원6명外 학생(회장 이종원) 90명=사우디貨1천3백18리얄

▲서울대조국민학교(교장 안춘섭) 교직원및 전교생(대표6년 이인규、박선준、최윤희、장지희、인솔교사 배종선선생) 일동(2차분)=24만3천4백70원

【소년한국일보접수】

▲(株)三韓企劃 사장 백경택씨外직원一同=22만5천원

▲西大門區北阿峴3洞마을金庫이사장 金龍祚씨外 任職員一同=12만5천원

▲三協建築設計事務所 建築士 金鍾大씨外職員一同=12만3천원

▲서울식용유동업자조합江西지부 지부장 김용돌씨外회원一同=10만1천5백원

▲西大門區南加佐2洞마을金庫(이사장 姜英洙)一同=10만원

▲恩平區水色洞山30번지 28통주민一同=5만원

▲永登浦5街동남아파트 대표崔仁順씨外 주민一同=7만원

【永登浦總局접수】

▲仁川中區内京洞6통주민一同=6만8천원 【仁川지사접수】

▲원불교원남교당학생회일동=2만5백30원

▲富川市槐安洞10번지 老人會회원一同=2만원

▲京畿道驪州郡占東面德坪1里 김교영씨=4천원

한국일보

우리그理念三健全한新聞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영업시간 : 월~토
오전10시~오후8시

아세아한약방
Health Food Center

원녹용, 생녹용, 길림산 녹용 ★다량확보

보약의 계절에 귀가정의 건강을 위하여 성심껏 봉사코저 하오니
일차 왕림 상담 있으시길 바랍니다.

●종합비타민 ●Nut 일체 ●중 풍 ●고혈압
●인 삼 ●녹 용 ●심장병 ●부인병
●웅 담 ●사 향 ●간장병 ●양기부족
●산 삼 ●홍 삼 ●비만증 ●위장병
●우황청심환 ●보 약 ●신경통

※지방에 계신 분께는 Mail Order 환영합니다.

645 BLOOR ST. W. TORONTO
☎ : (416)530-0522, 530-4900

인터뷰 인터뷰

카터행정부의 駐韓美軍철수정책에 반대, 駐韓유엔군사령부참모장직을 사임한 존·싱글러브장군, 越南패망당시 越南의 수상이었던 구엔·카오·키, 그리고 拉北됐던 미국의 정보함 푸에블로號의 로이드·부커함장등이 4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세계언론인회의에 연사로 초청돼 3일하오 金浦공항을 入京했다. 공항에서 가진 이들과의 회견내용을 간추린다. 【愛】

구엔카오키 前越南首相

美는 처음부터 勝利할政策 못세웠다
言論도 敗戰 부채질…敵에 더 도움줘

「미국은 애당초 승리할 수없었던 정책을세웠지요. 또 越南戰당기에는 美언론계의 그릇된 보도자세가패망을 재촉했어요. 월남보다는 오히려 적인 공산주의자들에게 더 친절했어요」 越南패망후 7년만에 처음으로 아시아땅이자 당시 월남을 도왔던 한국을 찾은 前월남수상 구엔·카오·키(51)씨 내외.

키씨는 패망의 탓을 미국에 돌렸지만 수상으로서의 옛豪氣는 찾아 볼 수없었다.

긴 망명생활탓인지 피로한 기색이 역력한 키씨는 『우리는 자유를 사랑했기에 공산주의자들과 싸웠고 지금 한국민들도 같은 이유에서 공산주의와 싸우고있다』고 나직이 말했다.

『지금은 양복을 입고있지만 언젠가는 전투복을입고 전쟁터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것』이라고 담담히 말하는 키씨의 눈은 날카롭게 번뜩였다.

이어 그는 현재 베트남 공산정권에 대항해 싸우고 있는 反共월남해방전선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밝히면서『월남사람들의 국민성으로 보아 공산주의를 몰아낼 때가 올 것입니다. 내가 전쟁에 나서게된다면 그땐 공산주의의 마지막이거나 나의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라고 敗將으로서의 새로운 각오를 피력했다.

키씨는 지난날 외세에조국의 운명이 좌우됐던 슬픔을 되새기는듯『앞으로는 외국으로부터는 정신적 지원과 이해만을바라며 혼자힘으로 싸우겠다』고 밝혔다.

30여분 회견하는동안 다소긴장하게보이며 남편을 응시하던 늘씬한 남방美人의 키여사는 『어디를 가나 함께 남편과 같이하며 열심히 돕고있어요. 요즘은 훌륭한 주부가되려고 노력해요』라고 말하자 키씨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되받아 처음으로 주위를 웃겼다.

미국에서 조그만 주류판매점을 경영하고있다는 키씨는 월남전당시 도와준 한국민에게 고맙다는 말을 여러번 되풀이했다.

싱글러브 前駐韓美軍참모장

駐韓美軍철수반대 所信 지금도 不變
日 軍國主義부활은 아무도 안좋아해

짧은 머리, 카랑카랑한 목소리, 다부진 눈매는 사복을 입었지만 여전히 군인의 이미지를 물씬 풍겼다.

지난77년 카터정권의 주한미군철수정책에 정면으로도전, 군복까지 벗어야만했던 존·싱글러브前駐韓미군사령부 참모장(예비역소장)은『나의 주한미군철수반대는 지금도 가장 가치있고 변함없는 소신』이라고 잘라말했다.

싱글러브장군은『최근중공과 북한이 밀접한 관계를 모색하는등 중대한 변화가 일고 있어요. 중공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까 걱정하고 있지요. 또 金日成은 아들 金正日을 후계자로 지목해놓고 중공의지지를 얻으려고하나 중공은 공산주의이념에 어긋난 개인숭배에는 반대하고 있어요』라고 「정확한 눈을 가졌다는 평」답게 한반도의 정세변화를 진단하려했다.

「못하는대로 말한다」는 싱글러브장군은『카터정권과 비교해 현 레이건행정부는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듯합니다. 그러나 행정부라는「큰배」의 방향을 움직이는데는 시간이 걸리듯 前정권으로부터 넘어온 관료체제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같다』고 레이건행정부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하는데 서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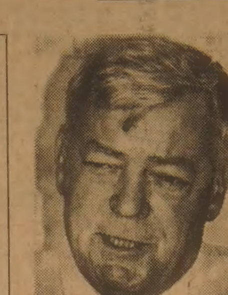
간편한 회색빛 콤비차림의 싱글러브장군은『레이건행정부는 미군철수를「연기」한 것이 아니라「취소」한것』이라고 말하고『한국정부가 미군이 불필요하다고 할때까지는 미군은떠나지 않게될 것입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이어『駐韓미군의 전력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아직까지 북한과 비교해볼때 한국군과 駐韓미군의전력이 다소 떨어지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현전력으로도 방어가 충분하다』고 자신의 군사력평가를 털어놓았다.

그는 또 일본의 군국주의의 부활움직임에 대해『아시아에서 일본군국주의의 부활을 기뻐할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고 전제하면서도 일본의 지역방위역할은 증대되어야만 한다는점도 강조했다.

영국런던에서 열린 전략문제연구소회의에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서울에들렀다는 싱글러브장군은 종래의 방한과는 다르다는점을 강조하려는 듯했다.

부커 前푸에블로號艦長



한국은 영원히 잊을수없는 제2故鄕
部下들은 아직도 후유증에 고통겪어

『푸에블로호 납치사건을 계기로 한국은 나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나라가 됐다』고 로이드·부커前푸에블로號함장(55)은 2번째의 방한소감을 말했다.

부인을 동반하고온 부커씨는 피납사건을 수기로엮어 지난70년「나의이야기」라는 책으로 출판, 한국에도 소개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하고 73년 해군에서 퇴역한후부터는 전국을 돌며 강연도하고 작가로서 글도썼으며 요사이는 고향인 네브래스카에서 화가로서 상업미술에손대며 편한 생활을 하는바람에 북괴로부터 석방될당시 57kg이었던 체중이 이젠 90kg으로 늘었죠』라고 근황을 설명했다.

상업미술을 해서인지 자주색바지와 빨간색넥타이, 노란색 콤비차림은 젊은이 못지않은 화려한것이었다.

다시 푸에블로호납치사건을 꺼내자 부커씨는『푸에블로호 납치사건이 일어나기 40시간전 청와대공격(1·21사태를 말함)이있었지요. 당시 북괴는 한국이 보복공격을할까 두려워 푸에블로호를 출동한 한국해군함정으로 오인, 선제공격을 한것으로 생각됩니다. 푸에블로호를 납치한 북괴는 처음 크게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못했으나 1주일동안 아무일이없자 안심하는것같았다』고쓰라렸던과거의기억을되살렸다.

그는 갑자기 얼굴이굳어지며『당시 20세였던 부하병사들이 지금은 30세를넘어선 가장이 되었다면서『나자신도 심한 두통과한쪽 눈의 盲點으로 고생했어요. 어느정도 완쾌되었으나 아직 후유증이남아있어요』라고 털어놨다.

『72년 일본에 주둔하고있을때 친구를 만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한 적이있어요. 꼭 10년만에 찾아왔군요. 비행기에서 내려다 본 한국의 논과 밭은 나의 고향의모습과같았어요』라고 한국과의인연을강조했다.

그는 韓美관계에 대해『미국정부가 모든분야에 걸쳐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것은 바람직한 것같아요.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는잘 모르지만 한국이 북한보다는 더많은 자유를누리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하죠』라고 말하면서『아직도 나에게 뉴스섬이 있나요』라고 보도진에게 반문해 한바탕 폭소를 터뜨리게 했다.

메아리

水性펜

金昌悅 <編輯委員>

지금 책상머리에 일본의 大入 수험생이 치르는 학력고사의 문제지와 답안지 한 장이 있다. 몇해전 일본을 취재여행했을 때의「유물」이다.

일본의 大入 학력고사는 정식명칭을 대학입학자 선발 공통제1차 학력시험이라 한다. 79년에 처음 시행한 이 시험은 우리나라의 大入예비고사(當時)를 어느정도 본딴 것이라 생각되지만, 우리같은 국가시험이 아니고, 국·공립대학협의회가 마련한 입시개혁방안에 따라 국립학교설치법을 고쳐 설립한 대학입시 센터가 주관한다. 그 이름에 나타난 대로, 각 국·공립대학은 2차시험(本考査)을 독자적으로 보이며, 학력시험 성적의 반영률도 마음대로 재량한다. 사립대학이 이 학력시험에 참여하고 말고는 학교에서 정하기에 달렸다.

이점에서 일본의 학력시험은 우리 학력고사와 다르다. 그러나 전국공통의문제로 수10만명에게 시험을 보이자면, 객관식 출제와 컴퓨터채점등, 그 운영방식이 우리와 다를수는없다.

지난번 문교부의 83학년도 大入요강이 발표된뒤, 새삼 일본에서 얻어온 학력시험문제지와 답안지를 다시찾아본것은, 이런데 생각이 미쳤기때문이다.

그문제지의 첫장은 주의사항이다. 그 ⑤는 이렇게 말한다.

『답안지의 정해진 欄밖에는 아무런 표기도 해서는안된다. 또 정정할경우에는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고 지우개밥을 깨끗이 없애주시오』

답안지에는 다시 필기도구를「H」의 검은 연필, 지우개는 플래스틱 지우개를 쓰도록 부연하고있다. 水性펜을 쓴다든가, 修正을 못한다든가하는 구차한 말은없다.

참 이상한 일이다. 한국과학기술원은 학력고사의 전산처리를 위해 작년에 최신형 채점 컴퓨터 4대를 들여 왔다. 일본 입시센터 것과 같은 기종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水性펜만을 써야 한다니….

게다가, 같은 컴퓨터로 처리하면서, 高入연합고사는 연필로 답안지를쓴다. 水性펜과 修正불허는 大入에만 있는 제약인 것이다.

그래야하는 까닭은 여러 갈래로 알아보아도 종잡을 수가 없다. 확인가능한 것은 학력고사용 컴퓨터의 성능은 흠잡을 데가 없다는 것뿐이다.

水性펜을 쓰게된 경위를 잘아는 어떤이는, 그 까닭을 感度의 문제라고 했다. 답안지를 판독하는 컴퓨터의 感度가 낮다는게 아니라, 시험결과에 반응하는 학부형들의 感度, 그에 대한 교육행정의 感度가 너무 높다는 얘기다. 이것이, 내가 듣기에, 가장 그럴싸한 설명이다.

바꿔 말하면, 大入채점은 1백% 완벽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작년처럼 성적이 발표된 뒤 줄줄이었던 학부형들의 항의, 답안지 再檢요구에 그 사정이 잘 나타나 있다. 만일 그때 한 장이라도 시비를 결정한 답안지가 나왔다면, 여러사람의 목이 달아났을지 모른다. 그러니 水性펜만을 쓰게 해서라도 시비거리를 없애야 한다. 高入연합고사는 관심이 그리 팽팽하지 않으므로 연필을 쓰게해도 말썽은 없다.

일본의 경우는 지금까지 채점시비나 再檢요구가없었다고한다. 채점관리에 대한신뢰가 그만큼 높다고 할것이다. 그신뢰를 바탕으로 연필답안의 위험부담을 수험생이 안는 꼴이다.

컴퓨터 채점의 大入제도는 자유중국에도있다. 여기서는 우리만 못한 구형컴퓨터를 쓰는 대신 再檢요구를 받아주는 기간을 둔다. 이것도 착오없는 채점의 한 방편은 되겠지만, 우리나라 같으면 난장판이 벌어질게 틀림없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학부형들의 답안지再檢요구는 하나처럼 근거없는것으로 밝혀졌다. 水性펜을 써서가 아니라, 연필을 쓴다고해도, 컴퓨터 채점의 정확성은 믿어도된다.

水性펜·답안修正불허의 학력고사는 분명 우리만의 것이다. 그 구차함은 입시때 찾아볼 수 없는 극성과 불신, 그것을 감당못하는 入試행정의 반영이다. 나랏돈을들여 官給하는 水性펜 끝에서 일그러진 우리교육의 한 단면을 보는 것같다.

스페인 不發쿠데타
高位장교3명逮捕 總選전날 음모분쇄

【마드리드UPI=聯合】스페인당국은 오는27일 총선직전에거사하여 정권을 장악하려했던 군사쿠데타음모를 분쇄하고 이음모를 주도한3명의 스페인군 고위장교를 체포했다.

스페인국방성은 3일 루이스·무노스·구티에레스 대령(58)과 헤수스·크레스포·쿠스피네라 대령(58)및 쿠스피네라 대령의 동생 호세·크레스포·쿠스피네라 중령(54)등 3명이 2일새벽 각각 자택에 연금됐다가 테러방지법에의해 구속됐다고 밝혔다.

스페인정부소식통은 작년 군사쿠데타시도사건의 주도자들과 관련을 맺고있는 이들3명의 고위장교들이 오는 27일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할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또 이번 쿠데타음모는 의회를 점령하고 난동을 부렸던 작년2월의 쿠데타시도사건때보다 음모자들은 정부의 핵심부서를장악하고 주요통신망을 차단한후 전국의 청년장교들의 호응을 얻을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소식통들은 軍정보기관은 도청장치와 기타 밝혀지지않은 방법을 동원하여 체포된 고위장교와 작년 불발쿠데타 관련자들간의 연락상황을 알아냈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레오폴도·칼보·소텔로 수상이 2일하오 內務相및 國防相등 관계각료들과 비상회의를 가진후 쿠데타음모에 대한 대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軍버스 被襲 22명 死傷

【베이루트UPI·AP=聯合】이스라엘군용버스 1대가 3일 베이루트 동남방15km지점의 베이루트─다마스커스간 고속도로상에서 로키트포와 기관총으로 무장한 괴한들로부터 기습공격을 받아 군용버스에 타고있던 이스라엘군6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했다고 이스라엘군 대변인이 밝혔다.

우익레바논의 소리방송과 국영TV는 이스라엘 군용버스가 로키트추진유탄과 자동화기공격을 받았다고 전했으며 이스라엘군대변인도 이버스가 알리아읍으로 들어가는 고속도로상의 진입로에서 이날 하오10시30분경(한국시간) 공격을 받아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을확인했다.

한 이스라엘軍소식통은 시리아軍진영이 위치한 방향에서 이같은 기습공격이 가해졌다고 주장했는데 동부 레바논주둔 시리아군에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대원들도 포함돼있다.

이번 버스피습사건은 이스라엘軍이 西베이루트에서 철수한 이래 발생한 가장 커다란피습사고이며 시리아가 이스라엘과의 동시철수에 동의했다는 보도가 나온것과 때를 같이하여 발생한것이다.

레바논방송은 또 다국적평화 유지군으로 베이루트에 진주한 프랑스軍공정대원 2명이 이날 지뢰폭발로 부상했으며 이중1명은 중태라고 보도했다.

◇妖艶한 미스濠洲 미스인터내셔널 선발대회에 참가하기위해 日本에온 미스濠洲 루앤·론치양이 3일 가와사끼(川崎)의한공원에서 화려한 비키니차림으로 등에는 濠洲국기가 그려진 의상을 펼쳐보이면서 사진작가들을위해 포즈를 취하고있다. 【가와사끼(川崎) 3日(電送)=聯合】

海外토픽

두 8旬 結婚골인
★高校때사랑 65년만에 結實

미국 아이오와주의 랜드를리프에서 65년전의 고교생간의 청순한 사랑이 최근 결혼으로 결실을 맺어 화제.

신랑 버질·옵조이(83)와 신부 그레이스·조긴슨(82)은 1백여명의 하객과 친척들이 지켜주는 가운데 혼인서약을 하고 무개마차를 타고 신혼여행길에 올랐다고.

신랑 옵조이의 딸인 재키·마크스타든은『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라면서『이들간에 사랑의 불꽃이 활짝 타올랐다』고 귀띔.

신부 그레이스의 딸인 크리스티나·알리히에따르면 이들 새신랑 신부는 고교재학시 5년간이나 사귀었으나 키스 한번 한적 없이 서로간에 애정고백없이 끝나고 말았다는것.

그런데 수년전 미망인이된 그레이스가 최근 상처를 당한 버질에게 위로편지를 한것이 계기가돼 둘 사이가 급속도로 가까와졌다는것. 【랜드를리프=UPI】

팔國건설 요르단에
★카터, 出刊될 回顧錄지적

카터 前미대통령은 곧 미국의 밴텀·북스사에 의해 출간될 그의 회고록「신념을지키며」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은 故國을 창설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팔레스타인인들의 이같은 권리를 실현시켜줄 논리적으로 타당한 유일한 장소는 요르단江西岸이라고 말한것으로 2일 밝혀졌다.

미시사주간 타임誌는 최신호에서 카터前대통령 회고록을 발췌한 기사에서 카터대통령이 만약 이스라엘이 요르단江西岸을 합법합병경우 중동사태의 평화적 타결을 모색하고 있다는 이스라엘측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판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런던=UPI】

椎名의「韓·日秘史」
日記와 外交메모로 본 그幕後 <2>

國交再開작업 14년걸려
批准되던 날 거리엔 깃발·아치도없어
條件보다"感情"이 障碍

시이나外相은 韓日국교수립을 회상하면서『이제까지 韓日양국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양국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것은 韓日조약의 내용자체 때문이 아니라 국민감정때문이었다』고 술회했다.

요시다내각과 李承晩정권시대부터 韓日회담은 역대내각의 중요한 현안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韓日국교정상화가 타결되지못한것은 근본적으로 韓日간에 국민감정이란 큰장애가 있었기때문이며 더큰문제는 그것을 뛰어넘지못하는데 있다고 시이나는 생각했다.

이제까지의 韓日회담은 일본이 현실을 출발점으로하여 미래의 양국관계를말하면 한국은 일본식민지36년간의 피해를 내세워 과거를 출발점으로 대립하는 영원한 수평선이었다.

제3차회의를 결렬로 끝낸「구보다발언」은 좋은본보기이다. 일본은 식민지통치를통해 한국에 은혜와 혜택을 주었다는 구보다의 발언에대해 한국은 그망상자체가 문제라고 자리를박차고 일어섰던 것이다.

시이나가 外相이되자 자천타천으로 韓日문제에 관해 조언하는 사람이 그주변에 많이 모여 들었다. 학자 정치가 재계인사 언론인과 몇사람의 한국인도끼여있었다. 선의의 이같은 협력자로부터 많은것을 얻어 들을수 있었다.

시이나는 일본이 한국의 역사적·감정적 문제를 연구해야하고 상대방의 논리를 이해해야만 한다고 통감했다.

古代에서 終戰까지 1천년이 넘는 농도짙은 관계와 明治이후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바뀐 양국관계에대해 쌍방의 논리와 평가가 정반대로 다르다는것을 심각히 느꼈다.

시이나는 정반대의 논리로 韓日교섭을 계속해봐야 진전이 있을수 없기때문에 상호인식을 접근시켜 가는 노력이 이번 韓日교섭의포인트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14년간의 우여곡절이 서린 협상끝에 韓日관계의 새章을 여는 韓日협정비준서가 한국의李東元외무장관과 일본의 시이나 外相에 의해 65년12월18일 中央廳제1회의실에서 엄숙히 교환됐다.

1965년12월18일 서울은 빗속에 10도. 때때로 흰눈이 뿌렸다.

국교정상화를 축하하는 깃발도 아치도 없었다. 이는긴 역사의 단절을 메우고 韓日국교수립이란 기념비적인날을 한국국민이 어떤 생각으로 맞이하려는가를 무언으로 보여주는것같았다.

피해자의 심리는 戰後20년이 지났다해서 풍화되어버릴 정도로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가혹한 나날의 생각은 祖父에서아버지로, 아버지에서 아들에 전달되어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살아있다.

모든한국인이 지녔을 愛憎과 갈등의 복잡한심리가 형용할수없는 답답한 가슴에 안은채 이날을 맞이하고 있었다.

비준교환식을 보도하는 이날 한국신문들의 제목도『우리속의 앙수』또는『하늘도 거리도 어둡다』라는 것으로, 경축과는 거리가 먼 형용사로 가득차 있었다.

거리의 어느 구석에도 경축의 정경은 없었고 시민의 반응도 굴절된 한국인의 심정을 잘 나타내 보였다.

서울의 중심가인 世宗路가 끝나갈무렵에 르네상스풍의 위용을 자랑하는 중앙청은 엄숙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상오 10시30분부터 시이나─李東元외상을 수석으로하여 국교수립을 위한 최후의 세리모니인 비준교환식이 거행됐다.

식장은 3층의 제1회의실. 20년전 9월9일 최후의 일본총독 아베(安部)와 조선군사령관이 하지중장에 항복문서를건네준 방이다. 36년간에걸친 일본의 한국지배가 막을 내린 바로 그 장소였다. 진홍색주단이 깔린 이 방에는 일장기와 태극기가 걸려있었고 해병대 브라스밴드가 한국민요인 아리랑을 연주했다.

시이나외상을 선두로 일본대표단과 李장관을 선두로한 한국대표단이 입장하고 계속해서 丁一權총리이한 전각료와 마에오(前尾繁三郞) 단장이하 일본측 고문단 수행원이 각각 자리를 잡은뒤 式典이 열렸다.

브라스밴드는 양국국가를 연주했다. 한국에서처음으로 연주되는 일본국가였다.

시이나와 李수석대표앞에는두꺼운 서류가 놓여졌다. 韓日기본조약과 어업협정, 청구권, 경제협력협정, 在日한국인의 법적지위협정, 문화재·문화협정등 30㎝가 넘는 5권의 서류가 쌓여졌다.

양측 수석은 높이쌓인문서를 상호교환하고 비준서교환을 끝냈다는 확인문서에 양국外相이 펜으로 서명한뒤 일어나 악수했다. 이순간 韓日양국의 국교수립이 성립된 것이다.

일본신문은「萬感이 교차하는 순간」이라고 제목을달았다. 양국의 국교정상화교섭이 시작된지 14년만에가깝고도 가장 먼나라인 韓日양국은 戰後2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차가운 손을 잡았던 것이다. 【東京=宋孝彬특파원】

김명숙회계사무소
이전 공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코자 아래와 같이 사무실을 이전했읍니다.
Tax Return, Bookkeeping, Accounting등 제반 회계업무와 세무및 경영상담등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왕림하시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명 숙 배

이전장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블루아지점 3층)
☎ : (B)534-3760, (R)669-2710

FIRST AUTO SERVICE
AUTO BODY SHOP
REPAIR

제일오토바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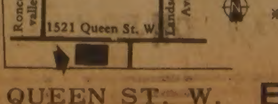
겨울맞이 특별 튠업 세일

교민여러분의 많은 성원에 보답코저 다가오는 겨울을 맞아 특별기간을 설정해 아래와 같이 염가봉사하오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바랍니다.

※기간 : 1개월간.
일반차량 : 8기통… $49.95
6기통… $42.95
4기통… $36.95

*물론 튠납시 엔진샴푸도 포함.

※오일및 휠터 교환 튜브리케이숀 $16.95 Regular에 한함.)



1521 QUEEN ST. W. B)532-0200, R)537-5830

女敎者 칼럼

張明秀

당신의 웨딩드레스를 보내주세요

누구나 참석해보면 「지금까지 본것중 가장 감동적인 결혼식」이라고 말하는 결혼식이 있다. 신랑도 신부도 대부분 생활의 방법에 그을린 모습이고, 축하객도 많지않고, 신랑신부의 자녀들이 참석하기도 한는 무료결혼식」. 이상하게도 이 결혼식은 신랑신부는 물론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적셔주는데가 많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무료결혼식을 시작한것은 17년전 10월, 만 17년이 되는 오늘까지 1,?쌍이 이곳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오랜 상담을 통해 결혼식을 올리지않고 사는 사실혼부부의 파탄이 많다는것을 알게된 가정법률상담소는 여의도 강변에 자체회관을 갖게되자 가정파탄예방사업의 하나로 가난한 연인, 가난한 부부들에게 결혼식을 올려주기 시작했었다.

무료결혼식이라지만 이곳에서의 결혼식은 자원봉사자들의 정성속에 빈틈없이 진행된다. 예식장은 물론 주례, 사회, 피아노반주, 꽃다발, 웨딩드레스와 신랑양복, 신부화장, 혼인신고용지까지 준비되어 있기때문에 신랑신부는 「사랑의 굳은 맹세」란 가슴에 품고오면 된다.

이 결혼식을 위해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은 주부들이 대부분이고 주례는 주로 목사님들이 맡아주고 있다. 주부들은 각기 자기 솜씨에따라 사회도 맡고, 피아노반주도 맡고, 꽃다발도 만들고, 신부화장도 시켜주고, 축하객이 되어 기뻐해 주기도 한다.

결혼식을 올리는 사람들중엔 결혼생활 10년이 넘는 중년의 부부들도 있고, 결혼 비용이 없어 결혼을 미루던 젊은연인들도 있다. 특히 공단지역 근로자들의 결혼비용지원을 덜어주기위해 무료결혼식을 알리고있기때문에 근로자들의 신청도 많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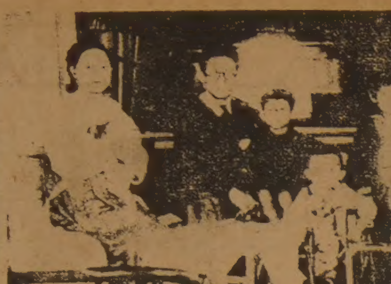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결혼식은 왜 그처럼 중요한 뜻을 갖는 것일까. 결혼식을 올린 부부들은 자신이 결혼식을 올렸다는 것을 잊고 살지만,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부부들은 꿈에도 그것을 잊지않는다. 「웨딩드레스한번 못입어봤다」는것은 여자들이 할머니가 되어서까지 한으로 삼는일이고, 그때문에 남편과 싸우다가 서러워했다는기사도 신문에서 가끔읽게된다.

결혼식은 「두사람」의 약속을 주위에 알리는 공식행사에 불과하지만,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는 떳떳치못한 불안감은 결혼자체를 파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웨딩드레스 한번 못입어본, 아이들 앞에 결혼사진 한장 못보여주는게 한이었던 나이든 신부들은 무료결혼식에서 신부화장을 하고 드레스를 입는순간 일생의 한을 터뜨리곤 한다.

지금 상담소가 갖고있는 10여벌의 드레스와 신랑양복들은 모두 국내외의 주부들이 그들의 결혼식때 입었던 소중한 옷들을 보내준것이다. 그러나 이옷들로는 신랑신부들의 체형을 일일이 맞추기 힘들 가 많다. 아름다운 추억이 담긴 웨딩드레스는 누구나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은 것이지만 자신의 드레스가 다른 여성들에게 「웨딩드레스 한번 입어보고싶은 소원」을 풀어줄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된 일일까. 결혼시즌인 10월을 맞아 많은분들이 자신의 웨딩드레스, 신랑양복, 한복두루마기를 보내주기를 기대해본다.

【가정법률상담소 전화번호는 [illegible]】



◇李李石의 가족 사진. 오른쪽 끝이 李鄕美씨.

며느리도 내자식인데 시어머니가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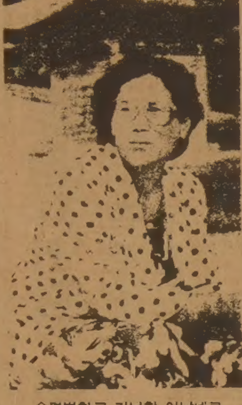
손남진 할머니의 犧牲的사랑 묘사

李石기념山莊 계획

行商하며 王家긍지

社會事業구상중

不和한 姑婦에 敎訓



◇평범하고 가난한 아낙네로 살아가는 朝鮮왕조의 마지막며느리 黃廣生씨.

일하며 생각하며

「아무리 急해도 차례를 기다리는 美德」 우리도 본받아야

金良植 <詩人>

여름의 구라파는 온 세계의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기라도 한듯 온통 북적거렸다.

검둥이, 흰둥이, 누런이등 빛깔이 서로 다른 人種들의 물결이 끊임없이 파도치고 있었다. 거기에 연령층도 각기 다른 남녀노소이니 이루 그 다양함은 필설로 표현하기 어려울정도다.

한달간의 구라파여행을 하는동안 검은 빛깔은 검은 빛깔대로 더 검거나 좀 덜 검거나해서 아프리카, 인도, 남미, 중동인들을 그런대로 식별할수 있는눈이 생겼다.

이러한 유색인종들의 대거 이주나 방문으로 화사한도시인 파리도, 엄숙했던 런던도 각기 그도시의 전체적인 色調가 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정도로 유색인종의 인구는 증가일로에있다. 심지어 많은 노동력을 그들에게 의지하고 있는 형편이며 어떤 사람은 영국이나 프랑스는 모두 그들의 식민지하에 들어있던 민족들에게 차츰 보복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극단적인 말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각 인종들의 커다란 물결이 이루어져 유유히 흐르고있는 人波속에 또하나 크게 눈에 띄는것은 세계의 젊은이들이었다.

그들은 하나의 위축이라든가 구김살이라든가 하는 單語들과는 아주 거리가 먼 친구들이었다. 역 대합실에서는 어느곳이나 보고 난 신문지를 깔고 엎드려서 친구나 가족에게 엽서를 쓰고 때로는 책을 읽고있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자주 볼수 있었다. 그들 옆에는 언제나 길다란 프랑스 빵과 식수 한병, 이것이면 식사는 해결이 되기 때문이다. 기차나 배를 탈때에도 빵과 식수는 그들의 필수품으로서 한 아름씩 안고 다녀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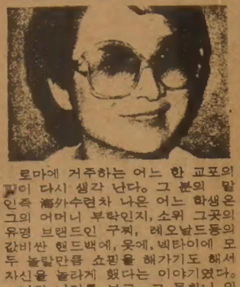
구름처럼 몰려드는 관광객들, 그 안온 이러한 실비여행을 감행하는 학생들이나 어디서고 미 모든 사람들은 질서정연한 데 감탄하지 않을수 없다. 아무리 바빠도 내가 한발 먼저 가겠다는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다만 성미가 급한 중동사람들을 빼놓고는 앞 다투어 밀치고 나가는 사람은 없다. 아무리 급해도 기다려야할 때는 기다려 줄을 앉아야한다는 敎訓을 이번 여름의 구라파 여행 길에서 다시 배웠다.

나는 그러한 여객틈에 끼어 페리보트를 타고 도버海峽을 왕복하면서 문득 한국이 낳은 물개라고 한 조오련선수가 그 도버해협을 헤엄쳐 건너겠다는 신문기사 생각을 했다. 그리고 넘실거리는 그 해협의 파도가 잔잔해 줄것을 마음 속으로 빌었다.

어디에서나 세계의젊은이들은 당당했다. 그들 등에 업은 륙색에는 그들 나라의 국기가 각각 선명하고 자랑스럽게 같이 업혀 다니고 있었다. 「나는 이 나라의 국민이요」라고 보란듯이 표시하고 다니는 것을 볼때마다 우리의 젊은이들도 다음 여름에는 반드시 이세계의 젊은이들의 대열에 끼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길을 나서면 물론 고생이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그러한 隊列에 끼여 웬만한 고생을 하며 세계를 배우고 다닐 수 있는 용기와 정열과 자유를 소유해야 한다. 젊은이들의 이러한 특권을 우리 기성세대는 막아서는 안되며 또한 절대로 그러한 특권에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겠다.

그런데 어떠한가.



로마에 거주하는 어느 한 교포의 말이 다시 생각 난다. 그 분의 말인즉 海外수련차 나온 어느 학생은 그의 어머니 부탁인지, 소위 그곳의 유명 브랜드인 구찌, 레오날드등의 값비싼 핸드백에, 옷에, 넥타이에 모두 놀랄만큼 쇼핑을 해가기도 해서 자신을 놀라게 했다는 이야기였다.

남의 나라를 보고 그 문화나 의식들을 배우고 비교하고 연구하라고 보내는 海外수련이거늘 그러한 진지한 학구적인 태도는 볼수없었다는 것은 슬픈일이 아닐수 없다. 더구나 그런 터무니없는 쇼핑을 하게끔 시사한 그 어머니가 더욱 한심스럽다고 한탄하게된다.

이는 결국 우리의 의식구조의 문제라하겠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상품은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는것도 이번여행에서 재차확인한바 있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와 현대화에 보다 긍정적인 자부심을 가져도 조금도 잘못이 아니란것을 각기 자각하고 보다 자신있는 삶을 營爲하며 나가야할것이다.

고침 29일자 본란의 필자 鄭英淑씨는 「유치원 보모」가 아니고 「유치원 교사」의 잘못이었기에 바로 잡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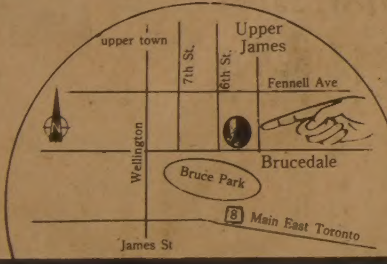
"해밀톤에 한인식품점이 생깁니다"

교포여러분, 특히 HAMILTON거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는10월 초순께 **해밀톤 서울식품** 을 **OPEN** 하게 되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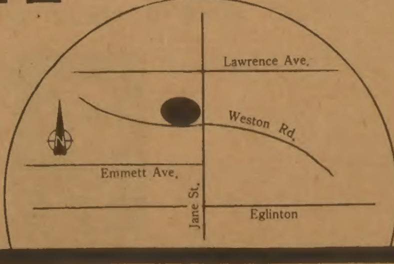
성심성의껏 **저렴한 가격** 으로 봉사할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지도와 편달있 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밀톤·서울식품이 OPEN될 때까지 **서부 서울식품(☎ : 243-9544)** 에서 **전화 주문시 배달** 하겠사오니, 아무리 적은 주문이라도 서슴치 마시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박인조 올림



해밀톤·서울식품
128 BRUCEDALE AVE. E
☎ : 1-385-1485

서부·서울식품
1391 WESTON RD
(로렌스×웨스톤)
☎ : 243-9544



새 예루살렘 교회

창립 1주년기념 성회

강사 : 데이비드·메인스목사(David Mainse)

통역 : 김승환목사

강사소개 : 데이비드 메인스목사님은 캐나다전역과 미국등지에 방영되고 있는 "100 HUNTELY STREET"TV프로그램(GLOBAL TV : 매일 오전9시30분~10시30분)의 창설자이자 사회자입니다. 그외에 "CROSSROADS"와 어린이 프로그램 "CIRCLE SQUARE"등을 통해서도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종입니다.

주님께서 테레비선교 할 것을 미리 환상으로 보여 주심으로 TV방영하는 시작의 동기가 되었다고 간증하는 목사님은 특히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우리 한인 교포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읍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초청합니다. 특히 중·고등·대학생들은 많이 참석키 바라며 꼭 오셔서 모두 구원의 체험과 성령세례 받는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회시간이 토요일(10월9일)하루만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 1982년10월9일(토)오후7시30분

장소 : 새 예루살렘교회(5 GRENOBLE DR. DON MILLS)

☎ : 429~2685 · 429~1430

◉교회약도

※뻐스를 이용하실분은 Pape(써브웨이) 정거장에서 「돈밀」북쪽으로 가는 25번 뻐스를 갈아타고 싸이언스 센타 1블럭 전에있는 후레밍돈·팍 샤핑 센타 앞에서 내리면 교회가 보입니다.

새 예루살렘 교회 담임목회자 김승환및 교우일동

秋夕썰물人波 밀물로 돌아와
서울은 다시滿員

歸京길 거북이걸음
고속도로 車輛밀려 延着소동

한가위 연휴사흘동안 썰물처럼 빠져나갔던 2백50만인파와 차량이 밀물처럼돌아와 서울은다시만원도시가됐다。

사상처음으로 부리치·데이 인휴가 실시된 올 추석에는 많은 시민들이 여유있게 성묘를하고 근교나 유원지를찾아 가을정취를 만끽하기도했다. 연휴 마지막날인 3일전국의 도로는 고향을떠나 서울로 돌아오는 귀경객을실은 차량으로 붐볐고 특히 경기 安城에서 서울까지 55km의경부고속도로 2차선은 주행선 추월선 할것없이 버스·승용차등 차량들로 메워져 평소보다 3~4시간 늦게 서울에 도착했다.

이날 江南고속버스터미널에는 하오3시부터 평균3분에 1대씩 고속버스가 도착, 터미널일대는 택시와 버스를 타려는 귀경인파로 큰혼잡을 빚었으며 東部터미널에도 설악산과 동해안을찾았던 관광객까지 겹쳐 크게 붐볐다。

추석연휴 사흘동안 전국에서는 모두 9백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52명이 숨지고 9백4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4일 치안본부에의하면 추석하룻동안에는 3백2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작년의 3백89건에 비해 16.7%가 감소된 숫자다。

3일간 발생한 강력사건은 살인5건을 비롯, 5백10건이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4백84명이 검거됐다。

엔젤7號 기관고장 出航10분뒤 海上서

【忠武】3일 하오 3시45분께 忠武항앞바다에서 부산으로가던 한려개발소속 엔젤7호(선장 여영부·36)가 기관고장을일으켜 20여분간 움직이지못하다가 忠武항으로 되돌아왔다。

이날 1백60톤의 쾌속선 엔젤7호는 출항한지 10분만에 忠武항에서 1마일떨어진 바다에서 엔진과 연결된 고압파이프밸브가 터졌는데 엔젤7호는 응급조치후 忠武항으로 되돌아와 승객80명에게요금을 환불했다。【聯合】

製菓店불 1명燒死

【釜山】4일새벽 1시29분께 부산시中區中央洞2街49 현대과자점에서 원인모를 불이나 점포에서 잠자던 종업원 조영해군(18)이불에타숨지고 4백여만원상당의재산피해를 낸뒤10분만에꺼졌다。【聯合】

看手없는 건널목서 시내버스·列車충돌
保寧郡서, 3명숨져

【大川】4일상오10시 25분께충남 保寧郡周浦面馬江里 철도건널목에서 서울행 제4008호 임시열차와 大川여객소속 충남5자3509호 시내버스가 충돌, 버스승객 최순홍군(17·保寧郡嵋山面 蘇城里)등 3명이 숨지고 이명숙씨(27·여·瑞山郡安面 高南里)등 5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날사고는 嵋川을떠나 大川으로가던 시내버스가 건널목에서 일단정지를 무시하고 그대로 달리다 열차와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를낸 열차는 빈차로 피해가 없었고 버스에는 62명이 타고있었으며 9명만이 무사하고 나머지 승객이 모두 피해를 입었다。

한편 사고원인을 조사중인 경찰은 사고지점이 3종건널목으로 차단기와 간수가 없는 점으로 미뤄경보장치의작동여부와 운전사의 과실등을 조사하고 있다。【聯】

調達廳직원 넷拘束
醫療器구매싸고 千여萬원 받아

대검중앙수사부는 4일 조달청외자부 외자1과장 金昊榛씨(45·서기관)등 조달청직원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에게 뇌물을준 서울中區乙支路3街286의2 和信기계상사사장朴洪來씨(51)상무李宰求씨(43)등2명을뇌물공여혐의로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의하면 외자1과장 金씨는 지난해12월부터 지난6월까지 3차례에 걸쳐 和信기계상사상무 李씨로부터 이회사가 백혈구분류기등 의료기기 7억여원어치를 구매하는데 협조해준 사례금조로 2백2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밖에 조달청외자부 심사과계장 金斗鎔씨(42)는 지난6월 이회사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백만원을, 외자1과 수사 曺輔煥씨(34)는 4백만원을, 심사과 기사 方龍勳씨(32)가 2백50만원등 모두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부부싸움끝에 夫人살해 남편은 自殺기도…重態

【光州】3일 밤9시40분께 光州市西區農城洞 서모씨(43)집에 세들어사는 鄭漢東씨(47)가 부인 金三禮여인(40)과 말다툼을 하다 칼로 金여인의 가슴을 찔러 숨지게한뒤 사신도 좌측복과 가슴을찔러 자살을 시도했으나중태다。【聯】

뉴욕「한국의 날」 화려한 퍼레이드

【뉴욕=崔卜林기자】뉴욕의 제3회 한국의 날 퍼레이드가 2일낮 시내번화가 브로드웨이에서 화려하게 펼쳐져 미국사회에 우리문화를 소개하는 한편 현지한인사회의 뻗어나는 모습을 유감없이 과시했다。

뉴욕한인회가 주최하고 한국일보지사가 주관한 이번퍼레이드에는 에드워드·카치 뉴욕시장이 축제장으로 행사를 선도했으며 1백50여교포단체에서 3천여명이 참가, 운집한 교포와미국인등 1만여명을 열광시켰다。

화창한 가을 햇살을받으며 브로드웨이42번가를 출발한 행렬이 한국인 상가밀집지역인 32번가에 이르자 5색테이프가 이웃건물에서 쏟아져 한층 흥을 돋우었다。

이번행사는 한미수교 1백주년기념도 겸해서 바라춤등 우리민속을 소개하는 팀이많았으며 여러단체에서 마련한 꽃수레도 21대나 참가했다。

"民族긍지·自尊 과시하자"
全대통령, 開天節기념 경축사

全斗煥대통령은 3일 서울世宗문화회관에서 있은 제4314주년 開天節기념식 경축사(金相浹국무총리대독)를 통해 『우리는 이땅에 민족의 한사람으로 태어난 긍지를 다시한번 되새기면서 제5공화국의 國政지표인 민주복지국가건설을 앞당겨 성취하여 민족적 자존의 실체와 역량을 내외에 과시해야 할것』이라고 강조 하고 『우리는 지금 반만년의 民族史를 영위해 온 선조들의 값진 교훈과 유산을 오늘에 되살려 다시한번 세계를 향해 雄飛할 역사적 시점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사진】

全대통령은 또 『우리를 둘러싼 국제환경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각박하고 민족사수호에 대한 위협도 그 어느때보다 세찬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사주정신과 역사의식에 투철하고 우리의 위대했던 선인들처럼 슬기와 용기로써 이에 대처해나간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오히려 한단계 높이 도약할 수있는 기회로 승화시켜 나갈수 있을것』이라고 강조했다。

外務部、수확기寄贈

외무부는 지난달22일 외무부직원들이 농촌일손돕기운동으로 벼베기를 도와주었던 江原道原城郡文幕面 농민들을 위해 전직원이 모금한1백20만원으로 수확기 1대를 구입, 4일 河校鎭 原城군수를 통해 기증했다。

醫師·약사·運轉등 각종免許·자격증
거주지 申告해야 交付

內務部、내년부터… 義務化 강력시행

내년부터 의사나 약사의면허, 운전면허등 각종면허와 자격을 취득한사람은 자신의 주민등록지에 신고를 마쳐야 자격및 면허증을발급받을수 있다。지금까지는 각종법규에 규정된 특수기술자격, 면허를 취득한사람은 해당발급기관에서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발급받았었다。그러나 지난81년5월 내무부가 전국기술인력의 실태와 동원체제를 정비하기위해 이같은자격이나 면허를갖고있는사람은 주민등록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는데 이 신고의무제가잘지켜지지 않을뿐만아니라 부작용이 잇따라 내무부가 관계기관과협의, 이같이 발급제도를 개정한 것이다。

이에따라 특수기술자격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면허증 취득증」을 일단 발급받아이를 해당주민등록지에가서 신고를한뒤 노동부에가서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발급받아야한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11월한달동안을 일제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 신고를 하지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받지않도록했다。신고대상은 모두 2백70종 1천2백54개 직종으로서 면허가 5개분야에 85개, 자격은 21개분야에 1천1백여직종이며 대상인원은 전국적으로 2백50만명 가량이다。

그중 면허5개분야는 의료에너지 해양 조종 운전기타(토지평가사·건축사·주조사·수의사·임상병리사·영화기사등)로 돼있고 자격21개분야는 기계 금속 화공 전기 통신 선반 항공 목공 섬유 에너지 안전관리 생산관리사업용등에서 공인회계사 보험계리인 환지사 사타자수 주산능력 속기사등까지 포함돼있다。

내무부의 이러한 방침은 주민등록법을 원용한 현행신고제도가 신고기간을 어기고도 자진신고하는 사람에게만 과태료를 물리고 신고를하지않는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없는등 불공평하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위한 것이다。

내무부는 주민등록법 7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기술자격취득자의신고)에 따라 신고제도를 시행해오고있는데 취득후 14일이내에 신고를 하지않으면 과태료(주민등록법20조)를 2~4만원씩 물도록돼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격취득자가 이를 이행치않고있는실정이며 간혹 신고기간이지난뒤 신고를하면 과태료를 물지만 계속신고를 하지않고있으면 이를 처벌할수있는규정이없어 신고한사람만 억울하다는 불평을 사왔다。

서울시의경우 지금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한사람은 60만명이 넘지만 자진신고자는15만8천명에 불과하며 다른면허도 역시 같은형편인데 이것은 주산 타자등에 이르기까지 신고해야할 면허가 너무많아 신고절차에대한 일반의 관심이 적은데다 또 처벌규정도 없기때문으로 풀이되고있다。

지난달 6일 운전면허를취득한 金成郁군(20·학생·서울江南區 瑞草2洞 新東亞아파트7동818호)의경우지난8일 동사무소에 신고를하려하자 14일이 지났다는이유로 해태(懈怠)이유서와함께 과태료1만2천원을 내라고 하더라는것。

金군이 과태료부과의 근거를묻자 담당직원이 주민등록법을 내세웠으나 신고를하지않아도 불이익이없음을알고 신고를 하지않고 되돌아 섰다.

지난달초 똑같은 사유로과태료 2만원을내고 신고를마친 朴모씨(35·회사원·서울永登浦區新吉6洞)는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알고 『괜히 신고했다』면서 억울해하기도했다。

과태료액수는 전국을 시·군단위등 2가지로 크게 나눠 마련됐으나 같은 시에서도 생활정도·학력·해태기간등에 따라 차등이 두어지며 최고4만원까지받고있다。

내무부는 신고실적이 부진하자 지난해5월 일제자진신고기간을 정하고 신고를 받았으나 역시 실적이 나빠 새로운 제도를 마련했다。【任喆淳기자】

우전면허증을 更新 單面에 사진칼러로

치안본부는 4일부터 운전면허증을 경신, 사진을 컬러로 넣어 발급키로했다。

현행 면허증은 적성검사때 새로운 양식을바꾸고 그때까지는 한께사용할수 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693-2061

앞으로는 공무원증처럼 단면으로 만들어 보관하고 모양도 회화하고 모양도 적어 화하고 모양도 산뜻하게 했다는 것이다。【聯】

老夫婦살해범 잡혀
20代…동전 3천3백원뺏고 달아나

【華城】경기 華城경찰서는 3일 金봉수씨(22·주거부정)를 강도살인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金씨는 지난달21일 새벽6시께 경기華城郡松山面古井1里 심상부씨(72)구멍가게에 들어가 마당에 나와있던 심씨의부인 이호태씨(60)를 찌르고 비명소리를듣고나온 심씨마저 찔러 죽인뒤 가게안에있던 동전 3천3백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10代끼리 격투 한명 刺殺屍로

【光明】3일밤 9시30분께 경기光明市所下1洞186야산기슭에서 나모군(17·A공고1년)이 왼쪽가슴을 예리한 흉기에 찔려 숨져있는것을 이마을 金시태군(17)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군은 이날 마을노래대회를 구경하던중 갈은마을 송모군(17·무직)과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격투를 하기로하고 야산쪽으로간뒤 시체로 발견됐다。【聯】

◇교복自律化…저마다 밝은表情

교복자율화 시범학교로 지정된 20개 중고교학생들이 4일 교복을 벗고 자유복 차림으로 등교를 했다。블루진, 골덴바지 주름치마 T셔츠 스웨터 점퍼등 간편한 옷차림의 남녀학생들은 오랜 유니폼의 규제를 벗어난 기쁨에서 저마다 밝은 표정을 지었다。시범학교들은 자유복을 입은 학생들에게 남의 눈에 띄지않는 것을 단정하고 청결하게 입을 것과 새옷을 살때는 유행형 복장을 피하고 값싸고 활동적인것을 고를것을 당부했다。그러나 멋 내기를 좋아하는 일부 여학생들은 유명 메이커 레이블이 붙은 가성복을 사입고 등교했는데 큰업체들이 만들어낸 학생용 염매선 기성복은 성인숙녀복 값의 3분의2에 해당하는 4~5만원의 비싼 값을 받고 있다。

<4日 서울金蘭여고에서 金海雲기자 찍음>

拉致소동 韓昇熙씨 追放令
美덴버地法、不法入國 시인따라

【덴버AP·聯=聯】지난9월12일 미스서울 李俞政양(28) 납치사건과 관련, 미연방수사당국에 체포된 韓昇熙씨(28)가 여권법위반혐의에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한국으로 추방될것이라고 덴버의 사법당국이 4일 밝혔다。

韓씨는 1일 덴버연방지법에서 로이스·시틀러 덴버지방법원치안판사의 심리로열린 공판에서 위조여권을 사용, 불법입국 했음을 시인했으며 시틀러판사는 집행유예 3년과 함께 5백달러의 변호비용을 납부하고 미국에돌아오지말라는 명령을내렸다。

덴버 사직당국은 韓씨에대한 납치혐의는 철회될 것이라고 말했다。

韓씨는 당초 美연방수사국(FBI)에 의해 최고종신형까지선고받을수있는납치및여권법위반혐의로 기소됐었다。

5行뉴스

◆大入전형료 大幅올라 내년도 대학입시 전형료가 최고 4천원까지 올라 국·공립대는 5천원, 사립대는 7천~1만원 수준이 된다。

최우수 「침묵속의自然보호」
자연보호활동 手記입상자발표

자연보호중앙협의회(회장 李敏載)는 4일 자연보호활동수기 현상모집입상자를 발표했다。

한국일보社후원으로 지난 8월26일부터 접수한 이번현상모집에는 초·중·고등부및 일반부에 모두 4천2백78편의 작품이 응모했는데 일반부에서는 朴喜玉씨(부산농아학교교사)가쓴 「침묵속의 자연보호」가 최우수작으로 뽑혔다。

시상식은 오는12일하오2시 서울中區忠武路5街36금성빌딩에있는 자연보호 중앙협의회 사무실(267 8451)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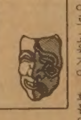
일반부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최우수작▲박희옥(부산시南區望美洞786) ◇우수작▲유병기(대구시東區新川4洞동부광명아파트1의205)=자그마한 애국▲허칠용(경남密陽郡密陽邑三門洞184 삼창주택205호)=자연보호활동수기 ◇가작▲문영자(경남泗川郡龍見面松首里)한우리속의 작은나▲오병기(전남木浦市龍塘1洞937)=정성으로 일으킨 자연보호물결▲임선자(충남大田市大興2洞338의13)=잃어버린고향、

「용의주도派」
취임 한돌맞은 具本錫서울시教育監

취임 한돌을 맞은 具本錫서울시교육감(57·사진)은 「용의주도한 사람이다」 머리가 컴퓨터처럼 돌아가 이곳저곳 「빈틈」이 없고 운신도 빠르다는 중평을 얻는다。

그런 그였지만 취임후 두달만에 터진 朱永炯교사사건때는 가슴을쓸어내리고 다시한번 주위를 살려야했다。그러나 그것은 잠시 뿐이었고 재빨리 그는 수도교육행정책임자답게「교단위주지원행정」이란 구호를 내걸고 연구교사제운영、학생상담실설치, 일선학교순회훈화등다양한 아이디어로 교육계에 휘몰아처온 충격파를 흡수하려했다。물론 실적도 올랐다。



蔚津출신인 그는 「시골학교교사가 38선 넘어와 출세했다」는 말을 좀처럼 받아들이려하지않는다。『海川나出신으로 제일뛰진다』고 오히려 (엄살?)을 떤다。그의 머리속에는 「재빨리」 농기동창인 安永模한일은행장、崔世山예비역육군대장등이 떠오르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44년 고향蔚津郡교정보통학교원으로 교육계에 발을 디딘 그는 5년남짓 고향에서 근무하다 6·25로 월남했다。52년 내무부 경리과에서 공무원생활을 시작, 54년 문교부 총무과로 자리를 옮겨20년가까이문교부밥을 먹었다。문교부총무과장、보통교육국장、서울시 교위관리국장、

빈틈없는 運身에 迫力 곁들인다면…

부교육감등 윗분을 주로 가까이 모시는 자리를 거치면서 앞뒤를 살피는 「용의주도함」이 익어갔는지 모른다。

이러한 「용의주도」 탓인지 몰라도 그는 별명이 없다는 은근한 자랑(?)을 숨기지않는다。국·과장시절 부하직원들이 그의 이름석자를 거꾸로해 「석봉구선생」이라 부른적도 있고 부교육감때는 윗사람에게 지나치게 고분고분해「具順順」이란 애칭도 있었다지만 지금은 봉용되지 않는다。

그는 達辯은 아니나 경제적인 대화를 한다。남의 말을 입맛게 듣고 자기 얘기도 아주 간추려한다。이때문인지 그의 방을 잠깐씩 다녀가는 교장들은 묘하게도 『할말을 다했고 뜻이 충분히 받아들여졌다』는 생각을 갖고 돌아가게 마련이다。

시교위직원들은 具교육감의「용의주도함」과 「묘한 대화술」이 지난10개월간 朱교사사건의 상처를거의 씻을수있었다고 높이평가하지만 박력이 아쉽다는 의견도 더러는있다。「용의주도함」과 「묘한 대화술」에 「박력」이 곁들여지면 교육행정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申鉉鈺기자】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필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도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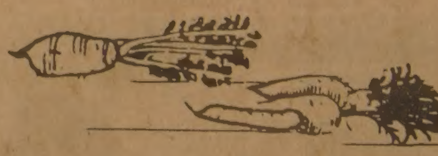
○채소 ○과일 ○화초

저희 도매상은 교민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날로 번창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많은 주문에 미처 인원이 부족해서, 제때에 배달 못 해드린 분들도 있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차량 및 인원을 증가해서 더욱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만전을 기하겠읍니다.

이제 처음 시작하는 야채도매사업이니 만큼 최저의 저렴한 가격(온타리오 FOOD마켓, 품목에 따라서는 더 낮은 가격)으로 봉사중이오니 배전의 협조있으시길 부탁드리겠읍니다.

(PICK-UP 또는 주문) ($150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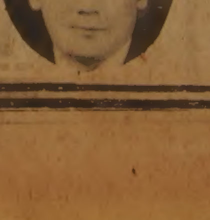
*시간 : 오전9시~오후10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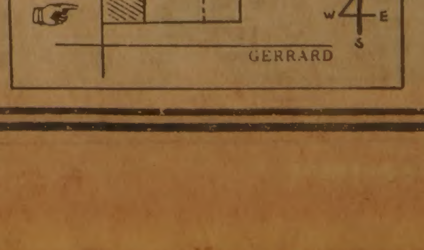
〈취 급 품 목〉
- 모든 채소종류.
- 모든 과일종류
- CUT FLOWER
- 화분
- HANGING PLANT

〈품질·가격·신용보장〉

BROADWAY FRUIT MARKET
437 CARLAW AVE.
☎ : 465-8167



대표 곽덕열



한국, 中共에 3-0 完敗

세계男子배구 2勝1敗로 12強準決 진출

【부에노스아이레스=聯合】 제10회 세계남자배구선수권대회에 출전중인 한국은 4일상오(한국시간) 이곳 루나파크체육관에서 벌어진 예선리그 E조최종전서 中共에 3-0으로 패해 2승1패를 기록, E조2위로 준결승리그에 진출했다.

한국은 이날 첫세트서 세터 金浩哲의 좋은 토스를 바탕으로 姜萬守·張允昌등의 공격이 불을뿜어 中共과 접전을 벌였으나 첫세트를 잃었다.

제2세트부터 中共은 胡進·沈富麟의 2인세터 시스팀에다 거포 汪嘉偉의 맹타로 리드를잡았으며 한국은 세터 金浩哲이 부상을당하고 물러나 각각 6, 4점씩만 따내고 물러났다.

한편 한국은 3일의對프랑스전에서 3-0으로 승리했다.

당초 12강이겨루는 준결승리그는 예선 A·C·E조의 6개팀, B·D·F조의 6개팀으로 조를 편성할 예정이었으나 대회조직위원회가 예선을 통과한 12팀을 추첨으로 6팀씩 2개조로 나누기로 방침을 변경, 혼선을빚고 있다.

◇예선E조전적 ▲E조3차전

중 공 3 (15-4 15-6 15-12) 0 한 국
(3승) (2승1패)

◇동2차전(3일)

한 국 3 (15-11 15-12 16-14) 0 프랑스

中共, 90년亞洲경기유치고려

【東京AP=聯合】 中共全國體育總會 副主任 路金棟은 中共이 오는 1990년의 제11회 아시아경기대회유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日本전국육상대회를 참관키 위해 日本을 방문중인 路는 日本서부 마쓰에(松江)에서 日本共同통신과 가진 회견에서 『中共국민들과 체육지도자들이 아시아경기대회를 中共에 유치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東亞大 2승先頭 大學야구

東亞大가 嶺南大를 누르고 2승으로 추계대학 야구연맹전 B조 선두에 나섰다. 東亞大는 4일 서울운동장에서 속행된 대회3일째 嶺南大와의 경기서 4회초 6번 朴熙贊, 7번 全大永, 8번 李東玩의 연속 2루타 3개를 묶어 2점을 올리고 6회초 또다시 朴熙贊의 2루타와 全의 포볼로 주자 1·2루를 만든뒤 李東玩의 3루타로 2점을 추가, 4-2로 승리했다.

◇제3일전적(4일) ▲B조

원광대(1무1패) 041 000 201 — 8
동국대(1승1무) 101 050 100 — 8

▲홈런=姜政男(3회) 金昊浩·李建烈(3점·이상 5회·동국대)

한국女子, 日·말聯 깨

亞洲청소년농구 남자는 싱가포르 大破

【마닐라=李基洪특파원】 제7회 아시아 청소년농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한 한국여자팀은 4일 속행된 대회이틀째 예선리그 2차전서 日本을 105-76으로 제압, 2연승으로 선두에 나섰다.

한국여자팀은 金英姬의 리바운드와 成貞姬 李美子 崔警姬 金玉姬의활약으로 日本을 초반부터 압도, 낙승했다.

이경기서 李美子는 21점으로 최고득점을올렸고 崔警姬 20점, 文敬子 金玉姬가 각각 15점을 기록했다.

첫날 말레이지아와의 1차전서 한국여자팀은 멤버를 고루 기용하며 신장의 우세외 중거리슛을살려 107-34, 83점차로 압승했다.

한편 한국남자팀은 3일첫 남경기서 싱가포르를 105-62로 대파했고, 한국의 강력한 라이벌인 中共은이란을 104-40으로격파했다.

◇제2일 전적 ▲여자

한 국 105 (47-39 58-37) 76 일 본
(2승) (1패)

중 공 100-48 말레이지아
(1승) (2패)

◇제1일전적(3일) ▲여자

한 국 107 (66-14 41-20) 34 말레이지아

▲남자

한 국 105 (41-33 64-29) 62 싱가포르
필리핀 76-64 홍콩
중 공 104-40 이 란
필리핀 86-42 홍 콩

공로패받은 申東坡

왕년의 농구스타 申東坡씨가 3일 마닐라에서열린 제7회 아시아청소년 농구선수권대회 개막식에서 공로패를 받은뒤 마르코스 필리핀대통령의딸 이메양과 포즈를 취하고있다. 【마닐라 3日UPI電送=聯合】

漢大 8強진출

퀸즈컵축구 泰 항만청 눌러

【방콕=安秉煥특파원】 漢陽大는 3일밤 방콕국립경기장에서 벌어진 제12회퀸즈컵축구대회 C조예선 2차전에서 泰國항만청팀을 1-0으로 제압, 2전2승으로 8강이 겨루는 2차예선리그에 진출했다.

漢陽大는 전반38분 페널티킥을 얻어 FW金正桓이 골인시켜 결승점을 올렸다.

이날A조 경기에서 泰國의 라즈프라차와 하카팀은 2-2로 비겼다.

◇3일전적 ▲C조 한양대 1 (1-0 0-0) 0 항만청 ▲A조 라즈프라차 2-2 하카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경보험
233-6236
745-8236

구독신청은 533-2361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畵

"어'어…6시까지 집에 들어가지않으면 마누라가 화낼텐데!"

"가장(家長)은 자네라고 마누라한테얘기하라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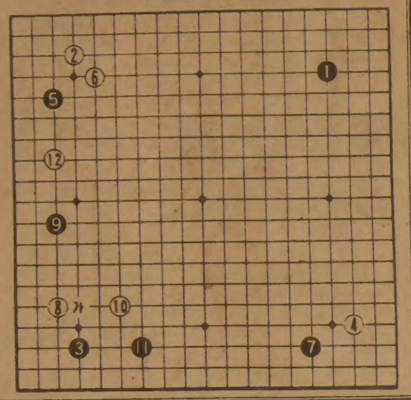
"그리고 마누라가 아무리해도 자네는 눈하나 깜박하지 않는다고 말야!"

"좋아…하자만 그런얘기도 6시까지 해주지 않으면 큰일날거야!"

名人戰 第14기 挑战者決定리그

第1局 第2譜 1~12 (각4시간·덤5집반)

白 (6段) 徐能旭
黑 (4段) 姜 勳



戰鬪態勢에 돌입

曹薰鉉·徐奉洙의 대결이 당분간 계속될것 같은 현시점에서 이들 徐能旭·姜勳의 활약은 자못 눈부신바가 있다.

徐6단 24살, 姜4단 25살. 천부의 棋才도 기재려니와 지금한창때 젊음을 불사르면서 문자그대로 일취월장한다. 게다가 이들은 승부사의 기질도 남다른 편이라 항상 무선배고단자를 앞지르며 잡차 한국棋界를 주름잡으려고 일로매진한다. 曹·徐의시대에서 徐·姜의시대, 그리고다시 구세대 거의 시대를 갈망하는 팬들에게 이두젊은이는 淸凉劑的 존재라고 말하는 사람마저 있다.

이리하여 당일은 유일한 라이벌로 격돌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이바둑은 名人戰의 서전. 필승의기백이 넘쳐 포석부터 적극적이다.

黑1、3과 白2、4로 대각선을차지한것이 그출발. 다만 黑5때 白6으로 모해둔점이 徐6단의 다양성을 보여준점이랄까.

보통 흔히두는 식이라면 白6으로는 좌하귀를 白「가」로 걸치게 마련인데 徐6단은 일단 견실하게 두어놓고 黑의 태도를 관망할 요량이다.

黑7、白8은 모두 필연이라는 趙南哲8단의 해설이지만 보면 여기까지 피차간 상대의 小目에 걸치는모습이 뭔가 한파란 일어날 것만같다. 과연 黑9、白10、黑11까지에서 白12에 갈라쳐 때이른 전투태세에 돌입한다. 【二八】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32>

朴婉緖 作 / 金光培 畵

미리 온 아이 ㉟

오목이는 천연덕스럽게 고개를 넘었다. 삼촌네의 층층보한 불빛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까지 온 그녀의 텅빈 마음에 강한 물건에 금이 가듯이 쨍 하고 와닿는 생각이 있었다.

아이는 기억할까? 팔삭동이란 자신의 별명을.

그녀 역시 아이를 버릴 궁리를 하면서 아이의 품안에 생년월일이나 이름 같은 걸 써넣기를 버르지않은바는 아니었다. 그러나 아기에겐 팔삭동이란 별명외에 이름이 없었고 고아에겐 생일 돌아오는 일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라는걸 알고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아무것도써넣지않았다.

집엔 오늘따라 일환이가 술기운 없이 일찍 돌아와 있었다.

『어디 갔다 온거야? 아이는』.

일환이가 눈을부라리며 다그쳤다.

『고아원에요』 요 너머 고아원에다 아이를 버리고 오는 길이에요』

오목이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웃었다. 그녀는 일환이를 보자마자 아이를 왜 버려야만 했던가를 알것 같았다. 두사람은 그렇게 서로미워하고 학대하면서도 그들의 아이가 결코 팔삭동이가 아니란 말만은 아직도 참고 있었다.

차마 말로 못하겠는걸 그녀는 행동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그녀는 그가 말로도 못하는걸 지기는 행동으로 보여준데 승리감 같은걸 느꼈다. 비통한 승리감이 그녀의 자슴을 찢었다.

이젠 별수없이 그도 그 사실을 말로 인정하겠지. 그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 아들임으로써만이 우린 달라질수가 있을거야. 우린 달라져야돼. 설사 급작스러운 구원을 기대할순 없더라도 달라지기라도 해야돼. 아무리 달나빠진게 달라져도 이 이상 더 나빠질순 없을테니까.

『이년이 미쳤나?』

일환이가 맹수처럼 으르렁댔다. 오목이는 그게 겁나지 않았다.

『난 안미쳤어요. 그렌 당신의…』

일환이가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다. 그리고 영원히 입을 못열게할 것처럼 그녀의목을 눌렀다. 그녀가 과감하게 질리면서 버둥대던 다리를 떨어뜨리자 제 정신이든 그는 부랴부랴 더운 물을 떠넣고 몸을 주물렀다.

그녀가 눈을 뜨자 그는 꺼이꺼이 울면서 말했다.

『대라. 어느 고아원인지 대란말야. 당장 찾아올테니. 내가 아무리 못돼먹었기로서니 내자식을 고아로 만들줄알았더냐? 그지긋지긋한 고아를. 그럴진 못한다. 죽어도 같이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여편네를 내치면 내쳤지 자식은 안내칠테니 두고 보렴』

그에게서 참말을 짜내려는 그녀의 마지막 계략도 이렇게 빗나가고 말았다.

그녀는 갈길이뛰는 일환이를 쓸쓸한눈으로바라보며 서 밤금 다녀온 고아원의 위치를 일러주었다.

그는 지체하지않고 달려나갔다. 그녀는 죽은듯이 눈을 감았다. 어쩌서 하염없이 한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그녀도 아이도 일환이가 만든 질곡(桎梏)을 벗어날수없으리라는 것을.

그는 오래지않아 아이를보물이처럼안고 돌아왔고 그때부터 삭가가있어 오목이는새벽녘에 제집애를 낳았다.

『저수나쁘게 또딸이야?』

아기를 비롯한동안 제법신바람이나서 돌보던 뭔가를 도와주려고 애쓰던 일환이는 아기가 딸인걸알자 이렇게화를냈다.

그의 화는 오래갔고 그들의 생활은 한층 곤궁해졌다.

주간女性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883-9407
●MARKHAM PLACE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주택
1. 마캄 & 킨치-4 Br.Rm. 방갈로. 잘 꾸며진 지하실. 싸우나. Fire Place 가격: 12만4천9백불
2. 세퍼드 & 빅토리아 파. 4 Br.Rm. 2층쎄미. 교통좋고 학교 가까움. 처음 사시는 분에겐 최적. 가격: 10만5천불.
3. 에그링톤&빅토리아파. 3 Br.Rm. 콘도미니움. 수영장. 테니스 코트. 시내 가까이 좋은 주위환경. 학교 쇼핑센타 가까움. By Builter — 케디락 페어뷰에서 지었음. 가격: 6만2천9백불
4. 돈밀스 & 로렌스. 3+1 Br.Rm. 방갈로. 고급주택가. 학교. 쇼핑가까움. 10¼% 몰게지. 좋은 환경. 잘 꾸며진 지하실. 가격: 13만9천9백불
5. 블루아 & The East Mall. 4 Br.Rm. 방갈로. 넓은땅. 100×160. 교통편리. Fire Place. 가격: 17만5천

★드라이크리닝
1. 주매상: 2천6백. 렌트: 월 $1,000 3년. 순수입: 월5천 가격: 9만불
2. 주매상: 1천5백. 렌트: 월 $1,600 5년+5년 가격: 7만불
3. 주매상: $1,100 렌트: 월 $1,100 5년+5년 가격: 4만불

★도넛츠숍
1. 주매상: 5천5백. 렌트: 2천7백. 1년. 10년옵션. 13만불다운. 가격: 19만9천
2. 주6일(일요일 닫음) 하루 12시간만 하는 도넛츠숍. 연순수입: 5만불 가격: 12만5천

★Hunts 베이커리
쇼핑센터내에 주매상: 4천5백. 3만불 다운. 가격: 13만5천

★쇼핑몰내에 Fish & Chips
주매상: 약8천. 렌트: $2,291.66 4년. 15만불다운. 가격: 29만불

★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4천5백, 5천5백, 6천5백, 1만4천, 1만6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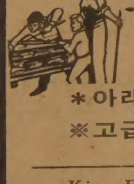
★가게딸린 건물
주매상: 3천, 5천, 6천, 7천, 1만천.

※그외의 여러 곳의 땅과 투자용 건물에 관해 문의하세요.

황용현 286-1548(R)
이헌영 686-0207(R)
강정숙 244-8918(R)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SUITE G5 DON MILLS
TEL(416)449-8644~5(B) · 286-1548(R) M3B 1Z3

중국 레스토랑
Golden China
(식당 겸 술집)
⊙바베큐 전문(오리 등등)
⊙홍콩 전문요리사로 칸토니즈 음식.
⊙Dim Sum.
195 Dundas St. W. (던다스×유니버스티)
☎: 977-3777 (오전10시-새벽1시까지)



한국식 당구대를 ………원하시는 분
(코너에 구멍없음)
*아래주소로 연락바랍니다.
※고급 품질로서 봉사합니다.
King Edward Billiard Supply Ltd.
15-1421 St. James St.
Winnipeg, Man. R3H 0Y9
☎: (204)775-8081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또다시 지독한 캐나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읍니다.

If you're thinking about moving to Florida in ten years, now's the time to start thin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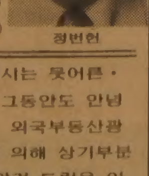
Although no one can really predict what will be ten years from now, one thing's a certainty: Every year, inflation makes your Florida move a lot more expensive.

That's why we suggest you consider making your first move toward the future as soon as possible. By considering buying a General Development homesite today—at our current prices and terms. Instead of tomorro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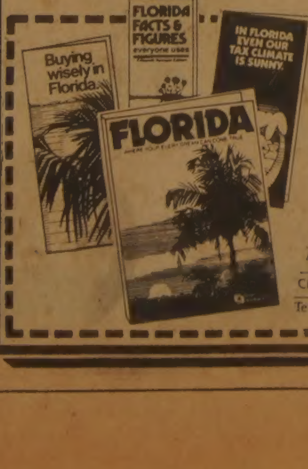
To help you look into the possibilities of this excellent hedge against inflation, General Development has prepared a comprehensive Property Information Kit about its communities as well as Florida in general.

It will answer many of the questions you might have on why to buy, where to buy and how to buy wisely. In short, it'll start you thinking. Now. Mail coupon today or call:

☎: 661-1625
Toronto office
혹은
Collect call
(1)-935-7175(B)
935-2325(R)



정번헌



Can-Am Real Estate Ltd.
Real Estate Broker
Authorized Ontario Representative for General Development
Attn: Mr. Ben H. Chung
452 Lake St.
St. Catharines, Ont. L2N 4H4
Please Rush us our Property Information Kit.
We understand there's no cost or obligation to purchase.
Name
Address
City/Province/Code
Telephone Number

저를 아끼시는 웃어른·친지여러분 그동안도 안녕하시온지요. 외국부동산광고 규제법에 의해 상기부분을 영어로 알려 드림을 이해 하시기 바라오며 이번에 여러가지 좋은 조건으로 미래의 「후로리다」집 또는 집터를 손쉽게 장만하실 기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터이니 원하시면 제게전화나 편지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정번헌 배상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 매혹의 가수 배성 특별출연 ★★
⊙7, 8월 여름휴가중 영업시간
월~목 : 오후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1618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중국인경영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합니다.

721 Bloor St. W.
크리스티 써브웨이)
530-1222 Mr. 왕
536-6250 호세환

Richard Y.K Wong
Insurance Broker
보 험
⊙자동차 보험
⊙주택 보험
⊙상업(가게·레스토랑등)전문
312 DUNDAS ST. W. TOR.
(B)977-4057 (H)461-7769
Registered Insurance Broker 리차드·왕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톨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범한서적
◉한국전집류 ◉고전, 현대소설
◉유치원 백과, 새생활 백과사전
◉사전류, 가정요리, 꽃꽂이 ◉광복20년
1712 Queen E. 전화 : 690-2216
★미주총판책임자 최 규 흡

사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 (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상 담

김보경 박사(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선

K & R Sea Food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 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빙,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 시공.
언제라도 전화 상담 환영.
전화 : 669-5784 (Mr. 심)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식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중국집) 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 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발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 - 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마련.
전화 : 532-1054(아리랑식당 옆)
712 Bloor St. W. 김 덕 기

서 울 식 품 (동부)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실내장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 님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B) 임 태 호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전화 : 928-3335 김 헌 두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 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블라도)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십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낙세대비
*수아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우

INVENTORY - 인벤토리 -
수아분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완

인쇄

미술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193-8891 유 종 대

참성인쇄소, 참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박 도 순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원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완전한 차체수리
★Rust Proofing.
★수리중차 대여
37 Primrose Ave. Toronto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건하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W.T.M. 가인무대
이진대, 이인우 사범 지적 태일지도
본관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분관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페인트 · 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31-4204 (Mr. 신)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 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요법·지압·단식요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희 광고국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보다 효과있고 신속한 광고로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광고에 관한 문제라면 언제든지 저희 광고국으로 문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친절히 드리겠읍니다.
월요일~금요일(오전 9시~오후 5시반)
토요일(오전 10시~오후 4시)
한국일보 광고국 533-2361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전화 : 534-376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Store Manager 또는 남자 Helper 구함.
956 Brimorton Dr. (내방바람)

Shoe Repair Helper
Shoe Repair에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263 Morningside Ave. at Kingston Rd.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실 여자(파타임)구함.
전화 : 977-5743

유경험자 헬퍼 구함.(그로서리)
주말 파타임 학생 헬퍼구함.
전화 : 597-1115

남자, 여자용 옷 재봉사 구함.
3년 경험자에 한함.
전화 : 366-3227 FIT LIZHT STUDIO

인쇄 기술자 구함.
Ambassador Printing
전화 : 656-2050 (마리오)

경험있는 남·녀 학생 Store Helper 구함. ★미시사가 지역.
전화 : 625-1620

Leading clothing manufactures requires payroll clerk to calculate and record weekly piece work payroll. Apply: 637 Lakeshore Blvd. W. Tor. Tel: 591-7161

★가게에서 Helper해주실
신체건장한 남자분 구함.(다운타운)

★Store Manager 구함(토론토 또는 시외지방)
단, 보증금 요함. 624-5817(Mrs.차)

Donut가게에서 밤일하실 (Full Time)
남자분구함. 저녁 10시-오전8시까지
전화 : 531-2689

개인지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양장, 재단 개인지도(휜치 & 베더스트) 맞춤, 수선(남녀복, 아동복 취급함) 재봉은 하지만 재단못하시는분 특별지도.
전화 : 665-4230 Mrs. 장

구직

Store Manager로 일하기 원함.
다년간의 경험 있음.
전화 : 533-2909(Mr. 오)

구혼

결혼상담,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최·김

기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636 Vaughan Rd. #1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 (Mrs. Adroe)

베비시터

입주하셔서 애기 봐주실분 구합니다.
스카브로 지역.
전화 : 284-3031

매매

Aurora-Variety Store, Apartment.
Variety Store.(800 sq.ft.) Basement stock Rm.(800 sq.ft.)
Apartment 4 Rms. + Bath Rm.
Asking price : $165,000 + all new equipment $20,000.
Phone. 889-8654 Mr. Jones.
W. R. Case Realty Ltd.

Grocery & Variety(2층 살림집 2Bed Rms 포함)
리스 : 5년 + 5년 옵션, 렌트(2층포함) : $625(M. 오년간)
주매상 : $3,500 아스킹 : $28,000 전화 : 463-8674

〈채소 염가 판매〉 미시사가 농장
◉판매시간: 10월, 11월은 토. 일. 공휴일 Open(시간 오후1시~6시)
◉판매방법: 칼과 Box를 준비해 오셔서 직접 뽑아가십시요.
◉채소종류: 배추, 각종무우(김장용)
◉장 소: 에그린톤과 Hwy 10에서 서쪽으로 1 마일 가면 두번째 라인 있음. 여기서 북쪽으로 500m가면 농장이 나옴.
◉연 락 처: 622-5509. - 미시사가 농장 -

Fast food business for Sale
토론토 중심가에 큰 Mall안에 있음. 윗층으로 120여개의 점포와 640여 아파트와 그리고 사무실들이 있음.
아스킹 $25,000 주매상 : $1,800~$2,000(Short hours)
전화 : 979-3224(Andy)

각종 알로베라제품 판매. 쥬스·크림·로숀·약용크림외 다수품목 보유. 최저 염가 봉사합니다.
5439 Yonge St. 전화 : 222-4717 Mrs. 김

Hardware Store for Sale
Finch Ave.(토론토 북쪽지역) Very Good Business
(안정된 사업) 전화 : 654-6600(Domenic)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 $4,300 리스 : 5년
전화 : 783-2576

미용실 급매. 드라이어: 6개
의자: 3개. 주인이 아픈 관계로 급매코져 함(좋은 가격)
Gus 전화 : 921-5947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25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set $399 etc.
Rema furniture
937 Queen St. W. 전화 : 364-0984

Variety Store 급매
총각이 혼자 새로 Set up한 전망밝은 Variety Store.
살림집 포함. 개인사정으로 급매.
오직 관심있는 분만 내방바람.
230 Ontario St., St.Catharines, Ont.

Restaurant Tavern for Sale, with property
(Dufferin & Steeles area)
전화 : 661-7767(크리스).

Restaurant 급매(Full Licensed) 완전수리, 완전시설 갖춤. 좋은 위치와 좋은 조건(좌석 : 60여석), 좋은 전망이나 사정에 의해 급매코져 함. 전화 : 656-0456

Unique Country Store in the Hockley Valley
최근 부동산 개발지역으로 알려진,
토론토에서 45분 거리의 휴양지.
주유소를 포함한 마켓, 그리고 큰 저택, 4개의 건물,
수영장 포함. 급매코저 낮은 가격으로 팔려고 함.
전화 : 519-822-8530 Betty or Lorne Patterson.
519-824-1123 Canada Trust Realtor.

Basiness & Building for Sale
Grocery Market.
Hwy35번과 Hwy503번이 만나는 지점.
Toronto에서 동북쪽으로 1시간30분가량 걸리는 장소
년매상 : $700,000 Good Mortgage.
전화 : 705-454-3411(Jim)

영어쓰는 지역의 Super Market 팝니다.(몬트리올)
좋은 Lease와 낮은 Rent. 주매상: $16,000이상
윗층 Apt.도 Rent 가능함. 전화 : 514-481-3291 (Mr. 강)

Variety Store 급매(이윤좋은 가게)
주매상 $2,500 Rent $450 리스: 4년반
Asking: $12000+스탁 전화 : 654-4709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렌트 : $950
주매상 : 6,500. 리스 : 3년+5년(에토비콬지역)
전화 : 621-2059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읍. 주매상 : $3,000. 렌트 : $300(M)
전화 : 259-0323

Convenience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코저함. 주매상 $3,500-$4,000. Video 머신에서 주 300불 수입. 1-623-7000 Mr. 박

"특별한 기회"
발전 가능성이 큰 이윤높은 소매업자가 자본이 있고 능력있는 투자가를 찾음.
현재의 연간 1백만달러 매상고를
두배로 늘릴 수 있음.

★회답처 : C.H. Eaton Asso.
1166 Bay St. #304
Tor. Ont.
M5S 2X8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사무실렌트

사무실렌트(외환은행 3층)
불루아의 중심지 ★면적 : 890 sq.ft.
전화 : 535-8801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Victoria Subway 건너편 (Condominium)
3 Bed Rm. $700/M.(유지비 포함)
전화 : 698-1347 694-4812

실비하숙 또는 방세 놓읍니다.
상세문의 오후 5시 이후 전화 : 530-1046

집렌트

4 Bed Room House전체를 세놓고자함(Brampton지역)
2 Bath Room, Family Room, Fire Place, 차고등,
학교와 Shopping plaza근처에 있음. 593-8943

2층 전체 방세놓습니다. 방2개, 응접실, 부엌, 목욕탕, 써니룸. 월 $450(모든것 포함)
전화 : 530-4321, 536-0754

단층집(Semi Detaches) 4 Bed Room 세놓음.
Home Bar등 지하실 꾸며져 있음.
스카브로지역(Neilson & Sheppard). 전화 : 968-9450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석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신분(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보 부 동 산
전화 : 225-1204

강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가구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린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퍼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관 광

코라메 관광(주)(제일여행사 2층)
일년내내 관광을 함께·····
649 A Bloor St. W. 전화 : 535-0853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안)
각종 파티·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정 순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광고문의 533-2361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서)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5시 이후)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1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미술연구소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변호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비데오 센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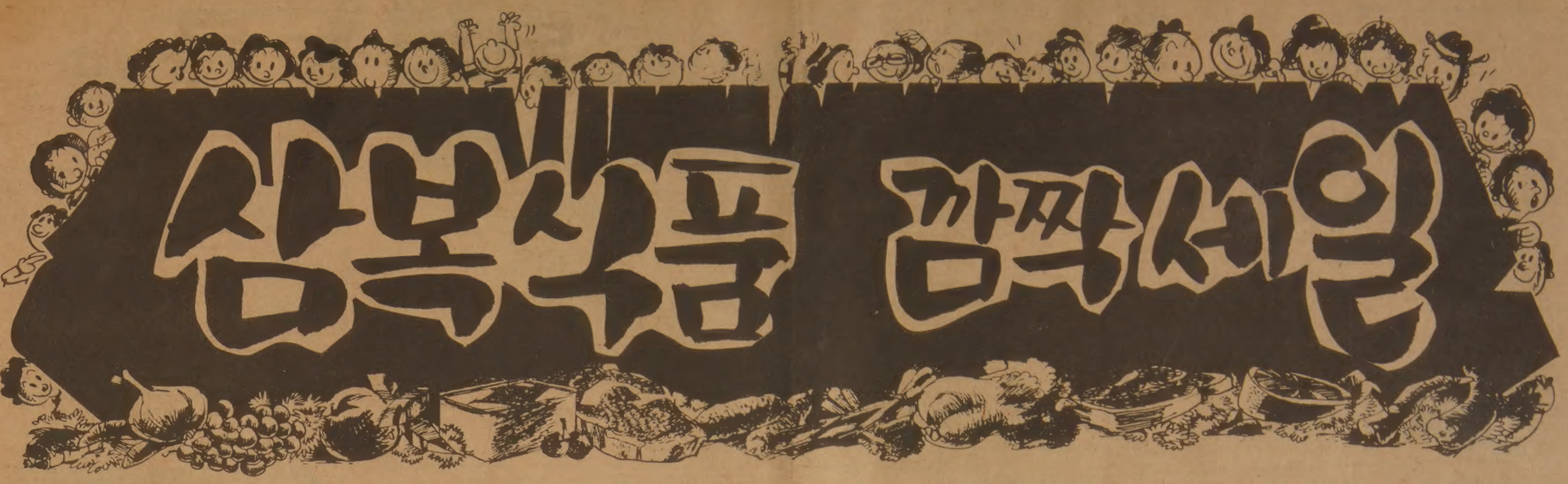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사무용구및계산기

SBS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어떤 광고가 필요하십니까?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일요일 쇼핑**오시면 (100불이상)(**쌀·라면·조기·오징어·갈비BOX** 계산서제외) **25% 할인**, 즉석에서 **현금**으로 **25불** 드립니다. (오후4시부터 OPEN함) 한번 와보세요. 돈이 많이 절약됩니다. 그리고 이번 기간동안 **비데오 테프**도 **FREE RENT**해 드립니다.(단3일간 무료)

⊙**쌀·삿보로라면**(24개)·**배추 무우 도매가**로 드립니다.

⊙**햇조기·물오징어** 박스로 사시면 **특별할인** 해 드립니다.

<순한국산>

SP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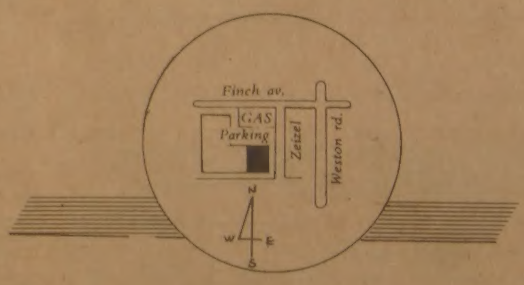
당 면	~~$2.99~~	$2.59
냉 면	~~$1.09~~	.79
엿 기 름	~~$2.75~~	$2.29
메주가루	~~$2.99~~	$2.59
보 리 차	~~$1.95~~	$1.55
미 역 :	~~$3.99~~	$1.99
국 수	~~$1.09~~	.69
김(특상)	~~$18.95~~	$13.95

※새우젓, 멸치젓, 황새기젓, 어리굴젓, 육쪽마늘, 생강, 생굴등 김장(양념) 준비가 다 되어 있읍니다.

※9월호 신간잡지 판매

샘터, 여학생, 현대문학, 신동아, 문학사상, 주부생활, 여원, 여성동아 등 인기리에 판매중.

⊙Hwy에서 가장 교통이 편리하고 넓은 파킹장이 있으며 언제나 FREE입니다. 401에서 400 NORTH로 오시다가 FINCH WEST로 빠지면 401에서 불과 5분밖에 걸리지 않읍니다.



⊙삼복식품점은 품질이 많이 향상되고 써비스가 날로 개선되고 있읍니다. 한번 들려 주세요. 꼭!!

삼복식품 김규석 올림

삼복식품

2437 FINCH AVE. W. WESTON

☎ : 743—8270